

2009 · 제25호

ANNUALLY

속초문화

THE SOKCHO CULTURE JOURNAL



所名陽東
繪空悲樂的理想
畫五東

세 상 에 서 가 장 달콤한 꿀을
꽃 은 나 비 에 게 내어 주고
나 비 는 꽃 의 번 식 을 도와 주
는
꽃 과 나 비 처 럼 농 촌 과 농 협



강남의가나  농 협

함께하며 나누고, 더불어 사는 즉,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NH농협

 **농 협 중 앙 회**
속초시지부

“강원도 1호 온천-

척산온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자락 5만여평의 소나무숲에 조성된 강원도 온천, 척산온천이 온천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이제 휴양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본격적인 보양온천 시대를 열어갑니다.



척산온천휴양촌 전경



척산온천관광지구 조감도

척산온천은 치유(Therapy)입니다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데이터와 연계한 세계 최초의 맞춤형 수(水)치료시스템을 적용하여 온천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양온천, 치유의 온천을 실현합니다.

척산온천은 휴식(Relaxation)입니다

자연의 위안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테마 노천탕과 최신의 테라피센터, 뛰어난 효능의 휴식공간까지... 온천은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완전한 휴식입니다.

척산온천은 즐거움(Fun)입니다

몸에 좋은 온천수가 무제한 공급되는 신나는 「키즈 플레이아일랜드」와 P.I.C타입의 관리형 「액티비티 레저풀」... 온천은 온 가족이 만족하는 즐거움입니다.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ANNUALLY · 2009 제25호

속초문화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 217-010

전화 (033)632-1231, 639-2439 / 전송 (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

http://www.sokcho-history.com

E-mail : sc2439@sokcho.org

■ 펴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노광복

편집인 / 김인섭

CONTENTS



cover story

속초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80년 전 우편엽서
(P. 123 관련기사)

■ 권두시 / 청초호 야경	권정남 · 6
■ 권두회호 / 九思	김동하 · 7
■ 환동해시대의 관광 · 해양 중심도시, 속초 건설	· 8
■ 발간사	노광복 · 9
■ 문예중흥선언	· 10
■ 속초시민헌장	· 11
■ 속초시가	· 12
■ 2009 속초문화원 365	· 13
- 2009 정월대보름맞이민속놀이한마당	· 14
- 효행청소년 시상	· 16
- 한국문화학교 17기생 입교식	· 17
- 학교문화예술교육	· 18
- 노인일자리사업	· 19
- 북청사자놀이 전수	· 20
-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 21
- 도리원농악대 전승 및 보존 / 제1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 22
- 청소년방학프로그램	· 23
- 어린이 방학프로그램	· 24
- 강원도 청소년 풍물캠프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 25
-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 26
-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 27
- 전통종목 전국대회	· 28
- 2009 문화유적답사	· 29
- 2009 한국문화학교 제17기생 수료식	· 30
- 청소년 문화전수 교육 / 신간안내	· 31
- 언론 기사 및 노광복 원장 동정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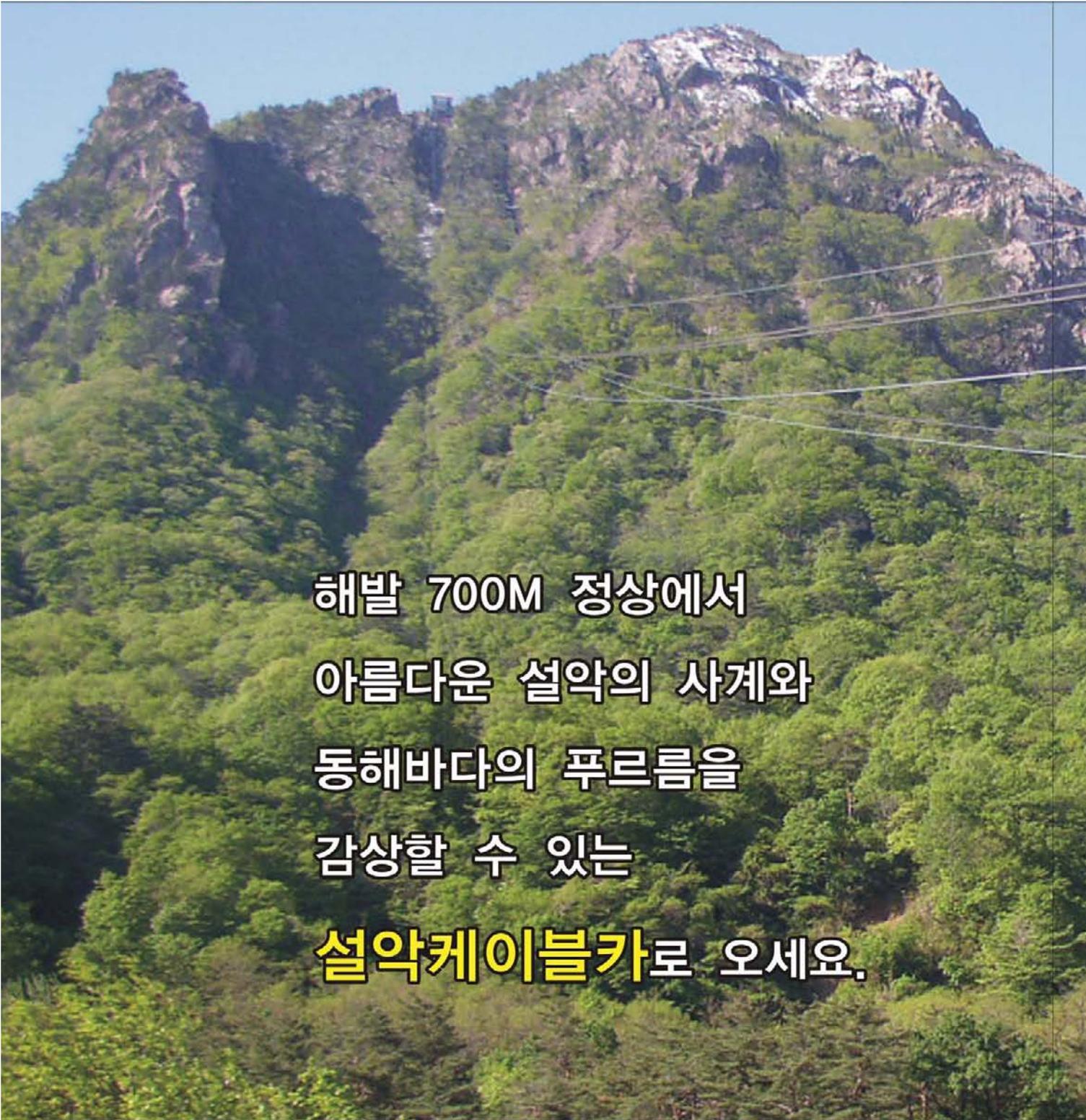
발행일 / 2009년 12월 30일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 사진제공 : 속초시립박물관

■ 특집 / 학교문화예술교육, 꽃을 피우다	
- 속초 학교문화예술교육 5년의 성과와 의미	최택수 · 34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심오섭 · 41
- 인터뷰 / 예술꽃씨앗학교 '대포초등학교'	편집부 · 45
- 좌담_학교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과제	김인섭 · 48
■ 문화 논단 1 /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고찰	장정룡 · 57
■ 문화 논단 2 / 지명조사의 중요성	김만중 · 77
■ 문화원포커스 / 실버해설문화해설사 양성	편집부 · 90
■ 문화탐방 / 척산 온천	편집부 · 99
■ zoom, 속초문화 / 발해박물관	한경태 · 102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참관기	이정무 · 108
■ 문화현장 / 오페라 갈라쇼	편집부 · 111
■ 우리지역 옛이야기 / 당포함 침몰 현장에서	동문성 · 112
■ 1930년대 속초항 개발과 정어리 호황	엄경선 · 116
■ 회원문단	
- 한시	황재권 · 126
- 시	손문숙 · 131
■ 축하합니다	· 132
■ 문화상수상자	· 135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임 · 직원	· 136
- 회원	·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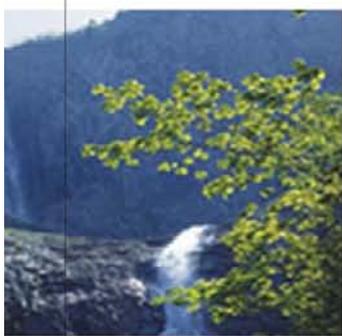


해발 700M 정상에서
아름다운 설악의 사계와
동해바다의 푸르름을
감상할 수 있는
설악케이블카로 오세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46-2
www.seorakcablecar.co.kr
TEL : 033) 636-4300



권두시

청초호 야경

누가 샅풀이춤 추고 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호수 위를 뚱뚱 걷다가
은빛 날개옷 되어 떠내려가다가
흰 꽃등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함경도 앞 바다 그리워
버선발로 물위를 건너뛰다가
흰 수건 던져 놓고 흐느끼다가
아름다운 목 뒤로 꺾으며
북쪽하늘 별을
따잡도록 움켜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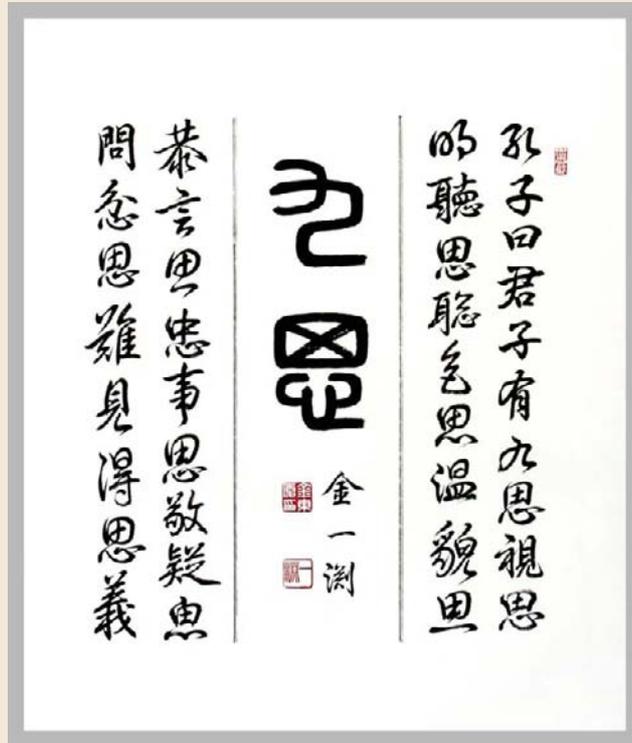
한 밤중 청초호수 한가운데
누가 샅풀이춤을 추고 있나
두고 떠나 온 슬픈 눈동자를 위하여
흰 꽃등 양손에 들고
안개 숲을 가로지르며
버선발로 물살을 차내다가
이승과 저승

남과 북을 건너뛰고 있다



권 정 남

1987년 <시와의식> 신인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강원문인협회, 설악문우회, 산까지회원으로 활동.
시집으로 『속초비람』, 『서랍 속의 사진 한 장』이 있음.



九思 (구사) / 65 × 75cm

九思 (구사)

論語 句 (논어 구)

孔子曰 君子有九思 (공자왈 군자유구사)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에게는 아홉가지 생각이 있으니

視思明 聽思聰 (시사명 청사충)

볼 때에는 밝은 것을 생각하고, 들 때에는 귀밝음을 생각하며

色思溫 貌思恭 (색사온 모사공)

낮빛은 온화함을 생각하고, 모습은 공손함을 생각하며

言思忠 事思敬 (언사충 사사경)

말을 할 때에는 충성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에는 공경함을 생각하며

疑思問 忿思難 (의사문 분사난)

의심이 나면 물을 것을 생각하고, 성날 때에는 어려운 것을 생각하며

見得思義 (견득사의)

이득을 볼 때에는 옳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김 동 하

서예개인전 2회
교육부장관 표창

대한민국서예전람회(서가협) 초대작가
강원서예대전 조직위원, 심사위원, 초대작가
한·중서화부흥협회 이사, 심사위원, 초대작가
고려수지침학회 설악수지침봉사단장
속초평생교육문화센터 · 속초문화원 서예 지도강사
경동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



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 중심도시, 속초 건설

심볼 마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릭터



속초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문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 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시목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끈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 넓게 퍼지는 가지는 지역 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시화



국화

국화는 번식력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희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시조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된 단결을 대변하는 속초시의 염원을 담고 있다.

10년 후를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



속초문화원장 노 광 복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에 25번째 속초문화를 발간합니다.

문화의 세기라고 부르는 21세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속초는 새로운 문화관광 시대를 맞아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문화는 1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으로 획을 그을 수 없는 삶의 축적이자 생활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대의 문화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속초문화원이 매년 발간하는 <속초문화지>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문화원은 문화를 이해하고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세대가 문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문화학교를 운영했고, 지역의 특화된 문화콘텐츠 양성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실버문화해설사 양성'이라는 결과물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 24분이 속초의 주요관광지에 머무르며 속초문화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곁들여 관광 1번지 속초의 참병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속초에서 개최된 제1회 전통종목대회의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속초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속문화를 선보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와 경제가 결합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쉐어노믹스 시대에 우리 모두는 문화콘텐츠의 엄청난 영향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속초처럼 열악한 경제환경을 가진 곳에서는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런 만큼 속초문화원의 역할 역시 중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반성 위에, 앞으로 다가올 10년 후의 문화를 생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묵묵히 문화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가족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文藝中興宣言文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를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시 민 헌 장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족 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위업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성 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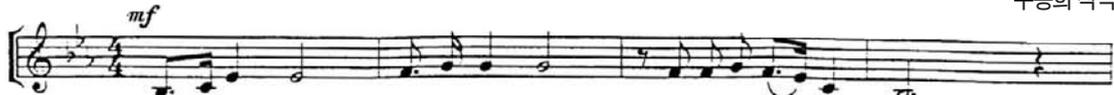
1990년 10월 11일

속 초 시 민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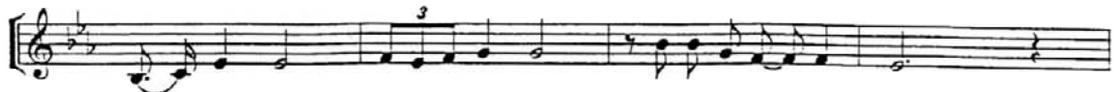
속초시가

♩ = 92 - 96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굽 이 굽 이 아침 해 떠 오 르 고
3. 신 - 흥 사 증 소 리 에 새벽 잠 깨 - 이 어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 에 펼 - 치 네
천 - 불 등 푸른 - 짜 기 에 친구 를 품 을 문 네
이 슬 젖 은 발 - 길 로 바닷가 거닐 어 라



정 성 과 보 - 람 으 로 다 저 온 이 - 터 전
정 초 호 기 - 대 - 어 마 동 령 바라 보 니
갈 매 기 눈 - 이 - 어 우리 꿈 손 짓 하 니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 래 세 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녀 이 그 - 욱 히 깊 어 지 네
항 - 구 에 뮤 인 배 가 대 양 으 로 차 비 하 네



가 자 배 를 젓 - 자 산으로 바다 향 - 해



우 리 일 것 - 든 곳 여기가 내 고 - 향

2009 **365** 속초문화원 ✓

365%의 열정으로 달려온 지난 1년
36.5도의 따뜻함으로 만난 문화네트워크
365일 언제나, 속초문화와 함께했던
그 열정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2009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

제29회 정월대보름 맞이 한마당 잔치가 2월 9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 다양한 민속놀이로 꾸며졌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한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는 전통 재연 및 체험 행사, 민속놀이 체험행사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통 재현 행사에서는 액집(달집) 태우기, 지신밟기, 북청사자놀음, 판굿이 재연되었다. 특히 액집 태우기는 도내 최대 규모의 액집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 액집을 태우며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행사가 되어 관람객 모두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와 함께 가훈 써주기, 연과 제기 만들기, 소원지 쓰기, 부럼 깨기 등의 다양한 전통 체험 행사 및 떡 메치기, 제기 차기,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가져 현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이 밖에 각급 기관과 단체가 동참해 전통문화축제의 진수를 보여주는 다양한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졌다.



- 행사명 : 2009(제29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
- 일시 : 2009. 2. 09(월). 16:00~19:00
- 장소 :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최 : 속초시, 속초문화원
- 주관 :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외 9개 기관 및 단체
- 내용 : 전통 재연 및 체험 행사, 민속놀이 체험행사(15개 행사)

행 사 종 목	행 사 내 용	주 관
액집태우기	행사장에 액집(달집)을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원성취를 기원	속초 시설 관리공단
판굿, 북청사자놀이	시립풍물단 공연(판굿, 북청사자놀이)	속초시박물관
지신밟기	횃불행진, 농악공연 등	갯마당
가훈써주기	시민 및 관광객 대상 무료로 가훈 써주기	속초문화원
연, 제기 만들기 소원지쓰기,부럼깨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통놀이기구인 연, 제기 만들기과 아울러 소원지쓰기, 부럼깨기 체험 추진	속초문화원
전통떡메치기	洞 대항전	대한적십자지사 속초지부
제기차기	洞 대항전	한화리조트
널 띄기	洞 대항전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웃 놀이	洞 대항전	속초신협
투 호	洞 대항전	속초양양축협
연날리기	개인전(방패연, 가오리연), 창작연 부문	속초수협



2009 효행청소년 시상

본원은 매년 속초 관내 16개 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청소년 시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품행이 방정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선발하여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효행청소년상' 을 시상했다.

본원은 매년 치르는 이상의 시상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번호	학교명	학생명	번호	학교명	학생명
1	속초중학교	이광민	9	속초초등학교	박서현
2	설악중학교	정의빈	10	영랑초등학교	김동규
3	속초여자중학교	이다정	11	온정초등학교	이혜미
4	설악여자중학교	최은혜	12	조양초등학교	길예은
5	교동초등학교	최영진	13	중앙초등학교	임진주
6	대포초등학교	양찬형	14	청대초등학교	박우명
7	설악초등학교	김현지	15	청봉초등학교	박채련
8	소아초등학교	손유희	16	청호초등학교	이현주



2009 향토문화학교 제 17기 입교식



속초문화원은 향토문화학교 제17기생의 입교식을 지난 3월 6일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로 문화 복지 실현,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감상능력 제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개설한 강좌이다.

올해 강좌는 '장구초급, 사물놀이, 한지/종이공예, 서예교실, 노래교실, 북청사자놀이연희반, 민요교실' 등 7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이들 강좌의 수강인원은 모두 250여명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보여주었다.

강좌명	운영기간	요일	교육시간	교육장소
장구초급	3월~11월	월·목	10:00~12:00	갯마당연습실
사물놀이	"	월·목	13:00 ~ 15:00	문화사랑방
서예	"	화·금	10:00 ~ 12:00	문화사랑방
노래	"	화·금	13:00 ~ 15:00	문화사랑방
민요	"	화·금	10:00 ~ 12:00	갯마당연습실
한지/종이공예	"	수	10:00~12:00	문화사랑방
북청사자놀이 연희반	"	수	13:00~15:00	문화사랑방

2009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속초문화원은 초등학교 대상 전통음악 교육 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지난해부터 주관하였다.

올해는 특히 ‘국악캠프’를 방학기간 중 개최하여 놀이와 교육을 겸한 다양한 체험과 문예 강좌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지식과 기량의 습득을 통하여 국악의 올바른 계승 및 발전과 향후 방향정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도리원농악, 북청사자놀이 등의 지역고유의 문화예술자원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였고,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및 전통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 사업명 : 2009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국악이랑, 놀자”
- 사업기간 : 2009년 3월 ~ 12월
- 사업주최 : 속초시
- 사업주관 : 속초문화원,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 사업장소 : 속초시 관내 초등학교(6개교)
- 참가대상 : 관내 초등학교학생
- 참여인원 : 227명
- 참여학교
 - 속초초등학교 : 취타대
 - 온정초등학교 : 도리원농악
 - 중앙초등학교 : 가야금병창
 - 청호초등학교 : 북청사자놀이
 - 조양초등학교 : 호남우도농악
 - 청봉초등학교 : 창극





2009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지난해에 실시한 아바이마을 관광해설사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시작했다.

‘실버문화관광해설사’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이 사업은 노인들이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 거점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 소개 등 문화알림이 역할을 하였다. 또한 관광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주소지와 연령, 방문 목적 등을 방명록에 기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속초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총 24명의 어르신들이 속초관광해설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아바이마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엑스포 공원 등 4곳의 관광지에서 5월 ~ 10월 동안 문화관광해설을 실시하였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는 등 속초관광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 행사명 : 2009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 일시 : 2009년 4월 ~ 10월
- 장소 : 아바이마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엑스포 공원
- 주최 : 속초시
- 주관 : 속초문화원
- 내용 : 속초의 관광자원 해설이 가능한 실버 해설사 양성 및 관광 해설.

속초 365일 문화로 거닐다

1. 거문고대 일출을 보러가는 여정 일대일 여행

2. 푸른 영금정 탐방길 서해안길 여행

3. 서해안길 탐방길 서해안길 여행

4. 영랑호 범바위 일출을 보러가는 여정 일대일 여행

5. 엑스포 공원 탐방길 서해안길 여행

6. 속초 365일 문화로 거닐다

속초는 365일 문화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1. 속초 365일 문화로 거닐다	2. 영금정 탐방길
3. 영랑호 범바위 일출을 보러가는 여정 일대일 여행	4. 엑스포 공원 탐방길
5. 거문고대 일출을 보러가는 여정 일대일 여행	6. 서해안길 탐방길
7. 속초 365일 문화로 거닐다	8. 속초 365일 문화로 거닐다

매혹

속초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문화의 향기를 느끼는 새로운 방법! 속초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문화의 향기를 느끼는 새로운 방법!



북청사자놀음 전수 및 공연

북청사자놀음은 속초문화원이 지역 고유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전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향토 사랑의 기회는 물론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북청사자놀음을 강원도무형문화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면서 지역의 문화정통성을 보전하며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청사자놀음 전수회에는 시립풍물단과 신천무용단, 영북민속연구회 갯마당의 젊은 예술가들은 물론 속초문화원산하 향토문화학교 회원들과 함경남도 청년회 등이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일구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수회 단원들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속초 문화회관 소강당과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인 동선본, 동선백 선생님께 체계적으로 전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피난민체험행사, 작은 콘서트, 거리 공연 등에서 총 8회의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속초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문화원은 기계화 영농이 시작 되며 차츰 잊혀져가는 도문농요의 원형을 발굴하여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종합최우수상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후 2007년 무형문화재 지정 및 기능보유자 지정, 2008년 문화재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보조자 지정을 이끌었다.

올해에는 설악산 소공원과 상도문 운동장,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등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통해 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공연의 내용을 관중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이 있는 공연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설악산 소공원에서 개최된 공연은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속초의 전통문화를 널리 소개시켰고,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공연을 실시하여 잊혀져가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다시금 주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리원농악대 전승 및 보존

속초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인 도리원농악의 전승, 보존을 위해 속초문화원은 영북민속보존연구회 '갯마당' 과 함께 속초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속초문화원 및 갯마당 연습실에서 총25회 도리원농악 전승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직은 전승 교육에만 머물러 있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로 양성하여 향후 무형문화재로 육성 및 속초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제1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속초문화원 주부풍물단이 제1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전국문화원연합회강원도지회가 주최하고 횡성문화원이 주관한 '사물놀이경연대회'는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건전한 생활문화정착을 위해 지난 6월 17일 횡성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어 도내 각 시·군 주부들로 구성된 16개 사물놀이패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동상을 받은 속초문화원 소속의 주부풍물단 단원들은 다음 대회에선 더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다짐으로 대회를 끝마쳤다.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와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는 “친구들이 별자리 체험하고 애니메이션보자”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2박 3일 동안 직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속초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참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로 1차(7월21일~23일) 35명, 2차(8월12일~14일) 35명 등 모두 7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았다.

캠프는 속초시립박물관과 횡성 우리별천문대,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등지에서 펼쳐졌다. 교육프로그램은 플라레타리움 천체체험, 별자리 및 태양계 관측, 야생화 등 수목관찰, 3D애니메이션 체험, 속초8경 배우기, 도문농요를 통한 농사문화 배우기, 북청사자놀음과 실향민 문화체험 등으로 꾸며졌다.

이 체험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쉽게 경험하지 못한 많은 체험을 함으로서 사고의 폭과 창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행사명 :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친구들이 별자리 체험하고 애니메이션보자”
- 일 시 : 2009년 7월 21 ~ 23일, 8월 12일 ~ 14일 (2회)
- 장 소 : 횡성 우리별천문대,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학무정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내 용 : 횡성 우리별천문대 별자리 체험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속초시립박물관 북청사자놀음 배우기, 영화감상
 속초문화 체험(사자탈 만들기, 도문농요 배우기, 속초 8경 익히기)



2009 어린이 방학 프로그램

“얼썩 신나는 우리문화”

이 사업은 “얼썩 신나는 우리문화”라는 제목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린이 방학 문화 프로그램이었다. 속초 관내 초등학교 3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예절수업, 북아트, 도자기 체험, 탈춤 배우기, 클레이아트, 국악 배우기, 박물관 견학 등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속초문화원은 이 행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우리 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행사명 : 2009 어린이 방학 프로그램 “얼썩 신나는 우리문화”
- 일 시 : 2009년 7월 27일 ~ 8월 5일
- 장 소 : 속초문화원, 석봉도자기 미술관, 속초시립박물관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내 용 : 예절수업, 북아트, 도자기 체험, 탈춤 배우기, 클레이아트, 국악 배우기, 박물관 견학



2009 강원도 청소년 풍물캠프



속초문화원이 주최하고 영북민속연구회 갯마당이 주관한 '2009 제13회 강원도 청소년 여름국악캠프'가 7월 24일 ~ 29일 5박 6일 동안 속초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우리음악(풍물)에 관심이 많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는 풍물기초반, 사물놀이반, 설장구반, 농악반, 상모기초반, 태평소반 등의 일반강좌와 단소, 민요, 공동체 놀이 등의 공통강좌로 구성하여 캠프를 진행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의 전통음악을 심도 있게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강의가 이루어짐으로서 향후 전통음악 보존 및 발전의 기폭제를 육성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 행사명 : 2009 제13회 강원도 청소년 여름국악캠프
- 행사기간 : 2009년 7월 24일 ~ 7월 29일 (5박6일)
- 개최장소 : 속초시립박물관
- 모집대상 : 우리음악(풍물)에 관심 있는 도내 초·중·고등학생 및 단체
- 주 최 : 속초문화원
- 주 관 :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2009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실버예술단 가야금 교실'



활기찬 어르신들의 재미있는 문화 나눔. 땡땡땡 실버문화학교가 '어르신 문화학교' 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마당을 올렸다. 2년 전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악극, 지난해 마당극 춘향전에 이어 올해는 가야금 연주단을 양성하였다. 5월에 참가자 접수를 받아 총 15명의 어르신들이 6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 동안 갯마당 연습실과 문화사랑방에서 가야금강사 윤중립 선생님의 지도 아래 총

52회의 교육을 받았다. 향토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에서 첫 공연을 하였고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속초문화원은 내년부터 이 배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생각으로 실버문화학교 어르신들과 함께 '문화 봉사단'을 조직하여 문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공연을 할 계획이다.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콘서트'는 속초의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차별화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지속적인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름철 성수기 관광객을 위한 속초시의 대표적인 체류형 문화관광 상품으로 기획되었다. 올해는 7~8월 주말에 총 8회의 공연을 하였다.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전통문화 공연을 비롯하여 통기타, 무용,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인의 공연이 열렸으며, 사회자 신형찬의 재미있는 진행과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연을 펼쳤다. 그리고 매회 공연마다 관광객들이 300석 규모의 객석을 가득 채워주었고 큰 갈채를 보냈다.

- 행사명 : 2009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
- 일 시 : 2009. 7. 25 ~ 8. 9(총 8회) 19:30 ~ 22:00
7. 25 ~ 26(토,일), 7. 31 ~ 8. 3(금,토,일,월), 8. 8 ~ 9(토,일)
- 장 소 : 설악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내 용 : 북청사자놀음, 통기타, 품바 외 문화 예술 공연
- 대 상 : 관광객 및 속초시민



제44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설악제례는 설악문화제를 맞아 속초의 번영과 속초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망향의 슬픔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인해 설악문화제가 개최되지 못했지만 설악제례는 강행해야 한다는 속초시민들의 바람에 의해 제44회 설악문화제 제례행사가 지난 16일 설악산 소공원(설악산신제)과 해맞이 공원(용왕제·망향제), 속초광장(송신제)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런 제례문화가 속초의 전통문화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송신제를 시내 속초광장에서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 일 시 : 2009년 10월 16일 (금)
- 장 소 : 설악산신제단 외 2곳
- 주 관 : 속초문화원
- 내 용 : 산신제, 용왕제, 망향제, 송신제
09:30 ~ 10:40 설악산신제 (설악산 소공원)
13:00 ~ 14:00 동해 용왕제 (해맞이 공원)
15:00 ~ 16:00 망향제 (해맞이 공원)
17:00 ~ 18:00 송신제 (속초광장)



전통종목 전국대회

제1회 전통종목전국대회가 속초에서 개최되어 민속 문화 체험행사를 속초문화원이 주관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민속놀이 공연, 전통문화 체험, 민속놀이 체험 이렇게 3개의 분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했다. 민속놀이공연에는 줄타기, 널뛰기, 그네타기, 연날리기 시연 등 네 개의 꼭지로 나누었는데 줄타기 명인 홍기철 어르신은 많은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전통문화 체험행사로 신나는 풍물체험, 북청 사자탈 만들기, 우리집 가훈씨주기, 전통도자기체험, 신기한 옷점 보기, 추억의 옛치기, 싱싱연 만들기 등이 열렸다. 민속놀이 체험마당에는 외줄타기, 널뛰기, 투호, 굴렁쇠, 고리던지기, 죽마, 각시풀 만들기, 딱지와 제기 만들기 및 겨루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행사명 : 전통종목전국대회 민속 문화 체험행사

□ 기 간 : 2009년 9월 26 ~ 27일

□ 장 소 : 엑스포 C구장 및 분수공원

□ 행사내용

- 민속놀이공연 : 줄타기, 널뛰기, 그네타기, 연날리기 시연
- 전통문화 체험 : 풍물놀이 체험, 북청사자탈 만들기, 가훈 씨주기, 도자기 만들기, 옷점 보기, 옛치기
- 민속놀이 체험 : 외줄타기, 널뛰기, 투호, 굴렁쇠, 고리던지기, 죽마, 각시풀 만들기, 딱지와 제기 만들기 및 겨루기





2009 문화유적답사

2009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2009 문화유적답사' 를 다녀왔다. 올해 속초문화원의 문화유적 답사는 '인천, 충청권 서해안 탐방' 이라는 주제로 팔미도, 인천대교, 인천세계도시축전, 소래포구, 대부도, 삼교천 함상공원, 문경세계, 충주 단급대 등을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이번 문화유적답사를 통해 동해와 다른 서해 갯벌의 풍광,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웅장함을 느꼈다. 특히 삼교천 함상공원관람 중 관광해설사의 2002년 연평해전 이야기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남북 간의 대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9 향토문화학교

제 17기생 수료식 및 전시, 발표회

향토문화학교 제 17기생 수료식과 전시, 발표회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및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문화학교는 1993년부터 시민의 문화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고 문화적 소양의 함양,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기위해 개설하여 현재까지 2만여 명의 문화가족들에게 문화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서예교실, 노래교실, 한지/종이 공예, 사물놀이, 북청사자놀이연희, 민요교실, 장구초급반이 개설되어 250여명의 회원이 기량을 닦아 왔다.

11월 27일 10시 30분부터 '서예교실과 한지/종이 공예' 에서 준비한 전시회의 개전식이 열린 후, 11시에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수료식에는 우수 수강생 표창과 강사소개, 수료증 수여 등의 행사가 열렸고, 채용생시장, 김성근 속초시의회의장 등 속초관내 인사들이 참여하여 많은 축하를 보내주었다. 이후 11시 20분부터는 민요, 노래, 사물놀이, 장구, 북청사자연희반의 발표회 공연이 이어지고 특별 행사로 실버예술단의 가야금연주 공연이 선보였다.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 29일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및 제2전시실, 문화사랑방

주 최 : 속초시

주 관 : 속초문화원

내 용 : - 개전식 : 11월 27일 10시 30분

- 수료식 : 11월 27일 11시

- 전시회 : 11월 27일 ~ 29일 / 한지공예, 서예 전시

- 발표회 : 11월 27일 11시 20분

민요, 노래, 사물놀이, 장구, 북청사자연희, 어르신문화학교 가야금연주 발표



2009 청소년문화전수교육

'마술같은 미래, 너희들이 주인이야!'

지난 12월 1일 10시부터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과 특강이 어우러진 '마술같은 미래, 너희들이 주인이야' 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행사는 속초문화원부원장이자 30여 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신 오윤근부원장이 '일제강점기 청소년의 생활' 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서 속초시 전통문화인 속초도문농요공연, 지역가수 김진우의 공연, 스토리가 있는 매직 쇼 등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특히 스토리가 있는 매직 쇼에서는 마술사 함현진(한국마술교육협회 회장, 매직캐슬코리아 대표이사)을 비롯해 대중에 잘 알려진 마술사 13명이 출연, 각테일 쇼(세계 챔피언 바텐더 팀), 요요 쇼(SBS 스타킹 출연팀), 코미디 마술 등을 선보여 학생들의 많은 환호를 받았다.

이날 공연은 속초고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설악고등학교 등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00여명이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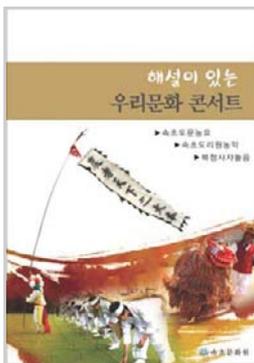
- 일 시 : 2009년 12월 01일
- 장 소 :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대 상 : 속초고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설악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총 900명)
- 내 용 : 문화특강 "일제강점기 청소년의 생활" (오윤근 속초문화원부원장)
속초전통문화 "속초도문농요"
초청공연 "지역가수 김진우"
스토리가 있는 매직 쇼 "마술, 요요 공연, 각테일 쇼"



2009 속초문화원 신간안내

해설이 있는 우리 문화 콘서트

- 속초도문농요, 속초도리원농악, 복청사자놀음



속초문화원은 속초 도문농요, 속초 도리원농악, 복청사자놀음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과 속초시립풍물단, 신천무용단 등의 지역 전통문화예술단체와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회원을 주축으로 진행하는 '우리 문화 명품 콘텐츠' 사업은 지역문화 보존과 전승이라는 기치 아래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전통문화 공연의 의미와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의 역할을 한다. 도문농요의 특징, 도리원 농악의 구성, 복청사자놀음의 대본이 함께 수록되어 이 책 한권이면 지역의 특수한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었다.

주간 실악신문

주간실악신문 | 제019호 | 2007년 9월 25일 발행 | 대표전화 033-656-2222 | http://saraknews.co.kr

실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속초문화원, 24명 5월부터

속초문화원이 올해 60세 이상 노인들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육성, 관광지에 투입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개한다.

'실버 문화관광해설사'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노인들이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 거점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 소개 등 문화일련이 역할을 한다.

또 관광객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주소지와 연령, 방문 목적 등을 병행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속초문화원은 지난해 도 사회복지기금으로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서 이 사업을 펼쳐 호평을 받았으며, 올해는 아바이 마을에 이어 청대산과 청초호유원지 등 3곳에 실버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속초 8경 중 하나인 동명동 '속초풍대'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속초문화원은 지난달까지 24명의 노인을 모집, 4월부터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마친 실버 문화관광해설사들은 5월~10월 2인 1조로 편성돼 하루 3시간, 주 3일 근무하며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우철 기자

실악의 밤과 함께 작은 콘서트

해맞이공원서 25일부터 8회 공연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2009 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가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8회 공연으로 주민과 관광객을 찾아가는다. 피서철 아간 볼거리를 위해 마련된

'작은 콘서트'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저녁 7시30분~10시까지 해맞이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 한마당으로 마련된다. 공연은 복성사자놀이와 풍기타, 풍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속

속초 관광지 중 청호동 '가장 만족'

'속초문화관광 기초 조사' 결과...속초 8경에선 '청초호'

속초문화원 관광객 대상 설문

속초 관광지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은 청호동으로 나타났다.

속초문화원은 지난 5~7월(금·토·일요일) 3개월간 일급정과 영랑호, 청호동, 청초호유원지 등 관내 주요 관광지 4곳에서 관광객 950명을 대상으로 '속초문화관광 기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속초문화원에 따르면 '속초 관광지 중 만족도가 높은 곳은 어디냐'는 질문에 복수 답변을 받은 결과 '청호동'이 309명(1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웨더

파아' 280명(16.6%), '대포항' 246명(14.6%), '몽명항' 229명(13.6%), '시립 박물관 및 심함민문화촌' 147명(8.7%), '대조영새트징' 111명(9.7%), '중앙시장' 97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속초 8경 중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는 답변자 537명 가운데 19.6%인 105명이 '청초호'를 답했으며, '영급정' (15.1%, 81명)과 '범바위' (12.1%, 65명)가 뒤를 이었다.

또 '만족도가 높은 축제' (복수 답변 가능)로는 '실악문화제'가 290명(22.8%)

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민국음악대향연' 155명(12.2%), '오징어맨쇼잡기' 91명(7.1%), '임피라축제' 67명(5.3%) 순이었다. 축제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한 관광객은 36.7%인 469명에 달했다.

'속초관광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1명(49.6%)이 '친구·친지'라고 답했고, 271명(28.5%)이 '대중매체', 17명(1.8%)이 '현수막·포스터'라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속초문화원이 양성하고 있는 24명의 실버문화관광해설사들이 실시했다.

이우철 기자

올해는 실버 가야금 연주단 양성

속초문화원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단원 모집

속초문화원이 올해 실버 가야금 연주단을 양성한다.

문화원은 지난 2007년부터 노년층을 예술단으로 양성하는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운영, 노인 문화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실버문화학교를 통해 양성된 35명의 실버예술단은 첫 해 심함민의 레슨이 담긴 악곡 '아, 사랑 일레라'를 선보여 2007 전국 실버문화사랑 축제에서 공연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대중적 재미

를 강조한 마당극 '춘향전'을 선보이는 등 매년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문화원은 올해 역시 장르의 차별화를 앞세워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가야금 연주단을 양성, 실버문화사랑 축제 참가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단원을 모집한다. 문화원에서 선착순 방문접수만 받으며 정원은 60세 이상 20명이다. 50대도 일부(20%) 참여할 수 있다.

김인섭 과장은 "현재 속초시노년복지

관에서 양성하고 있는 실버예술단과 장르(연극)가 겹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며 "사업 후반부에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해 1·3세대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김 과장은 특히 노인들이 가야금을 직접 어린이들에게 전수하게 되면 세대간 소통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원은 예술단이 꾸려지는 6월부터 교육을 시작, 11월까지 총 48회 강좌를 열 예정이다. 교육은 주 2회 4시간씩 옛 마당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2010년부터는 노인복지관 등 다 실버예술단과 연계해 지역공연에도 나서게 된다.

이우철 기자

원장동정

속초해양경찰청 특강



지난 2009년 12월 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는 뜻 깊은 강의가 열렸다. 노광복 속초문화원장이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찰 및 전경 등 전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속초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강의를 하였다. 이번 강의는 속초해양경찰서 서장 최창삼 총경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강의였다.

노광복 속초문화원장은 속초의 문화와 역사를 사진자료와 함께 강의함으로써 속초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도록 하였고, 특히 1967년에 있었던 '당포함 사건'에 관한 강의는 북한과 마주하여 우리나라 해양안보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에게 국토안보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집] 학교문화예술교육, 꽃을 피우다

문화예술교육과 학교, 지역사회의 행복한 소통을 꿈꾸었던 지난 5년. 문화불모지 속초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속초문화 25호는 지난 5년의 성과와 의미를 진단하고, 2010년 이후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속초, 학교문화예술교육 5년의 성과와 의미
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3. 인터뷰 - 대포초등학교 민병호 교감
4. 좌담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과제



속초, 학교문화예술교육 5년의 성과와 의미

최택수(전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사무국장)

1. 들어가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속초에 뿌리를 내린지 5년이 되었다. 속초의 열악한 문화환경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국악관현악, 취타대, 북청사자놀이, 가야금병창, 농악 등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술교육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대포초등학교는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다른 초등학교는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구체적인 성과물로 나타난 순간 모두가 기뻐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연결시켜야 하는 지속성의 문제, 교육 기자재 구비를 위한 추가 사업비의 확보, 아이들이 주체가 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보, 담당교사의 관심도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 등 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모색이 더욱 산적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속초에서 벌어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통해 당면과제와 그 의의를 짚어 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의 시작

속초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단어가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때문이다. 2004년 가을 학기에 전국 4곳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2005년 전국 64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예술인들이 함께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들 다양한 주체들이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현장의 공교육 시스템과 결합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시험을 한 것이





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 예술강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별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도 목적으로 삼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갯마당’은 이 사업의 지원체계가 목적의식이 열악한 지역문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는 판단 아래 2005년 시범사업에 신청하였다. 이 때 갯마당이 가장 역점을 둔 내용은 지역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양성에 있어 학교를 통해 그 뿌리를 튼실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문화 변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특징

속초 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난 2005년 갯마당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2007년까지 3년을 담당하였고, 이후 2008년부터는 속초문화원이 속초시의 지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센터로 도약하고자 했으나 2008년부터 지역문화센터 선정이 없어져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속초시가 그간의 성과와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은 작은 보람이었다.

2005년 처음 시작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당시 필자가 몸담고 있던 갯마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악교육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기획되었다. 다만, 처음부터 욕심을 내기 보다는 이 사업이 소수의 재능 있는 학생의 발굴, 지역의 특화된 문화 콘텐츠의 개발, 다수의 학생들이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예술적 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대중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 같은 기초 아래 사업의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잡았다.



첫째, 국악심화 학습 및 체험교류 활동이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반교과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전통예술학습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문화예술 체험, 관람의 수요증대와 연계된 상설 전통문화공연을 개최하는 국악체험학습이다. 풍물, 관현악, 전통무용, 퓨전국악 공연 등의 다양한 공연문화 체험을 통해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생활 속의 민속음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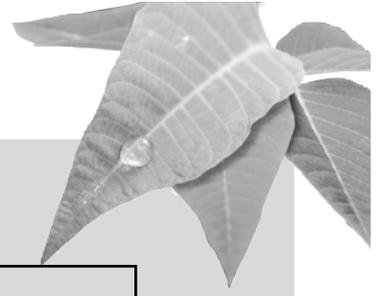
셋째,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국악공연 및 전통예술을 익히고, 민속놀이와 같은 우리문화를 익힐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인 ‘우리문화 전수교육’이다.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성과

① 국악 심화학습

국악 심화학습은 학교방문교육과 연계하여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을 활용하여 풍물, 탈춤, 전통무용, 기악, 민요 등의 특성화 과목을 육성하였다. 특히, 도리원농악, 북청사자놀이 등 지역의 특화된 문화콘텐츠가 각 학교에서 뿌리내리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중 청호초등학교의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도 출신이 모여사는 아바이마을의 역사적 특수성이 그대로 학교 교육에 스며들어 지역의 문화적 인식을 확대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포초등학교의 국악관현악은 2008년부터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어 매년 1억원이라는 과격적인 지원을 통해 또 다른 의미의 성공사례로 남았다. 이밖에 속초초등학교의 취타대는 지역의 크고 작은 공연에 초대되어 지역사회 연계라는 이 사업의 취지에 걸맞는 성과와 활동을 하였다. 이같은 성과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사업시기	학교명	대상 (학년)	학생수 (명)	교육내용 (교육명으로 간단하게)
2005	속초초등학교	5	35	취타대
	온정초등학교	4,5,6	80	도리원농악
	조양초등학교	5	45	호남우도농악
	중앙초등학교	3,4,5	20	가야금 병창 및 산조
	소야초등학교	4,5	20	단소, 태평소
	청대초등학교	4,5,6	40	사물놀이 및 대금반
	영랑초등학교	5	20	봉산탈춤
합계	7개교		260	
2006	청호초등학교		50	북청사자놀이
	속초초등학교		72	취타대
	대포초등학교		38	국악관현악 / 실내악단
	온정초등학교		70	도리원 농악
	조양초등학교		50	호남우도농악
	중앙초등학교		20	가야금병창
	소야초등학교		44	태평소 · 단소
합계	7개교		344	



사업시기	학 교 명	대상 (학년)	학생수 (명)	교 육 내 용 (교육명으로 간단하게)
2007	청호초등학교	5,6	50	북청사자놀이
	속초초등학교	5	36	취타대
	대포초등학교	4,5,6	58	국악관현악
	온정초등학교	4,5,6	70	도리원 농악
	조양초등학교	4,5,6	50	호남우도농악
	중앙초등학교	4,5,6	15	가야금병창
	소야초등학교	5	44	단소
합계	7개교		323	
2008	청호초등학교		50	북청사자놀이
	속초초등학교		36	취타대
	대포초등학교		57	국악관현악/실내악단
	조양초등학교		50	호남우도 농악
	중앙초등학교		20	가야금 병창
	온정초등학교		50	도리원 농악
합계	6개교		263	
2009	청호초등학교		50	북청사자놀이
	속초초등학교		36	취타대
	청봉초등학교		42	창극
	조양초등학교		50	호남우도 농악
	중앙초등학교		20	가야금 병창
	온정초등학교		50	도리원 농악
	소야초등학교		44	태평소 · 단소
합계	6개교		248	

② 청소년 국악캠프

청소년 국악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기량을 보다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경험을 통해 폭넓은 문화인프라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05년 130명의 참가인원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2007년까지 100명이 넘는 학생이 참가하여 국악심화학습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2008년부터는 속초 지역 학생으로 한정하여 50여명의 학생들이 국악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 기간 : 여름방학(5박 6일)/2005년부터 매년 실시
- 장소 :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청소년수련관
- 대상 : 심화학습 대상자 및 참가희망자
- 과목 : 가야금/피리//풍물반/농악반/상모반
- 기타 : 공동체교육, 문화교양
- 목적 : 전문 국악캠프를 통해 전통예술의 다양한 경험과 기량을 쌓고 폭넓은 문화 인프라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문화예술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 마련.

③ 전통예술발표회

국악심화 학습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예술역량을 한 자리에서 확인하는 발표회를 매년 열었다. 개별 학교에서 수업으로 일어나는 교육의 결과를 각 학교와 관계자들이 공유하며 자기계발의 동기부여를 얻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이 함께 발표회 자리를 찾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자 시작하였다. 2007년까지는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독립적인 행사를 하였고, 시범사업이 끝난 2008년부터는 지역 축제인 설악문화제 무대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 기간 : 11월경(2005~2007), 10월 설악문화제 기간 중(2008)
- 장소 : 속초문화회관 대강당(2005~2007), 설악문화제 특설무대(2008)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국악 특성화반
- 발표 : 북청사자놀음, 취타대, 국악관현악, 도리원농악, 가야금병창, 호남우도농악, 태평소, 단소
- 목적 : 각 학교별로 심화학습의 결과물을 한자리에서 발표하여, 국악에 대한 재미와 성취동기 부여

④ 우리문화 전수교육

속초 관내 초·중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국악 관련 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국악 및 전통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실질적인 예능교육 및 민속문화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심화학습이 어려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기간 : 연중(2007년까지 시행)
- 장소 : 각급 학교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4개교
- 내용 : 전통문화공연관람(장구, 사물, 판굿), 전통 예능익히기(소고춤, 봉산탈춤 등)
전통민속놀이(투호, 제기, 굴렁쇠, 널뛰기, 줄넘기)
- 목적 : 학교 밖 전통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의의와 한계

2005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지역과 학교, 지역문화와 교육. 그동안 어울리지 않았거나, 단편적으로 인식되어 온 사업의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채 막연한 열정으로 시작하였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정확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6년부터 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이 사업의 가능성을 보았다. 교육청과 문화원의 협력 아래 지역과 문화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지 밑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갯마당 역시 이 사업을 통해 단순한 기량 전수 이상의 안정적 사업기반과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

①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의의

첫째,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공유했다는 점이다. 학교와 갯마당같은 지역의 전문예술단체, 문화원과 속초시, 속초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느슨한 네트워크를 할 수 있었다. 이같은 네트워크는 갯마당 같은 문화단체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라는 선순환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었다.



둘째, 문화의 지역성을 확립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북청사자놀이, 도리원농악처럼 지역 특유의 문화는 그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켰고, 취타대, 국악관현악, 가야금병창같은 새로운 전통문화가 각 학교의 고유 브랜드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유형이 확립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축제를 통해 교육이 연장되고,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현장으로 투입되어 새로운 교육의 텍스트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주관단체의 역량강화와 인프라 구축 등과 함께 보다 탄탄한 문화환경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②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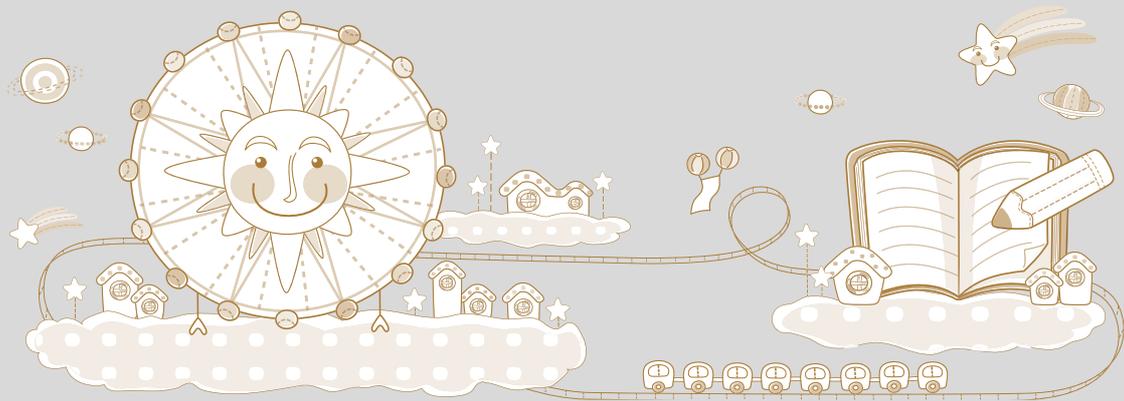
첫째, 2007년으로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속초처럼 지역문화센터가 되지 못한 지역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대도시나 기본 인프라가 되어있는 지역은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배려와 후속 연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원정책이 이뤄질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힘든 점도 많다. 그나마 속초시가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사업의 지속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재료구입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확보, 기존 프로그램의 심화과정 지원 및 더 많은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또 다른 노력을 요구한다.

둘째, 학교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전문성의 부족이다. 학교의 경우 입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중학교의 참여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담당교사와 교장의 관심도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문제이다. 지난 5년의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무반성적 진행이다. 이 부분은 필자가 몸담고 있는 단체의 자기비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열정과 당위만으로 시작한 사업이어서 정밀한 프로그래밍이나 지역사회와의 보다 활발한 소통이 부족했다. 비록 주관이 속초문화원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5년간의 사업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은 속초문화원이 보다 전문적인 기획으로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심 오 섭 (문화예술교육지원실장)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지 벌써 햇수로 5년째이다. 그간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철학, 배경 등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다양한 정책현장에서의 우수한 사례들이 쏟아졌다.

강원도 내에서도 2005년 강릉, 속초, 동해를 포함한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많은 수의 예술강사, 학생, 기획자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열정이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결과물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결과물 안에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해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하며,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하는 지속성의 문제, 학교장과 담당교사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문제까지.....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지속되어야 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왜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 중요할까?

뒤돌아보기

2005년. 지금 뒤돌아보면 참 열정적인 해였던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주관단체들을 공모하고 전국의 60개 기관·단체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처음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주관단체가 되어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기대감에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 위해 중앙 또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 설새 없이 다녔고, 다양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까하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운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실제 투입이 되면서 교육현장의 참여를 끌어내기란 생각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담당자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고, 학교현장에서는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하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더 많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전국의 우수한 사례도 접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갔다.

그 답은 바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였다. 기존 학교에서 진행하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진행하던 사물놀이, 바이올린, 플룻 등 예술가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에 치우쳐져 있어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여 강릉지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역문화를 잘 활용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 강릉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숨고르기와 고민하기

2005년의 많은 고민들이 한해 두해가 지나갈수록 지역사회 내에서 작은 성과들을 이뤄가고 있었다.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조금씩 변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현장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여 학교에서 먼저 함께 파트너가 되어보자는 의견들이 쏟아지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의 학교현장은 작지만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와의 통합프로그램도 기획·운영하게 되었고, 담당교사와 함께 수혜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해 두해 사업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실무자인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했다. 바로 사업의 지속성 문제이다.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크고 작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의 일을 걱정해야만 했다. 지역 내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학교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교와 주관단체간의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해오다가 3년이 종료된 후 한꺼번에 사

업을 중단하게 되어야 할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해 변해가는 학생, 학교, 지역사회를 보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참가학교, 교육청, 예술강사 등과 함께 지자체를 설득해나갔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알려지고, 학생들이 지역문화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향유할 수 있는 학교문화



예술교육사업은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함을 적극 건의했고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공감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주관단체인 우리도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도약하기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과 학교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 주관단체에서는 사업시행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고민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여느 사업들에 비해 눈에 띄는 큰 성과는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의 성과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도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지원체계의 하나가 바로 현재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다.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아 현재 강원도 내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무원, 교원, 문화기반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현장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각 학교만의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3년간의 지속지원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뽀뽀(FUN-FUN)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도내 많은 수의 학교가 참여하지 못하지만 향후 사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활용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교사직무연수’를 운영하였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하여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도 공유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강원도 내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활성화 방안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5년 여간 사업을 진행한 주관단체자로서 아직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와는 다른 고민이지만 학교 교사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지속적인 고민거리이다. 물론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여러 선생님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

앞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학교와 주관단체,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학교교육현장을 이해하고 현재보다 나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역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자세도 필요하다.

학교현장에 강사가 파견되어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별반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차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변형되어 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유관기관(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장르, 방법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예술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살펴보면 기존 예술교육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를 극복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와 학교교육과정이 연계한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현장에서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매력은 아마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했던 문화예술관련 교육활동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존 학교에서 진행한 교육활동은 단순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하고, 조언하고, 치료하는 사후약방문식 교육활동에 그쳤다고 한다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적 책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업의 주관단체 및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흥미만을 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다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잠재고객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복한 교육, 활짝 핀 예술꽃

- 대포초등학교 '예술꽃 씨앗학교를 찾아서'

김인섭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대포초등학교 민병호 교감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주5일제 등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와 문화예술단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문화예술소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의 인식변화를 통해 21세기 문화강국에 어울리는 인프라 구축을 하자는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에서 200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해왔다. 그 결과 지역 문

화네트워크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속초의 다양한 축제에 학생들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선보이며 문화예술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게 된 것이다. 그중 국악관현악을 배웠던 대포초등학교가 새정부의 '예술꽃 씨앗학교'에 선정되어 4년 동안 매년 1억씩 지원받은 점은 이 사업의 또 다른 성과다. 학교와 지역의 국악단체가 만나 예술꽃을 피우고, 그 문화적 혜택을 시민이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면 지난 3년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포초등학교 민병호 교감선생님을 만나 보았다.

Q : 대포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꽃 씨앗학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 '예술꽃 씨앗학교'는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교시절부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우수모델을 만들어내어 공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죠. 지난 2008년 7월 전국에서 10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우리 학교가 유일합니다. 2008~2011년까지 4년간 매년 1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국악 관현악 분야 기자재 지원, 저명 예술인들의 특강, 기존 시설의 개·보수 등이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Q : 학교 차원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A : 대포초등학교는 지난 2006년 갯마당에서 주관한 “지역사회연계 -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국악관현악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6학년 전교생이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초시에서 기존에 지원해 온 3천만원이 있었지만, 저희 학교처럼 전교생이 참여하는 국악관현악을 유지하기에는 불안했습니다. 저로서는 확고한 기반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사실 운이 좋았던 것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7백만원 정도의 공모사업에 지원했는데 탈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했는데 선정되었죠.

Q : 지금까지 예술꽃 씨앗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예술꽃 씨앗학교는 사업 초기여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전문 예술강사에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의 국악 수업이 이뤄지는 국악관현악실은 방음시설을 비롯해 발표공연도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국악기 8종 26대와 음향기기 및 국악관련 CD도 구입하여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은 강원도립국악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고, 국악 집중수업을 위해 방학 중 국악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캠프는 저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습득한 기량을 발표하기 위하여 화랑영랑축전, 설악문화제 등의 지역축제와 학교 자체의 국악발표회를 가져 기량향상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개관한 다목적홀을 이용할 경우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예술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 예술꽃 씨앗학교를 운영한지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학생이나 학교 모두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되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 저희 학교는 총학생수가 100명이 채 안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외형이 작다보니 다소 위축되었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 학교의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재학생은 물론 동창회에서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술꽃 씨앗학교의 선정은 그런 자부심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지요. 국악 기량의 습득과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도 이 사업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 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엿본 점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지역 문화단체의 실무자로서 대포초에 불만이 있다면, 그동안 지역사회와 너무 소통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업의 의미가 선도학교로서 지역의 변화까지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A : 핑계를 대자면, 이제 사업의 초창기입니다. 갯마당의 지원 아래 텃밭을 일구었고,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사회와의 교감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학교에서 국악 공연을 두 차례 가졌습니다. 다목적홀이 개관된만큼 내년에는 보다 많은 공연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원 같은 전문기관과도 함께 논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현재, 졸업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국악 동아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Q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포초의 이 사업이 우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있는 결과물이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이 사업의 시작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3년 후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또 다시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교육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개별적 관심도와 열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포초에 있는 동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과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성취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무자들의 좌담회를 가졌다. 특별한 대안이나 야심찬 프로젝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의 만남을 시작으로 새로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꿈꿀 수 있었다.

- 장소: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일시: 2009. 12. 22.
- 참석자: 김태성(속초시청 예술담당)
고재홍(속초시청 예술담당자)
조현정(청대초등학교 교사)
조은미(청호초등학교 교사)
김동연(국악예술강사)
임희영(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사무국장)
- 사회자: 김인섭(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사회자: 올해는 속초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뿌리를 내린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최근의 사회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충분한 변화가 예상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문화 25호는 그 변화의 내용을 살피고, 꼭 변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짚어보기 위해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이 같은 기획 아래 열리는 것으로, 일선 학교 및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실패와 성공은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미리 배포해드린 속초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은 다 보고 오셨을테니 이 사업의 의미나 그동안의 계량적 성과에 대한 부분은 빼겠습니다. 오늘 논의는 거창한 미래설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이 사업의 애로점과 개선점에 대해 한껏 수다를 떠다고 생각해주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현장의 최일선에 계시는 선생님 두 분과 강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호초의 북청사자놀이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미 : 저는 청호초등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교무선생님이 맡으셨는데 보직 자체가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올해 처음 맡았는데, 솔직히 그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기 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깜짝 놀랄 일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가 속초 아바이마을이라고 불리는 청호동에 있다 보니, 북청사자놀음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의 가장 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사자탈'이 없어서 공연 때마다 시립박물관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악기도 5년 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러 오시는 강사 선생님께 굉장히 죄송했어요. 악기도 없이 수업을 하라는 셈이 되어서요. 이후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희영 : 올해 초에 이 일 때문에 선생님과 문화원을 연결시켜 준 적이 있는데요, 사업 초구나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드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은거죠.

사회자 : 그때 지원한 사업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강사비를 비롯한 진행비는 지원이 되는데, 재료비는 안됩니다. 일종의 자부담 원칙인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구입할 수는 없나요?



조은미 : 악기 구입비 때문에 1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게 너무 어려웠어요. 내년에 학교 자체 예산으로 악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신청했는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의 예산이라는게 뻥한데, 지금까지 북청사자놀음은 자체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심 이상의 열정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청호초의 북청사자놀음은 그동안 축제나 발표회 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 6학년 학생들이 매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조은미 :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올해 장소도 충분하고요. 다만, 악기보관대도 없고, 악기도 없는 현실이 제일 아쉬워요. 그나마 장구는 학교에서 보수를 해줬는데, 그 외는 악기가 구비되지 않아서 수업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나마 문화원에서 조금 도와줘서 올해는 넘겼는데,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고재홍 : 시에서도 보조금을 학교에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다는데요, 다만, 속초시는 교육경비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에 경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문화원과 갯마당, 각 학교에 관련 공문을 드렸는데, 교육경비라는 걸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더군요. 시가 직접 보조할 수 없는 경비, 방금 말씀하신 악기 구입비는 이 경비를 신청하는 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대부분의 학교는 이 제도 자체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긴데요, 그 사업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김태성 : 이 사업은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근거로 사용되는데요, 교육청이 저희 속초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각 학교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주 사용처가 학교의 시설 보수 등의 하드웨어 지원비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년 부터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부족한 부분에도 사용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그 내용을 교육청과 공유해야 합니다.

김동연 : 교육기자재비는 처음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있는 기자재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 2005년도에 지역사회연계-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통해 구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기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1억2천만 중 6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그럼 6백만원입니다. 원래 1억2천만원의 10%인 1천2백만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당초 생각했던 밑그림이 완성되는데 6백만원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일례로, 취타대를 하는 속초초등학교는 기자재 구입만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해마다 지원을 받으면 기자재를 점차 확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갯마당의 자비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어 기자재 구입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 80% 정도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홍 : 그렇다면 지금 기자재의 교체시기가 왔다는 얘기네요.

임희영 : 그래서 올해 속초문화원에 연락을 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김동연 : 이 사업을 처음 주관한 저희 갯마당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시범사업이 시작되는걸 보고, 정말 저희 속초에 저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욕심만 앞섰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학교 내에서 예술강사 사업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혼동하거나 아예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의 초창기에 학교와 문화교육, 지역문화와 학교의 연결을 시도하는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조성에 힘을 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각급 학교와 교육청과의 연대가 조금 더 공고했다면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보다 많은 소통이 되었고, 지금 청호초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정 : 그 부분 관련 여담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도에 교육청 공문을 통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문화예술교육 담당 교사 간담회를 갯마당에서 주최했는데, 그 때 교장선생님은 한 분만 참가했습니다. 그 때는 문화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시범사업이어서 교육청을 통했는데도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들더군요.

사회자 :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기자재의 확보는 보조금 지원 원칙 때문에 욕심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청호초처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는 학교에서도 자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씁쓸하면서도, 죄송하네요. 거기에는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 각각의 주체가 인식의 공유를 아직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호초의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은미 : 학교의 조그만 강당을 개관했는데 그 때 특별공연으로 북청사자놀음을 했어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오셨는데 다들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외부공연을 많이 나가지 못했지만, 지난해까지는 속초의 각종 축제나 문화이벤트에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노력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정규 교과와 재량활동으로 수업시간도 많이 확보했구요. 학생들도 북청사자놀음을 통해 청호동이라는 지역의 문화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이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지자체, 교육청, 문화기관 등의 지역사회가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소통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호초의 사례는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러저럭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임희영 : 각 학교별로 성공과 실패의 사례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대포초의 국악관현악은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워낙 강했구요, 청호초는 상징성이 강하고 학생들이 잘 따라주었습니다. 중앙초의 가야금 병창은 담당선생님이 열정적입니다.

조현정 : 저는 소야초등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담당했었고, 지금은 청대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각 주체의 열정이 초창기의 동력이라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일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개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속초시의 교육경비 지원조

레가 있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는데요,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들의 하드웨어 중심 사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교육문제 전체를 볼 때 일부이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분들과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사무국장님도 잠깐 말했지만, 갯마당이나 문화원이 이 부분을 놓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향민이라는 속초시의 문화정체성, 북청사자놀음이 시작된 공간이 청호동이라는 점, 이런 걸 들었을 때 청호초의 북청사자놀음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인데 아직까지 학교 자체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건 학교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사회가 그 학교의 사업을 지지하고, 중요성을 각인시켜줄 때 학교의 행정 역시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기관이 정말 열심히 도와줄 때 학교도 무언가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선도적 기관은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 기관이어야 합니다.



사회자 : 공감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그래도 담당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이 소야초에 계실 때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조현정 :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담당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교사에게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여러 가지 잡무의 일종이고, 어떤 교사에게는 꼭 해보고 싶었던 '취미' 이고, 어떤 교사에게는 교육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꿈' 이거든요. 어느 사회나 담당자에 따라 실패 여부가 판가름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주관처가 교사, 교장,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들을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 그 학교가 꼭 해야 하는 사업, 그 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동연 :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교사의 열정이 없다면, 저희는 학교에서 고독한 섬같은 존재가 됩니다. 분명, 지역발전이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도, 굉장히 귀찮아하거나, 다른 방과 후 학교 수업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사회자 : 결국, 이 사업의 성격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문화 관련 인력의 구제차원에서 진행된 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보다 폭넓고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즉, 문화 프로젝트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초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고재홍 : 속초시가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이 끝나고, 속초가 지역센터가 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북청사자놀이이나 취타대, 국악관현악은 그 성과를 지역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정 : 사업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총 6개 학교 중 3개 학교가 그 의미나 상징성, 학교의 의지가 모두 좋다면 그 쪽만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청호초의 북청사자놀음이 다른 학교 축제나 행사 때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청호초하면 북청사자놀음이 연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역량을 쏟는 거죠. 만약, 한정된 예산 안에서 3~4개 학교만 집중지원하고, 그렇게 되면 강사선생님이 한 학교에 많이 파견될 수도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 같아요.

임희영 : 2007년부터 이 사업의 성과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와 꾸준히 교류를 했다고 생각해요. 화랑영랑축제나 설악문화제 때 공연을 해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고요. 조현정 선생님 말처럼 각 학교 축제 때마다 서로 초청공연을 하는 교류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문화예술인, 지자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김태성 : 이 사업의 집중 지원 문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오던 성과를 그대로 안고 가려면 예술강사 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은미 : 저희는 내년도 사업을 교과와 재량으로 신청해서 모두 배정받았어요. 북청사자놀음이 다양한 국악장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 각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은 수업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교과와 재량 모두 신청해서 수업시수를 늘린다면,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이 단순한 예술기량의 전수에서 벗어나 지역과 호흡하는 문화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학교와 의논을 잘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재홍 : 이 사업 초기에는 영랑초와 청봉초가 참여했는데, 2006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어도 될까요?

임희영 :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역과 밀착되고, 각 학교별 특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 북청사자놀음은 청호초에 해야지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으로 2006년도부터 참가했어요. 영랑초와 청봉초는 국악관현악을 키워보려고 했는데 해당 학교에서 힘들다고 해서 의지가 있는 대포초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결정은 저희 의지와 함께 사업의 컨설팅을 통해 이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김태성 : 당시 교육청의 역할도 궁금한데요, 모니터링이나 행정적 지원 등 무언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김동연 : 당시에는 이 사업의 담당 장학사가 계셔서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움직이는데 있어 교육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는 교육청과의 끈이 끊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사회자 : 강사 선생님은 학교의 의지, 학교 선생님은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오늘 얘기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조현정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담당교사 선생님도 업무분장으로 정해졌으니 하는 거지,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김동연 : 사실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센터는 기본적으로 담당교사 선생님만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문화체험도 하고, 인식도 공유하면서 이 사업의 저변을 넓히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조은미 : 일단 전제를 두면,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밖에 필요한건 교육청 단위의 체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예컨대, 2010년 교육청 1년 사업계획서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관처인 속초문화원이 학기 초에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자 : 좋은 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얘기 좀 하죠. 아이들은 잘 따라옵니까?

임희영 : 각 선생님마다 다를텐데요, 제가 다니는 청호초는 수업의 형식은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학교도, 아이들도, 학부모도 이 사업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지역 아이들 중 가야금을 제대로 본 아이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국악이라는 장르에 친숙해지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인식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100% 즐겁게 참여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김태성 : 학교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매년 한 차례씩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을 담은 발표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동기부여도 되고, 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의 결과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요.



사회자 : 시범사업때는 발표회가 따로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설악문화제 기간에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순히 우리 사업만 발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사회문화예술교육과도 연계하여 발표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두가지 문제만 더 짚고 이 자리를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의 성과가 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에 머물고 있는 이 사업이 중학교에도 연결될 수 있는 매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둘째는 국악이라는 장르에만 머물러 있는 장르의 편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동연 : 중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요. 중학생이 모인 동아리로 가야 하는데, 이 고민이 쉽지가 않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비 구입비가 드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경험의 측면에서 이 사업을 너그럽게 봐주는데 중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도 일요일 정도만 시간이 나는 편이구요. 사실 많이 아까운데 현실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굳이 방법을 들면, 문화원이나 박물관같은 기관에서 동아리를 조직화해서 악기를 대여해 주고, 저희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좋습니다.

조은미 : 장르가 다양하면 좋겠는데, 국악만으로도 잘 해내기에는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장르의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의 사업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이제 나올만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살펴보면 악기구입비와 같은 사업비의 부족, 학교·교육청의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의 공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중학교 동아리의 문제 등이 나왔습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속초시의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교육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연간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각 학교의 특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집중화와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전환을 할 것 등이 큰 갈래 속에서 얘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기관에 대해 부탁말씀이나 격려 말씀 한번씩 하시고 이 자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현정 : 강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시면 위축될 때가 많은데, 보다 당당해 지셨으면 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 학교의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학교와 융합된다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원은 내년에 꼭 교육청과의 소통을 통해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2월부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미 : 저희는 학교 수업시수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교육기자재의 구입과 보수입니다. 학교가 자체 자금으로 마련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지자체와 문화원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교사들의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초기인 3월쯤에 담당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워크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한 해 무엇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는지에 대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희영 : 처음 시작할 때 간담회를 갖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학교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오늘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 자리를 꼭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연 : 각 주체들 중 어느 하나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의 문제로 남는데요, 문화원이 그 중간 허브역할을 잘 했으면 합니다.

고재홍 : 속초시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센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지원한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문화예술교육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지역 문화의 발전에 의미있는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성 :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옳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거창한 대안이 나온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해결방안도 일부 나왔다는 점에서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회자 :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고찰

장정룡 (강릉원주대 국문과 교수)

I. 머리말

산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준다. 그리고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 하였다. 이렇게 산은 사람과 말없이 친근한 벗이 되고 때로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나는 어려서 설악산 아랫마을에 살았다. 그곳에서 내 키를 훌쩍 넘는 눈다운 눈을 맞아보았고, 한겨울에 마을로 내려온 산양도 보았고, 설화(雪花)의 경관에 흠뻑 빠져본 적도 있었다. 산악인은 물론 한국인 가장 좋아하는 산이 설악산이라고 평하니 설악산아랫마을에 살았던 나는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할 것이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은 1708m에 달하여 남한에서 한라산·지리산 다음 가는 높은 산이며, 연중 5~6개월간 눈이 쌓여 있다. 전체면적 354.6km²의 경관적 특징인 웅장하고 다채로운 모습은 대규모의 화강암의 관입(貫入)과 이에 수반되는 암질, 구조상의 차에 의한 차별침식(差別侵蝕)의 결과다.

설악경관의 백미는 무엇보다 가을 단풍과 겨울 백설이다. 1966년부터 산악등반대회로 시작된 가을철 설악문화제는 신라 때부터 나라에서 향축(香祝)을 내려 행했던 국가급 봉정산제(封定山祭)의 소사(小祀)제의 계승한 것이다.¹⁾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겨울철 설악눈꽃축제가 2008년에 폐지되었으나 명산 설악의 전통을 계승한 겨울산 눈꽃과 얼음축제로 되살려 특화함이 마땅하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겨울 설악에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으로 그 명칭 자체로 오랜 역사와 전통적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설화인 눈꽃, 얼음산 빙벽, 겨울산행등반, 얼음조각대회, 울산바위 이야기 등으로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이야기 줄거리를 지닌다.

설악의 겨울눈꽃축제가 대관령이나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와 함께 대표성을 지닌 겨울축제로 환생한다면 봄설악은 산채와 들꽃, 여름설악은 시원한 계곡물, 가을설악은 만산홍엽의 단풍, 겨울설악은

1) 장정룡,〈속초시의 축제〉《강원도 축제의 이해》국학자료원, 2006, 135~154쪽, 이 글에서 필자는 속초시 축제를 전통지향형축제, 통일지향형축제, 국제지향형축제로 나누바 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설악눈꽃축제를 폐지하고, 2008년부터 시작한 불축제를 비롯하여 눈피호불꽃놀이와 실향민주제를 포함한 속초관광발전을 위한 4계절특성화축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백설과 솜다리꽃을 주제로 한 사계절축제가 가능하다. 사실상 춘하추동의 설악은 천변만화(千變萬化)와 천태만상(千態萬象)의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속초는 청정바다, 영감이 깃든 호수, 화이트 설악산이라는 ‘초이스-속초(CHOICE-SOKCHO)’의 선택받은 무한하고 강력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으며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無窮無盡)하다.

1969년 2월 14일 한국산악회 적설기 설악산 훈련등반대 10명이 죽음의 계곡에서 조난당했던 당시에 나는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몇 채 안 되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산촌 설악동에 살았다. 많은 취재진과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묵으면서 잠깐이지만 큰 귀가 인상적이었던 노산 이은상, 국어학자 심악 이승녕 선생, 부친과 함께 설악개발기에 앞장섰던 이달영, 이대성, 의사 이기섭 박사, 사진가 최구현 작가도 만나보았다.²⁾ 훗날 우연한 기회에 노산 선생의 <설악행각>을 읽으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간 유년기 설악시절이 되살아났다.³⁾ 노산처럼 좋은 유산록을 쓰지는 못했지만, 어른들과 함께 대청봉을 수시로 넘었고, 계조암과 양폭산장도 자주 갔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설악에 대한 관심은 관광안내자로 입담 좋은 유만석이라는 탁월한 이야기꾼을 만나서 설악산 전설을 수집했다.⁴⁾ 그리고 전달재라는 채삼인을 만나 설악산 심메마니 풍습을 살펴보고,⁵⁾ 울산바위 전설도 새로운 시각으로 천착해보았다.⁶⁾ 이번 기회에 조선시대 설악산기행문을 집필하니 권금성을 바라보고 쌍천물에 떡을 감던 지난 세월, 그 감회가 새롭다. 그간 설악산 시문에 대한 단편적인 글이 나왔으나 전반적인 연구는 금강산 등에 비하면 희소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설악산에 대한 자연생태적 연구 뿐 아니라 구전설화, 시(한시), 소설, 수필, 사진, 그림, 가요 등 문예미학적 관점에서 설악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⁷⁾

1965년 11월 5일자로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은 1970년 국립공원이 되었고, 1982년 8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금강산에 비해 규모나 명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설악과 금강은 가깝고

2) 崔九鉉,《雪嶽山觀光畫帖》雪岳觀光協會, 1958, 필자 소장의 이 흑백사진집을 속초시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

3) 李殷相,《雪岳行脚》(鷲山文選)永昌書館, 1947

4) 張正統 외,《속초지역구전설화집》속초문화원, 1999

5) 張正統,《설악산 심메마니연구》(강릉어문학)7집, 강릉대국문과, 1992

6) 張正統,《설악산 울산바위전설고찰》(속초문화)제24호, 2008, 72-92쪽

7) 嚴敬新<신문기사로 읽는 우리 지역이야기>28,《설악신문》934호, 2009.11.30 14면 “1975년 6월 당시 굴지의 음반사였던 지구레 코드에서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하춘화가 부른 ‘속초에 심은 사랑’ ‘설악산 메아리’ 를 새 음반으로 내놓았다. ‘속초에 심은 사랑’ 은 속초시의 고향심기운동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하춘화가 단독으로 불렀으며, ‘설악산 메아리’ 는 ‘잘했군 잘했어’ ‘다정한 부부’ 에 이은 후속타를 노려 하춘화, 고봉산이 콤비로 불렀다.” 필자가 소장한 ‘설악산메아리’ (김령인 작사, 고봉산 작곡, 하춘화 고봉산 노래)음반에 실린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음반의 뒷면에는 속초항구과 흔들바위를 미는 승려 사진이 들어 있다. “1. 흰구름 덮인 설악산으로 그대와 손잡고, 휘파람 불면서 하이킹 가자, 진달래 철쭉꽃 우리를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 레이호, 산메아리 들려온다 사랑노래 들린다, 시원한 폭포수가 노래를 합창하면, 오색의 무지개핀다 그대와 손을 잡고, 설악산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하이킹, 2. 형제봉으로 마등령으로 즐거운 하이킹, 콧노래도 흥겹게 설악산 가자, 에텔바이스가 우리들을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 레이호, 산새들이 노래한다 흰구름이 떠있다, 금강산 찾아가다 설악산 봉우리핀, 전설의 울산바위로 발걸음 가벼웁게, 비선대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하이킹” 1984년 남궁옥분 도 ‘설악산’ (오세은 작사작곡)이라는 노래를 취입했다. 가사 중에는 “설악산 설악산 오 설악산, 나는 좋아 설악산이 나는 좋아, 아 그대 품속으로” 라고 하였고 대청봉, 한계령 오색약수, 백담사 등 내설악을 주요 내용으로 넣었다.

도 먼 운명에 처해 있다 할 것이다. 설악은 설악대로, 금강은 금강대로 각각 나름의 아름다움과 풍치를 갖고 있기에 굳이 설악과 금강을 작의적으로 비교하거나 상하를 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⁸⁾

설악을 ‘웃은 입은 금강’이라 하거나, 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산 중을 만나 풍악이 어떠하냐고 물었다는 시조도 결국은 금강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⁹⁾ 근래 들어 설악과 금강을 연계관광하자는 견해가 나오지만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악은 설악이다. 송강이 놀라서 내뱉었다는 퍼닝(punning: 언어유희)처럼 설악은 설악(서락)이지 벼락이 아니다.¹⁰⁾ 설악기행문이 금강산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수를 보인다고 해서 설악이 금강의 미에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973년부터 설악에 입산하여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규 사진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설악산은 돌들과 계곡과 수목의 조화로운 합창교향곡이다. 그것은 대자연과의 조화이며 질서이다. 설악산의 아름다움은 특히 그 다양한 변화 속에 있다. 막히는가 하면 터지고, 오밀조밀한가 하면 장대하고, 감졌다 풀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철따라 변화하는 오묘한 색채와 형상들의 조화는 신공(神工)이라 불러 마땅하리라”고 극찬했다.¹¹⁾

설악의 진경산수를 보여준 문봉선 교수는 “만경대를 그리려고 며칠간 양쪽에서 머물기도 했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도 여러 번 했다. 그런 가운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광경이나 생각이 내 그림을 바꾸어 놓았다. 아침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해질녘에 보이는 모습이 달랐다. 짙은 먹으로만 그려보기도 했고 붓 대신 나뭇가지를 꺾어 골격만 그려보기도 했으며 운무를 쫓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경을 그려보기도 했다”고 서술했다.¹²⁾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사계의 설악산은 다양한 관점과 시각, 다양한 예술장르에서 논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 설악을 탐승하고 그 감상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수필을 음미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수필(隨筆)은 이른바 마음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한가한 마음에서 처마에 떨어지는 낙수물로 먹을 갈고 편지를 잇대어 수의수필(隨意隨筆)로 여유롭게 쓴 글이다.¹³⁾ 고전수필의 형식에 기(記) 록(錄) 문(聞) 화(話) 담(談) 필(筆)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상황에 맞는 글을 쓰는 무형식의 형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기행문은 감동을 주는 수필문학의 한 장르로서 뿐 아니라 파한(破閑)을 넘어 지리와 풍속, 전설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한 연구 자료다. 또한 낮은 곳에서 높은 이상을, 지류에서 근원을 생각하게 하

8) 金道東,《全鮮名勝古蹟》東明社, 1929, 257쪽 “麟蹄君, 雪嶽山... 泉石絶勝하고 峯巒壯奇하야 與金剛으로 上下云이라”

9) 趙明履 “雪嶽山 가는 길에 皆骨山 중을 만나, 중드리 무른 말이 楓岳이 었더트니, 이수가 蓮혀 서리치니 때마자다 흥드라” 조명리는 조선 영조 때 사람으로 자는 仲禮, 호는 道泉 滄州 蘆江,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고 시호는 文憲이다. 유창돈,《고시조 신석》동국문화사, 1959, 348-349쪽

10) “송강 정철은 설악에서 역적이 나타난다 하여 봉정암에 穴을 지르려고 설악산을 찾은 일이 있었다. 그때 정철은 설악산을 평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여 후세에 흥미로운 이야기꺼리가 되고 있다. ‘雪岳이 아니라 벼락이요, 구경이 아니라 苦境이며, 鳳頂이 아니라 難頂이라’ 라고 말하며 매우 고생을 했다고 한다. 즉 설악산에 들어서자 천지가 진동하고 소낙비가 내리고 큰 雷聲이 온 몸을 삼킬 듯이 으르릉 거리자 혼자서 답답하여 내뱉은 말이라고 한다.” 황호근,《국립공원 설악산》통문관, 1973, 47쪽, 필자가 수집한 송강정철과 설악산에 얽힌 전설로는 ‘계조암과 송강 정철’ ‘울산바위와 송강정철’ 이 있다. 장정룡,《속초 지역구 전설화집》속초문화원, 1999, 119쪽 참조

11) 成東奎,《雪岳의 秘境》아카데미서적, 1988, 머리말

12) 문봉선,《설악산과 나 그리고...》《설악산》학교재, 1996, 130쪽

13) 李齊賢,《櫟翁稗說》仲思序 “지정 임오년(1342) 여름이다... 벼루를 꺼내어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을 받아 먹을 갈았다. 그리고 평소에 벼들에게서 받은 편지 조각을 이어서 그 뒷면에 여러 가지를 적고 그 끝에 책이름을 역용패설이라고 붙였다.”

는 탐승의 경지는 산악기행만이 갖는 높고 깊은 가치다.

설악기행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조선시대 문인 삼연 김창흡과 내재 홍태유가 맺은 인연이 묘하다. 첫 번째 인연은 같은 해인 1705년에 설악산을 다녀와서 쓴 최초의 설악기행문이란 점이다. 김창흡은 52세, 홍태유는 33세에 설악산을 다녀온 것이나, 하나의 대상을 놓고 다른 문체인 일기체와 감상문으로 쓴 두 선비의 다른 시각이 여실히 나타난다. 두 번째 인연은 설악산에 은둔했던 김창흡이 나이는 아래지만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홍태유의 시문들을 산정(刪定)했다는 점이다. 삼연은 홍태유의 세 아들이 권유하여 내재의 시와 설악산에 대한 글들을 보고, 높은 문학성을 칭찬하였다. 이처럼 김창흡과 홍태유는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고, 설악산이라는 자연이 맺어준 인연이 특별하다. 내외설악을 죽망망혜(竹林芒鞋)의 모습으로 교감하며 돌아다니던 뛰어난 와유록(臥遊錄)은 이정소, 이복원, 정범조, 김금원의 글이 더 있다. 본고에서는 설악을 찾았던 선비들이 1700년대에 작성한 기행문 가운데 유산(遊山)과정과 경관미 서술을 탐색하고, 작가의 서사적 상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설악산의 유래와 팔기팔경

설악을 명악(名岳)이요 영악(靈岳)이며¹⁴⁾ 또한 선경(仙境)이요 화경(畵境)이다.¹⁵⁾ 예로부터 금강산·설악산·오대산을 삼형제라고 불리왔으며 금강과 설악이 골격은 닮았지만 심산정경(深山情景)의 맛은 삼형제 가운데 설악이 으뜸이라 평가하였다. 금강은 수려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나 수려하지 못하는데, 설악산은 수려한데다 웅장하다고도 평한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은 설악을 칭송하기를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그옥한 골속에 있으되 고운 양자(樣姿)는 물속의 고기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 하는 듯한 뜻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담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¹⁶⁾

설악산은 인제, 양양의 사이에 있는 태백산맥의 위에 생긴 일대승지입니다. 전일에는 인제 쪽은 한계산이라 하고 양 쪽은 설악산이라 하여 일산(一山)에 이명(二名)이 있었지만은 본대 이유있는 일 아님에 마땅히 유래가 먼 설악이란 한 이름으로 통일할 것이겠지요. 설악산은 또한 커다란 石山덩어리로서 그의 경치는 대개 금강산에 비방하다고 하면 얼른 짐작이 될 것입니다. 산세가 웅대하고 기봉이 무더기무더기 높이 뻗어나고 골이 깊고 숲이 짙고 큰 소와 급한 여울과 맑은 시내와 긴 폭포가 여기저기 변화있게 배치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홀연 기이함에 놀라고 홀연 시원함을 부르짖게 하는 점이 대체로 금강산과 같습니다. 탄탄히 짜인 상은 금강산이 승(勝)하다고 하겠지만은 너그러이 퍼인 맛은 설악산이 도리어 승하다고도 하겠지요. 금강산은 너무나 현로(顯露)하여서 마치 노방(路傍)에서 술파는 색시같이 아무나 손을 잡게 된 한탄이 있음에 비하여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그옥한 골속에 있으되 고운 양자는 물속의 고기를

14) 黃五根, 《國立公園 雪嶽山》通文館, 自序

15) 金錦園, 《湖東西洛記》“人之稱名區勝景者 必曰仙景畵景”

16) 崔南善, 《朝鮮의 山水》東明社, 1947, 23~25쪽, 원문의 맞춤법을 현대어로 바꾸었다.(필자 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 하는 듯한 뜻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담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비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입니다.

근래에 교통이 편리해짐과 함께 금강산의 속악화(俗惡化)가 점점 줄달음질을 할수록 우리의 설악산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 깊어감이 또한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참으로 산수의 사이에 몸을 맡기려 하던 이는 김매월당, 김삼연 네와 같이 그윽한 집을 다 이 산중에 얽고 지낸 것이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금강산과 설악산이 누가 나으나 못 하나 하는 문제는 얼른 대답하기 어렵고 또 아무래도 금강산이 나으리라 함이 보통이겠지마는 설악산에는 분명히 금강산에서 볼 수 없는 경치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산의 입구인 갈역(葛驛)박성원의 한설록에는 加歷이라 하였다)으로 부터 시작하여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70리 길이의 긴 계곡에 바위벼랑과 돌바닥이 깊은 골로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데리고 굽이굽이 갖은 재주를 부려서 토막토막 소도 만들고 폭포도 드리우는 일대(一大) 필름은 금강산은 고사하고 조선의 어느 명산이고 다시없는 장관일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다로 떼어서는 청룡담, 황룡담, 제폭, 황장폭 무엇무엇 하지마는 온통 합하여서는 곡백담(曲百潭)이라고 부릅니다. 해주의 석담, 청주보은의 하양동, 안의의 서상동, 북상동 등을 다 한데 연결해도 그 길이나 그 기이함이나 다 설악의 곡백담을 따르지 못할줄 나는 생각합니다.

수렴동(水簾洞)이란 것이 금강산, 설악산에 다 있지만 금강의 수렴은 오두막살이집 쪽들창에 천발 쫓 된다 하면 설악의 수렴은 경회루 넓은 일면을 뒤덮어 가린 큰 발이라고 할 것입니다. 칠폭, 십이폭 등 무더기 폭포가 여기저기 많음도 한 특색이거니와 산성골짜구니로 솟아 떨어지는 대승폭포는 두 동강을 합하면 길이가 수백 척이어서 반도 안에 서는 가장 긴 폭포가 됩니다. 이밖에 옥련(玉蓮)을 느려 세운 듯한 봉정과 석순을 둘러친 듯한 오세와 같이 봉만(峯巒)과 동학(洞壑)의 유달리 기이한 것도 이루 손을 꼽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설악의 경치를 낫나이 세어보면 그 기장(奇壯)함이 결코 금강의 아래 들 것이 아니건마는 원체 이름이 높은 금강산에 눌러서 세상에 알리기는 금강산의 몇백 천분지의 일도 되지 못함은 아는 이로 보면 도리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큰 실상을 가지고 세상에 소문나지 아니한 것이 설악산 하나만은 아니겠지요.

혹자는 설악을 은자(隱者)의 산이라 했다.¹⁷⁾ 그만큼 금강에 비해 덜 알려졌다는 뜻도 되지만 설악은 유일하게 금강과 그 아름다움을 다룰 수 있으며, 그 명성은 생육신이며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쓴 매월당 김시습과 5천여수의 시를 남긴 삼연 김창흡에 의해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다.¹⁸⁾ 노산도 “창과를 잡아 다려 발밑에 깔고, 내로라 빼어 오른 설악산청봉, 매월이 놀던 데가 어디메던고, 텅그렁 오세암에 풍경이 운다”고 매월당에 대해서 언급했다.¹⁹⁾

설악산은 강원도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일부와 속초시까지 포괄하는데 설악산맥 북쪽의 주능선을 경계로 양양방면 즉 동쪽을 외설악, 서쪽인 인제방면을 내설악이라 부르며 한계령 남쪽 장수대 주변을 내설악이라고도 부른다. 설악의 주봉인 대청봉은 해발 1,708m이며 연중 5개월 동안 눈이 쌓여 있으며, 봄의 진달래, 초여름의 후박꽃과 아련한 신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으로 등산객 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이 많

17) 洪泰猷,〈遊雪岳記〉《耐齋集》卷4. 記 “지금까지 많은 명산을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금강산만이 이 설악산과 우위를 다룰 수 있고 다른 산은 견줄 바가 못 된다. 금강산은 그 아름다움이 중국에까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설악산의 경치는 우리나라 사람조차 아는 이가 드무니, 이 산은 산 가운데 隱者이다. 내가 세세히 설악의 경치를 적은 것은 고향에 돌아가 친우들에게 자랑하고자 함이요, 또 절경을 찾아 유람하려는 이들에게도 알려주려는 뜻에서이다.”

18) 金錦園(1817년경-1847년이후),《湖東西洛記》“설악에는 옛날 김삼연의 영시암과 김청환의 오세암이 있었으나 그들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아 비록 볼 수는 없으나 설악의 이름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더욱 알려져 금강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이 찾는 명승지다.²⁰⁾

설악은 신라 때 처음 소사(小祀)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칭으로 설산(雪山), 설봉산(雪峰山), 설화산(雪華山) 등으로 불렀는데 그 어원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가위 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 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²¹⁾ 둘째는 암석의 색깔이 눈 같이 하얗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고²²⁾ 셋째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의 ‘솔피’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²³⁾

조선중기 이만부(李萬敷:1664~1732)의 《지행록(地行錄)》에 의하면 첫째와 둘째 유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 “설악산은 산이 매우 높아 음력 8월(중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이듬해 음력 5월(여름)에 가서야 눈이 녹기 때문에 설악이라 이른다. 또 그 바위 봉우리의 돌 빛이 희고 깨끗하기 때문에도 또한 설악이라 부른다”고 하였다.²⁴⁾ 따라서 설악 명칭의 유래는 백설과 관련된 것, 암석과 관련된 것,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외면적 양태와 정신적 세계관을 포함한 명칭으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눈 설(雪)자를 사용한 ‘설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필자는 설악산과 관련된 두 권의 서명본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노산 이은상의 《산찾아 물따라》(박영사, 1966년 초판, 1975년 3판 발행)이고, 다른 하나는 황호근의 《국립공원 설악산》(통문관, 1973년)이다. 노산의 이 책은 동아일보에 1933년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7회에 걸쳐 연재된 것으로 그의 설악산 기행에는 십마니, 포수 등 10여명이 동행하였다. 30세의 젊은 시인이자 동아일보 기자출신이며 산악인인 노산 이은상은 설악행각 1회 ‘行脚 前夜의 燈下에서’라는 제목으로 설악행각을 쓴 동기를 밝혔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설악은 우리 옛 조상들의 오랜 숭배를 입어온 신령한 산, 거룩한 지역이라 후세에 끼쳐진 한 자손이 찾아가 그 영적을 더듬고 활력을 얻어 조선민족정신을 재인식하자, 조선민족 신념을 재수립하자, 조선민족문화를 재건설하자 하는 거기에 더 큰 깊은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글은 후에 《노산문선》에 수록되었지만, 새로 《산찾아 물따라》(1966년)를 묶어 내면서 “일제시대의 검열기준으로 ‘설악 신문에는 그대로 넘겨준 글이라도 단행본에는 옮겨 신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군데군데 삭제된 곳이 많았다. 그랬으나 이번에 이같이 새로 간행하게 되므로, 그 당시 이 글을 발표했던 동아일보 보관지에서 그 삭제된 구절을 찾아 그대로 베껴 내어 완전히 보충해 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⁵⁾ 따라서 《노산문선》에 실리지 못했던 설악행각의 내용들이 《산찾아 물따라》에 오롯

19) 李殷相,《祖國江山》民族文化社, 19, 32쪽

20) 손경석, 《한국의 산천》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202쪽

21) 《新增東國輿地勝覽》권44, 양양산천조 “부의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으로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에 이렇게 이름지었다.”(在府西北五十里 鎮山極高峻 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22) 金錦園,《湖東西洛記》“설악산을 찾으니 돌들은 불쑥불쑥 솟아 하늘에 닿았고, 산봉우리들 우뚝 벌려 있는데 돌들은 희기가 눈 같이 설악이라 이름했다.”(訪雪岳山 石勢連天 峯巒聳列 石白如雪 故名雪岳也) 김금원은 원주 태생으로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으나 14세 때인 1830년 봄 3월에 남장을 하고 처음 금강산을 여행하였다. 규당학사 김덕희의 소실이 되었으며 서울 용산에 있는 삼호정에서 박죽서, 김운초, 김경춘 등과 시문을 주고 받았다. 1850년에 유명한 여류기행문인 《호동서략기》를 썼다.(필자 주)

23) 李殷相,《雪岳行脚》《鷲山文選》永昌書館, 1958, 165쪽 “이 설악의 ‘설’이란 것은 결국 신성을 의미하는 ‘솔’의 음역인 것임만은 疑할 것 없는 일이라 봅니다”

24) 김윤우,《설악산의 산수와 명승고적》《山書》제15집, 한국산사회, 2004, 20쪽

이 담겨지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처럼 설악산이 1933년 노산 이은상 신문연재로 널리 알려졌다는 평가가 온당하다.²⁶⁾

다음의 서명본인 황호근《국립공원 설악산》은 사단법인 속초시관광협회 회장이었던 양권일이 전용갑에게 준 것으로 내표지에 ‘奎瑢甲 先生 惠存 楊權一’이라고 서명하였다. 서문에 의하면 양권일이 지우었던 황호근에게 설악산에 대한 책을 저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호근의 자서에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속초시관광협회 회장 양권일 선생의 물심양면에 걸친 뜨거운 희생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을 특별히 밝히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하였다.

양권일 회장에게 이 책을 받은 전용갑 사진작가는 자신의 책 앞장 화보에 “사진-○표는 奎瑢甲 攝影, 其他 崔九鉉 攝影”이라고 직접 써놓았다. 따라서 이 책은 전용갑 선생의 소장본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필자의 수중에 들어오며 따라 소개를 하게 된 것도 전생의 큰 인연이 아닌가 싶다. 이 책에 수록된 컬러사진 40장 가운데 전용갑이 붉은색 볼펜으로 ○표를 한 사진은 향성사의 탑, 신흥사전경, 귀면암, 비선대, 양폭, 천당폭포(사진 속에 촬영준비를 하는 최구현의 뒷모습이 담겼다), 권금성 케이블카, 금강굴, 금강문, 선녀봉의 웅자, 백담사의 전경, 한계령의 108계단, 12선녀탕, 백담산장, 속초항 출어, 영랑호, 속초시 전경, 전설이 깃든 하조대 등으로 19장이다.

따라서 최구현이 촬영한 사진은 노루목 고개, 신흥사 부도, 울산암, 흔들바위, 높이 솟은 미륵봉의 웅자, 천불동계곡, 천화대, 진태봉의 운해, 비룡교,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장수대, 대승폭포, 속초항의 일출, 명태덕장, 속초해수욕장, 옥색옥녀탕, 의상대, 낙산사, 흥련암, 낙산해수욕장 등 21장이다. 1970년대 속초의 사진작가로 최구현과 전용갑이 활약했으며 황호근의 책자에 수록된 사진도 함께 작업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황호근과 양권일은 설악산의 팔기팔경을 정리하였다. “설악산에는 기괴한 점이 많은 산이라 신비스럽기 그지없다. 그 이치를 생각해도 풀 수 없는 기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조화로 이루어졌는지 천만년의 비밀이 간직된 채 오늘에 이르른 것이다. 그런 기괴한 점을 양권일 선생과 함께 해석하고 정리하니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여덟 가지나 되므로 여기에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설악산의 풍경 가운데 특히 손꼽을 수 있는 풍경 가운데 유독 팔경을 선정한 것은 그만큼 풍경조성에 절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다. 필자는 양권일 선생과 몇일을 두고 옛 선인들의 시구나 세간에 알려진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선정한 것이다”라 하였다.²⁷⁾

설악산의 팔기는 모두 자연현상에 대한 기괴한 것으로 오랜 옛날부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면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생각하던 신기한 것이라 하였고, 설악산의 팔경은 여덟 가지 좋은 풍경을 말한 것이라 하였다. 필자가 팔기와 팔경 내용을 풀어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 이은상,《산찾아 물따라》박영사, 1966년 5쪽, 머리말은 1966년 10월 3일 개천절에 노산 이은상이 썼다.

26) 엄경선,〈그 시절 설악에는 무슨 일이, 신문기사로 읽는 우리지역이야기⑥〉《설악신문》905호, 2009. 5. 4 14면

27) 黃 匪根,《國立公園 雪嶽山》通文館, 1973, 59~65쪽

○ 설악산의 팔기(八奇)

- ① 천후지동(天吼地動): 여름철 비올 때 하늘이 울부짖고 땅이 갈라지듯 지축이 흔들리는 것
- ② 거암동석(巨巖動石): 큰 집 채만한 바위가 쉽게 움직이는 설악산 흔들바위의 신기한 것
- ③ 전석동혈(轉石洞穴): 계조암같이 바위가 바위와 서로 맞대어 자연굴을 만든 기이한 것
- ④ 백두구혈(百斗窟穴): 내설악 외기평에서 백담사 구혈은 콩 백말을 담은 구멍으로 기괴한 것
- ⑤ 수직절리(垂直節理): 천불동 골짜기 봉우리가 수직으로 갈라져서 온갖 형상을 하는 기이한 것
- ⑥ 유다탕폭(有多湯瀑): 설악산에 탕이 많은데 모든 물체가 탕에 빠지면 탕벽에 붙는 괴이한 것
- ⑦ 금강유혈(金剛有穴): 미륵봉의 금강굴과 같이 큰 석산에 큰 구멍이 뚫린 신기롭고 기이한 것
- ⑧ 동계지설(冬季遲雪): 과거에는 늦가을부터 눈이 내렸지만 이제는 정월이나 2월에 내리는 것

○ 설악산의 팔경(八景)

- ① 용비승천(龍飛昇天): 설악산 폭포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
- ② 운악무해(雲岳霧海): 여름철 봉우리마다 구름 위에 솟아 있고, 골짜기는 안개 속에 잠겨 있는 모습
- ③ 칠색유홍(七色有虹): 폭포에서 생기는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일곱색 무지가 펼쳐진 모습
- ④ 개화설경(開花雪景): 겨울산이 눈꽃으로 덮이는데 나무와 기암절벽의 눈꽃들이 묘경을 이룬 모습
- ⑤ 홍해황엽(紅海黃葉): 가을 산천이 단풍으로 물들어 마치 수를 놓은 병풍을 펼쳐놓은 것과 같은 모습
- ⑥ 춘만척축(春滿磧躑): 봄의 대청봉에는 철쭉과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온 산에 가득하여 아름다운 모습
- ⑦ 월야선봉(月夜仙峰): 가을 밤하늘이 밝을 때 둥근 달이 중천에 뜨면 기암 괴봉들의 선녀같은 모습
- ⑧ 만산향훈(滿山香薰): 봄에 눈향나무가 피어 그 향기가 바람따라 온 산에 가득하여 향기에 취한 모습

설악산 팔경은 이처럼 사람들이 계절과 자연을 탐닉하며 그 경관을 읊은 것으로, 천지수(天·地·水) 삼원(三元)과 오행의 절경을 합친 도교적인 팔채지경색(八采之景色)이다. 따라서 그 팔경은 원경(元景) 시경(始景) 현경(玄景) 영경(靈景) 진경(眞景) 명경(明景) 통경(洞景) 청경(淸景)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²⁸⁾ 이에 따라 1973년에 간행된 설악산 책지는 필자인 황호근과 책을 쓰도록 독려한 속초시관광협회 회장 양권일, 사진작가 최구현과 전용갑이 공동으로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악만이 갖는 팔기와 팔경은 골라 낸 것도 선각자의 혜안이라고 하겠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설악을 찾은 것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에서 시작된 듯하다. 이미 이름난 금강과 유일하게 우위를 논할 수 있는 설악산을 가기 위해, 평평한 길에서는 말도 타고, 가마도 타고 가다가 험한 돌길이 나오면 신발을 챙겨서 걸었다. 그렇게 다녀온 설악에 대한 감동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그리고 설악을 찾는 이들에게 그 감동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려한 문체로 한문기행수필을 남겼다. 다행스럽게 그들의 문집에 담겨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다.

28) 장정룡, 《강원도민속연구》국학자료원, 2002, 189쪽

Ⅲ.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개관

1. 김창흡의 <설악일기(雪岳日記)>(1705년)

김창흡(金昌翕:1653~1722) 선생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안동,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낙송자(洛誦子),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金壽恒)의 둘째 아들로 이단상(李端相)에게 배웠다. 1673년(현종 14)에 진사가 되었고, 1684년 장악원주부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진도의 유배지에서 죽자 형 창집, 창협과 함께 영평에 숨어 살았다. 1721년 집의, 다음해 세제시강원진선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성리학에 뛰어나 형과 함께 율곡 이후 대학자라 칭했는데, 신임사화로 형이 유배지에서 죽자 크게 상심하였고 지병이 악화되어 그 해에 죽었다.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숙종의 묘정에 배향되고 양주의 석실서원, 울진의 신계사, 강릉의 호해정 영당 등에 제향되었다. 문집에 《삼연집》, 저서에 《심양일기》, 《문취》, 편서에 《안동김씨세보》가 있다.

25세 때 처음 설악산과 만났던 삼연의 만년기는 설악산 은거기간으로 54세부터 59세까지 만 5년이다. 벽운정사에 거처하다 1708년 화제가 나자 1709년 다시 영시암을 짓고 머물렀다. 삼연은 설악에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비선대 시 한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瓊臺俯金潭(경대 같은 맑은 물 굽어보니) 右扇排青峰(부채 같은 청봉이 그곳에 펼쳐졌네) 融時備衆妙(이곳이 생길 때에 妙理를 갖추었던가) 豈惟勢奇壯(그 勢 어찌하여 이리도 기장한가)”²⁹⁾ 삼연은 열 가지의 즐거움을 논했는데 그 가운데 ‘산천을 두루 돌아 말과 종도 지쳤지만 안장에 걸터앉자 길가며 읊은 게 작품이 되어 한 주머니 가득할 때(經歷山川 馬頓僕怠 據鞍行吟 有作成囊)’ ‘세모의 산속 절에서 눈보라 훑날릴 때 밤은 춥고 스님을 잠들어 혼자 앉아 책을 읽을 때(崖寺歲暮 風霰交山 夜寒僧眠 孤坐讀書)’가 들어 있다.³⁰⁾ 설악을 주유(周遊)하며 시 쓰고 홀로 글 읽던 설악산 시인의 삼연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속초시 노학동 동사무소 앞 길가에는 1982년 속초문화원에서 세운 삼연 김창흡 선생 추념비가 있다. 비문내용에는 “그의 가문이 권문세가이었기에 당쟁의 상처도 컸다. 장희빈과 얽힌 기사환국에 부는 송시열과 함께 사사(賜死)되고 중백부(仲伯父) 또한 적소에서 죽는 등으로 처참한 가난(家難)을 당하였다. 당대의 뛰어난 학자요 시인이었던 삼연 선생은 끔찍한 환해풍파가 싫어 내설악에 들어와 영시암을 어리다 물소리 솔바람으로 흥락을 씻으면서도 문득 외설악의 웅자와 동해의 창파가 그리우면 속초에 자주 와서 향사들과 어울려 시회주를 즐겼다. 삼연이 간지 사반천여년 산천은 변하였으나 그 정이 그리워 그이 비폴충담과 소야팔경을 새겨두고 그를 추념코자 한다.”고 적었다.

김창흡이 지었다는 소야팔경은 설악산 달마봉에서 발원하여 척산, 노리를 거쳐 청초호로 유입되는 소야뜰의 경관을 노래한 것으로 청호마경(靑湖磨鏡), 속초귀범(束草歸帆), 주교야화(舟橋夜火), 온정조하(溫井朝霞), 논산조양(論山朝陽), 청대화병(靑垓畫屏), 노동명월(蘆洞明月), 이동백설(梨洞白雪), 도원홍우(桃源

29) 崔承洵, 《太白의 詩文》下, 江原文化叢書 11, 강원일보사, 1977, 155쪽 “그는 비선대의 맑은 물을 굽어보고 그 물에 잠긴 奇壯한 경관을 본 것이 아니라 물밑에 잠겨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우주의 묘리를 한데 모였다는 것도 기발한 상이거니와 낙구에 여운을 남겨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것은 더욱 이곳의 경승도 살렸고 문장의 운치도 더하였다.”

30) 《三淵集》拾遺卷之 24, ‘藝園十趣’

紅雨), 척산야침(尺山夜砧) 등이다.³¹⁾ 《삼연집》은 72권 36책으로 삼연은 5천여수의 시를 남겼다. 삼연의 기행문 〈설악일기〉는 1705년 8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록한 내용이다.

2. 홍태유의 〈유설악기(游雪岳記)〉(1705년)

홍태유(洪泰猷:1672~1715) 선생은 조선 숙종 때의 성리학자로서 본관은 남양, 자는 백형(伯亨), 호는 내재(耐齋)다. 주부(主簿)벼슬을 했던 홍치상(洪致祥)의 아들로 1689년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화를 당하자 벼슬에 뜻을 버리고 학문과 저술에만 힘을 썼다. 문학재능이 뛰어난 문장은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 시는 두보(杜甫)를 본받았다고 한다. 영조 때 지평으로 추증되었다. 그는 인심(仁心)을 바탕으로 한 덕정(德政)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시문집으로 《내재집(耐齋集)》5권이 있다. 시는 평담전아(平淡典雅)하였으며 시에 천재적 재능을 가졌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송나라 사람의 시를 좋아하다가 두보의 시에 침착하였고 만년에는 당나라 시인 귀잠과 잠삼의 시체를 좋아했다. 삼연 김창흡이 그를 크게 칭찬할 정도로 시와 문장에 뛰어났다.

내재는 경기도 여주의 이호(梨湖)에 ‘내재’라는 집을 짓고 살았으며 1705년(숙종35) 설악산, 한계사 일대를 유람했다. 저자는 가문의 불행을 겪은 뒤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산천유람을 즐겼으며 많은 시문을 남겼으나 44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남에 따라 미처 자신의 시문을 정리하지 못했다. 1715년에 기세한 후 아들들이 초고를 바탕으로 유문을 수집 편찬한 뒤 당대의 명인들에게 보였는데 먼저 김창흡의 산정(刪定)을 받고 다음에 이병연, 이덕수에게 산정 받아 5권 3책의 책자를 간행하였다.

책자의 간행은 1730년(영조6) 저자의 종숙부이자 당시 영의정 홍치중의 도움을 받아 운각활자로 냈으며 이선현과 이덕수가 서문을 썼다. 이후 1754년 아들 홍익삼이 경주 부윤에 제수되자 저자에게 이조참판이 추증된 뒤 문집이 다시 발간되었다. 아들 홍익삼은 운각활자로 문집을 초간한 후 부록문자를 구성하는 등 중간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저자의 재종제 홍진유가 지은 유사에다 홍익삼이 1754년 추증사실을 추가하였고, 1747년경 윤봉조에게 행장을 받고 이제가 지은 묘갈명에 윤심형의 추기를 받고 1739년경 이덕수에게 묘지명을 받았다. 이 중간본은 홍익삼이 경주부윤으로 있던 1754년과 이듬해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전하는 규장각 중간본 완본은 1755년경 목판이다. 내재집 권1~2는 시로서 220여수가 연대순으로 실려 있고, 권3은 서(書) 서(序), 권4는 기(記) 제후(題後) 잡저(雜著) 권5는 논(論) 묘지(墓誌) 행장(行狀) 애사(哀辭) 제문(祭文), 부록은 유사 행장 묘갈명 묘지명이다. 〈유설악기〉는 《내재집》 권4에 수록되어 있다.

홍태유의 설악산 기행은 인제현에서 동북쪽의 삼차령을 넘고, 곡백담 하류, 난계역을 거쳐 곡백담에 이르렀다. 봉정암을 보았고 유홍굴의 오른쪽으로 들어가 십이폭동과 폐문암을 돌아보았다. 그곳에서 30리를 더 들어가 심원사와 삼연정사의 직서루를 거쳐 유홍굴에 도달했다. 거기서부터 돌길을 힘들게 올라 십이폭동을 보고, 남쪽 절벽을 타고 봉정암에 이르렀다. 폐문암 오른쪽으로 고개를 넘어 오세암에 이르렀다.

31) 《道川面 面勢一覽》大正十五年度, 1926 ‘所野八景 起源’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도천면 통치자료이나 당시의 문화재나 고적, 명소전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익훈 전 교장님이 소장하신 자료를 빌려 필자가 쓴 《속초지역 구전설화집》에 영인 수록하였다. 면세일람이 나올 당시 도천면 기성회회장은 박상희였다. 그는 이후 1929년부터 12년간 도천면장을 역임하였다. 엄경선, 《설악의 근현대인물사》마음살림, 2009, 163 ‘속초번영의 주역, 속초읍장 박상희’

홍태유는 이렇게 인재지역의 내설악 명승을 돌아봤는데, 유홍굴에 대해서는 율곡 이이가 과거시험의 시관을 있을 때, 급제자로 뽑았던 유홍(유홍:1524~1594)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언급하였다. 유홍은 1557년에 강원도 암행어사를 역임했고 임진왜란 때에는 강원도와 함경도로 세자를 시종하였고 도체찰사를 맡았으므로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홍태유는 이처럼 설악을 아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절경을 찾는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행문을 썼던 것이다.

3. 이정소의 <유설악록(遊雪岳錄)>(1733년)

이정소(李廷燾:1674~1736) 선생은 조선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여장(汝章), 호는 춘파(春坡)이며 강화출신이다. 좌랑 상휴의 아들로 1696년 진사가 되고 숙종 40년(1714) 증광시 갑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숙종 41년(1715) 식년시 을과에 장원하였다. 노론으로 벼슬은 지평과 정언에 올랐다. 1721년 숙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경종의 후손이 없자 노론의 4대신과 함께 연잉군(뒤의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소론과의 항소와 신입사화가 일어나 영해에 유배되었다가 1725년 영잉군인 영조가 즉위하자 풀려나와 승지, 병조참판 등을 지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문집으로 필사본인 《춘파만록(春坡漫錄)》이 있다. 이 책은 동유록, 후동유록, 유설악록이 1책으로 되어 있으며, 유설악록은 외설악 기행문으로 와선대, 비선대, 금강봉, 계조암, 천후산 등이 언급되었다.

4.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1753년)

이복원(李福源:1719~1729) 선생은 조선후기 학자이자 정치가로 본관은 연안, 호는 쌍계(雙溪), 자는 수지(綬之),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6대조는 대제학 월사 이정구, 5대조는 대제학 백주 이명환, 고조부는 이만상으로 3대 대제학으로 유명한 대제학 청호 이일상의 셋째 아우다. 증조부는 군수 이봉조, 조부는 관찰사 이정신, 아버지는 예조판서 이철보(李喆輔), 어머니는 예산현감 박필순의 따님이며, 아들은 영의정 이수(李時秀)와 대제학을 역임한 극옹(屨翁) 이만수(李晩秀)를 둔 명문가다.

쌍계 이복원은 영조 14년(1738) 사마시, 영조 30년(1754) 증광문과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대사간, 대사헌, 1772년 대제학, 1775년 형조판서를 거쳐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 정조 4년(1780)에 이조판서를 거쳐, 형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판중추부사, 원자보양관, 세자부, 영중추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1783년에는 문안사, 1790년에는 동지사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문장에 능하여 영조의 시책문을 짓고 정조가 《명의록》을 지을 때 찬집당상을 맡았으며, 왕실의 《갱장록》 편찬을 주도했다. 이외에도 《일성록》《대전회통》의 서문을 썼다. 저서로 《천령향함이지락(千齡享含飴之樂)》《쌍계유고(雙溪遺稿)》가 있다. 관직에 있는 동안 몸가짐에 엄격하여 마치 벼슬이 없는 선비처럼 포의를 걸치고 근신하는 생활로 일생을 보내 유상(儒相)이라 불렸다. 문형이 된 후에 정조 임금은 자신이 세운 규장각의 문헌편찬 작업과 왕실의 기록을 전적으로 맡겼으며 “마음속에 쌓인 덕망이 밖으로 맑게 비치니, 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진 재상이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쌍계의 죽음을 맞이하고 쓴 사제문(賜祭文)에서 정조는 “몸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사람들로부터는 시비가 없었고, 항상 맑고 검소하였으며

마음가짐이 견고하였도다”라고 칭송하였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를 ‘포의(布衣)의 대제학’이라 일컬었으며, 집안은 국조문원가(國朝文苑家)라 하였다.

신흥사에는 영조 때 신흥사를 증창한 용암체조(龍岩體照)대사의 용암대선사비가 있는데, 당시 좌의정을 지낸 쌍계가 비문을 짓고 표암 강세황이 글씨를 썼다. 20세에 첫째 부인인 과평 윤씨를 잃고 재취한 순흥 안씨 부인과 18년을 살았지만 둘째 부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겪고 쓴 제문은 조선 선비가 아내를 잃고 애통한 심사를 글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 사는 것이 마치 흩날리는 꽃잎이나 버들강아지와도 같아 정처 없이 흩어지고 떨어지니 그 사이에 한번 만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수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내 할 일을 다했는지 생각하면 유감이 있구려. 이것이 내가 못내 후회하고 한스러워, 시간이 흘러도 그 한이 풀리지 않는 이유라오”라고 슬퍼하였다.

쌍계가 강원도 양구현감 재임시기인 1753년(영조29)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양구 관아에서 출발하여 수렴동을 거쳐 쌍폭, 봉정암, 가야동굴, 오세암, 영시암 등을 유람하고 양구현 관아로 돌아온 내설악 기행문이다. 매월당 김시습과 오세암에 대한 언급과 주지 설정과의 대화가 들어 있으며 영시암과 삼연거사에 대한 기록도 하여 설악과 매월, 삼연의 인연을 중시하였다. 기행문의 끝에는 양구현의 가뭄으로 인해 보리들이 말라 시들고 근심스런 안색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어진 목민관의 따뜻한 마음을 엿보게 한다. 이 기행문은《쌍계유고》제10권에 수록된 것으로 장편에 속한다.

5.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1779년)

정범조(丁範祖:1723~1801)는 조선후기의 남인계 문신으로 본관은 나주, 자는 법세(法世), 호는 해좌(海左),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정시한(丁時翰:1625~1707)의 현손이자,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친척이다. 37세인 1759년 진사시에, 1763년(영조39) 증광문과에 갑과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고, 1768년 지평·정언을 지내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773년 동부승지에 발탁되었고, 1776년인 56세 풍기 군수와 공조참의를 거쳐 1778년 병조참의 동년 7월에 양양부사를 제수 받아 8월에 부임하였다. 당시는 대흉년이라 양양주민이 새로 경작한 밭의 세금과 어민의 봉납을 면제하였다.

양양부사를 재직하면서 이듬해인 1779년 3월 설악산을 유람하고 <설악기>를 썼으며 4월에는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1785년(정조9)이후 대사간, 대사성, 이조참의, 한성부우윤, 대사헌, 개성부우수, 이조참판, 형조참판을 거쳐 1799년에 예문관제학, 1800년(순조즉위) 실록지사로서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문집에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이 전한다. 1867년에 간행한 《해좌집》39권 19책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설악기(雪岳記)>는 권23 기(記)에 들어 있다.

《해좌집》권6과 권7에는 양양 낙산사, 현산요, 동해묘, 낙산사, 의상대, 관음굴, 죽도, 영랑호, 선유담, 청간정, 신흥사, 비선대, 천후산, 계조암에 대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정범조는 시와 문장에 뛰어나 영조와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특히 정조가 당대 문학의 제일인자로 평가할 정도였으며 시풍은 풍아화평(風雅和平)하였고, 각지 명승고적에 대한 감회를 적은 것이 많다. 이덕무가 《청비록》에서 평한 것과 같이 정범조는 석북 신흥수와 이름을 나란히 한 작가로서 세상을 놀라게 한 작품을 썼다고 평한다.³²⁾

정범조는 조선 정조연간에 여러 관직을 거치며 남인을 이끌었는데 1794년 지돈녕부사로 기로소에 들어갔다. 1796년 친척인 정약용이 원주 법천동 우담에 ‘청시야(淸時野)’라는 초당을 찾았다. 현계산 탄천의

우담에 살던 정범조는 ‘맑은 세상에기에 초야에서 늙으려 한다는 뜻’을 담아 초당을 지었다.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은〈청시아초당기(淸時野草堂記)〉에서 “공이 처신하는 것과 세상 살아가는 것은 대개 마음에 스스로 얻은 것이 있어 그런 것이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초야에 묻혀 사는 것도 도가 있으니, 맑은 시대가 아니면 초야에 묻혀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Ⅲ.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내용과 일정

설악기행문 5편 가운데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외설악 기행문인 이정소의 〈유설악록(遊雪岳錄)〉(1733년)과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1779년) 등 두 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²⁾ 이외의 기행문은 수집 되는 대로 추후에 보충하여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이정소, 《춘파만록》〈유설악록〉(1733년)

[내용] 9월 11일 재미일 맑음. 양양에서 아침을 먹고 나서 간성군수 조탁(趙擇)이 영공(令公)을 겸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14일 모임이 있으므로 설악산의 완연한 가을 경치도 볼 욕심에 진사 민태수(閔台叟)와 함께 동행하여 길을 나서 연곡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동산관(洞山館)에서 묵었다. 12일 갑신일 맑음, 상운역을 떠나 양양부에 들러 승지 이휘진의 애려(哀廬: 상을 당한 사람의 임시거처)에 들러 만나고 저녁에 낙산사에서 묵었다. 13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민태수와 함께 이화정에 나와 앉아 멀리 대해의 동쪽을 바라보니, 한줄기 붉은 오색구름이 가로로 퍼져 언덕을 잠깐 비추고 흩어지더니, 커다란 태양이 날아올라 만가닥 금빛을 위아래로 쏘아 비추니 가히 장관을 이루었다.

스님이 말하기를 전에도 이곳을 유람하러 온 관리들이 왕왕 있었는데 이러한 장관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기가 청명한 것이 신의 도움이 있는 것 같다 한다. 아침을 먹은 후 출발하여 바닷가를 따라 10여리를 가서 강선역에 도달하고 또 20여리를 가서 신흥사(新興寺) 동구에 도착하니 신흥사에 기거하는 스님 여덟아홉 명이 절에서 나와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갈 것을 권하였다. 관사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 큰 내를 건너니, 지나치는 양쪽 가로 석봉들이 빼어나게 나와 층을 이룬 것이 신기하고 괴이하여 가히 장관이다. 남쪽을 보니 한 줄기 폭포가 모든 봉우리의 머리처럼 하늘에 걸려 마치 필련(匹練: 하얗게 바랜 한 필의 백포)처럼 아래를 드리우고 있다. 여름에는 이 두 폭포의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고 물길의 모양은 눈과 같은데, 지금은 물 떨어지는 것이 줄줄 흐르기를 먼치 못한다고 스님이 말한다.

향성사(香聲寺) 구 터를 지나니 5층탑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옛날 큰 사찰의 폐허인데 기 백여 년이 된 것”이라 하였다. 산세가 부드럽고 수목이 울창한 길을 따라 사찰누각에 이르니 누

32) 李家源, 《韓國漢文學史》民衆書館, 1961, 326쪽

33) 이정소 지음, 임영란 옮김〈유설악록(遊雪岳錄)〉〈山書〉제15호, 한국산서회, 2004, 14~17쪽

정범조 지음, 심경호 옮김〈설악기(雪岳記)〉,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운 것이 모두 산이다〈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이 가서, 296~306쪽

각의 곁이 쇠락하고 편액이 낡아 스러져 망가져 있고 주목 또한 다행을 면치 못하였다. 늙은 스님 10여명이 와서 둘러앉았는데 내가 “설악 한 자락에도 많은 명승이 있군요.”라고 말하였다. 대개 나의 말에 덧붙여 말하였는데 이 절의 북쪽에는 천후산(天吼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아래에 석굴이 있고 그 석굴에는 계조암(繼祖庵)이 있다 한다. 이 절의 남쪽에는 식당암(食堂岩)이 있고 그 바위 아래가 와선대(臥仙臺)이고 그 위가 비선대(飛仙臺)인데, 반나절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견여(肩輿: 두 사람이 어깨에 매는 가마)가 앞서 식당암을 향해 나아가니 구불구불 구비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발길마다 하얀 돌이 밟힌다. 또 한 골짜기를 넘으니 좌우에 단풍나무 숲의 붉고 푸른 빛 사이로 햇빛이 파고든다.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고 푸른 계곡은 곧게 뻗어 와선대에 이어 있다. 와선대의 반석은 평평한 것이 위 아래로 층을 이루고 있다. 산의 바위는 대개 그 이름에 연유가 있게 마련인데 이곳은 근년에 세 글자가 새겨진 것이다.

나와 스님 일행이 바위 위에 둘러앉아 산에서 나온 과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산중의 별미를 맛보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멀리 경치를 감상하고, 다시 일어나 또 수십 보를 나아가며 더위잡고 땀 흘리며 기어올라 비선대에 이르렀다. 용맹스럽고 장대하게 구름 기둥처럼 양쪽 언덕에서 있는 금강봉(金剛峰)은 하늘 밖까지 이를 듯 뻗어져 나온 것이, 옛날 이백의 시에서 말한 것과 같다. 서쪽에 있는 폭포의 물은 양쪽 봉우리 사이로 쏟아 흘러지며 마치 옥구슬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남쪽 골짜기 아래로 흐르는 것이, 그 원류로 물의 기세가 웅장하니 이 서쪽 폭포가 더욱 기이하다. 남으로 보이는 여러 봉우리는 숲이 울창하고 깊으며 빼어나 숲 골짜기가 더욱 깊어 보이고 첩첩산중을 이루었는데, 스님이 이르길 “옛날 신라 말, 권씨와 김씨 두 성씨가 세속을 피해 이곳에서 머물렀던 까닭에 권금성(權金城)이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고 말하였다.

가마를 돌려 천후산을 향하니 커다란 바위가 마치 돌 부채처럼 하늘 높이 눈빛으로 하얗게 치솟아 있고 향기를 피우는 성이 펼쳐져 있는 것과 같으니, 이곳이 가히 모든 금강의 경치 중 백미라 하겠다. 험난한 돌길을 열 걸음 걸어 아홉 꼭대기에 겨우 도착하니 아래에는 용암(龍岩)이 있고, 양안에 두 가닥나무로 다리를 놓아 가까스로 지팡이를 짚고 건너니 석문이 보이는데, 두 바위 사이에 기거하는 스님이 한 명 있어 앞서 나를 인도하여 굴 안으로 들어가니, 굴 안에 세 칸 남짓 계조암이 들어 앉아 있고, 암굴 위의 석문 밖에는 정암(庭岩)이 있는데 바위의 반쯤 높이의 용암에는 사람 오십 명은 족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바위의 단상에는 어른 키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소위 움직이는 돌이라 부르는 동석(動石)이 있어 시험 삼아 밀어보니, 어린아이의 힘 정도로도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하다. 스님 말이 “원래 이 돌은 두 개였는데 하나가 밑으로 떨어져 지금은 하나만 남았다.”고 한다. 굴 밖 서쪽 바위틈에 샘이 하나 있는데 물맛이 매우 달고 차며 먹을 수 있다. 민태수와 함께 바위 위에 앉아 사면을 둘러보니 향로봉이 보이고, 그 남쪽에는 달마봉이 있고, 그 동쪽에는 남국사봉이 있고, 그 남쪽에는 천후산이 있고, 그 북쪽으로 수려하고 준수하고 빼어난 나라의 명승들이 늘어섰다. 달마봉으로부터 천후산의 사이를 넘어 보이는 만리 창해는 그 광대한 모습이 그 옛날 소동파가 시로 읊었던 소위 ‘질풍같은 세상에 홀로 선 깃털 같은 존재니 신선에 이르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였던 것과 같다.

절에 있는 스님 여럿이 와서 아뢰는데 그들을 자세히 알아보니 이대사(頤大師)는 나와 동갑인데 매우 총명하고 도리를 알며 경문에 능하고 시율(詩律)이 빼어나니 그 실력이 가히 한문공(한유)을 능가할 정도이다. 석양은 산 위에 걸쳐 있고 새로 나온 달이 신흥사 위에 떠올라, 나와 이대사는 나란히 침상에 누웠다.

아침 동틀 무렵 가마가 양양부에 도착하고 군수가 이미 와 앉아 있어 동행하여 돌아왔으니 설악을 유람한 것은 단지 하루뿐이었다. 글로써 기록하여둔다.

[일정] 춘과 이정소는 1733년 9월 11일 가을 경치를 보기 위해 양양에서 진사 민태수와 함께 설악 구경을 나섰다. 연곡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동산관에서 묵었다. 12일 상운역을 떠나 낙산사에 묵은 다음날 13일부터 강선역을 거쳐 신흥사에 입구에 도착하였고, 이어 옛 향성사터의 5층탑을 보고, 식당암, 와선대, 비선대에 당도했다. 여기서 사방의 금강봉, 천후산, 향로봉, 달마봉, 국사봉 등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금강굴이라 부르는 금강봉에 대해서도 용맹스럽고 장대하다고 하였다. 휴식을 취한 후 일행은 가마를 돌려 내려와 돌부채처럼 생겼다고 한 천후산인 울산바위 아래 세 칸 남짓의 바위굴인 계조암을 보고, 흔들바위 등을 차례로 바쁘게 돌아보았다.

이정소의 전체 일정은 3일이 소요되었으나 설악기행은 하루만의 기록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권금성에 대한 전설이다. 권금성은 신라 말 권씨와 김씨가 이곳에 머물러서 불려졌다고 하였으며 또한 흥미로운 것으로 어른 키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소위 움직이는 돌이라 부르는 동석(動石)이 있어 시험 삼아 밀어보니, 어린 아이의 힘 정도로도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계조암 앞의 흔들바위를 지칭하는데 원래 이 돌은 두 개였으나 하나가 밑으로 떨어져 지금은 하나만 남았다는 승려의 언급도 적었다. 굴 밖 서쪽 바위틈에 샘이 하나 있는데 물맛이 매우 달고 차며 먹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시원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정소의 일정은 지금도 외설악을 즐겨 찾는 비교적 단거리의 관광코스다. 270여년 전 조선 선비가 걸었던 그 길을 가벼운 마음과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신흥사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면 와선대와 비선대가 나타나고, 우측으로 올라가면 계조암과 울산바위가 그 모습 그대로 장관을 이룬다. 세월은 가고 인물이 떠나도 절경은 여전하다.

2. 정범조, 《해좌집》권23, 기, 〈설악기〉(1778년)

[내용]무술년(1778, 정조2) 가을, 내가 양양의 임소로 가다가 북쪽으로 설악을 바라보니, 구름 가에 우뚝하여 아주 장대하였으나, 관리의 일정이 촉박하여 가서 놀 수가 없었다. 다음해 3월 상운(祥雲)의 승(丞) 장현경(張顯慶) 사옹(土膺), 고을의 선비 채재하 군과 약조하여 함께 출발하였다. 그리고 최질 신흥도, 사위 유맹환, 아들 약형이 따랐다.

신축일(17일) 신흥사에서 묵었다. 절의 주위에 천후(天吼) 달마(達摩) 토왕(土王)의 여러 봉우리들이 둘러서 있다. 설악의 바깥 산들이다. 임인일(18일)에 신흥사 승려 홍운에게 견여를 인도하게 해서 북쪽으로 비선동(飛仙洞)을 거쳐 들어갔다. 봉우리 모습과 물소리가 이미 정신과 혼백을 맑게 해준다. 고개를 올려 바라보니 깎아 세운 듯 절벽이 수백 심(尋)의 길이다. 견여를 내려서 오르는데, 벽은 모두 돌계단이다. 한 계단마다 한 번씩 숨을 몰아쉬면서 올랐다. 장사옹을 돌아보니 아직 아래쪽 계단에 있다. 그는 따라갈 수 없다고 절레절레한다. 마척령(馬脊嶺)을 오를 때 홀연 큰 바람이 일어나고 안개와 비가 내려서, 사방이 다 막힌 듯 캄캄하였다. 홍운 승려는 “이것이 중설악입니다. 날이 개면 설악 전체가 보일 겁니다.” 라고 하였다.

어스름에 오세암(五歲庵)에 들어갔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에서 웅위하고 있으면서 삼엄하여 사람을 치려는 듯하다. 중간에 토혈이 뚫려 있어, 고즈넉하게 암자를 하나 들여 넣고 있다. 매월당 김시습이 일찍이 은둔한 곳이다. 암자에는 두 개의 초상화가 있는데, 매월당을 유학자로서 그려둔 형상과 불자로서 그려둔 형상이다. 나는 배회하며 추모하면서 서글픈 느낌에 사로잡혔다. 공은 스스로 오세동자라 하였으므로 이 암자의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계묘일(19일)에 왼쪽 기슭을 넘어 아래로 내려오다가, 길을 꺾어 오른쪽으로 향하여 큰 골짜기를 따라 위로 올라갔다. 산봉우리의 형세가 마척령보다 더 험준하다. 밧줄로 끌고 앞장 서서 가면, 뒤에서 미는 사람이 꼬옥 들러붙어 10리를 간 후에 사자봉의 절정에 올랐다. 이것이 상설악이다.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운 것이 모두 산이다. 고니가 나는 듯하고 칼이 서 있는 듯하고 연꽃이 핀 듯한 것은 모두가 봉우리요, 오지그릇 같고 가마솥 같고 동이나 항아리 같은 것은 모두가 골짜기이다. 산은 모두 바위이고 흙이 없으며, 질푸른 색은 마치 쇠를 쌓아놓은 듯한 빛깔이다. 사자봉의 동쪽은 조금 굽어 흘러가는 형세이다. 암자가 있어서 봉정(鳳頂)이라 한다. 전하는 말에 고승 봉정이 상주하였다고 한다. 사자봉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 벼랑을 따라 남쪽으로 갔는데, 벼랑이 좁아 가까스로 발을 디딜 정도였다. 발을 내디디는 곳은 낙엽이 쌓이고 바위가 무너져 있고 나무가 가로누워 있어서 별별 떨어 건너갈 수가 없다. 왼 켜 오른 켜 산들은 모두 기이한 봉우리들로, 수목의 숲 위로 불쭉불쭉 솟아나 있다.

물은 뒤쪽 산에서부터 나와 골짜기를 두루 덮으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골짜기는 모두 돌이어서, 맑고 밝기가 마치 눈과 같다. 그 위로 물이 덮어 흐른다. 바위가 엎드려 있다가 솟아나고 움푹 파였다가 볼록 튀어나고 좁았다가 넓어지고는 하는데, 그 형세는 모두 물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대개 폭포를 이룬 것이 열서너 개인데, 쌍폭이 특히 기이하다. 못을 이루고 보를 이루고 만류(漫流:홍건한 물이름)를 이룬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수렴(水簾)이라 일컫는 것이 가장 기이하다. 이런 것을 종일 보다가 영시암에 들어갔다. 이 암자는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이름 지은 것으로, 그가 일찍이 이곳에 은둔하였다고 한다. 봉우리와 골짜기 그윽하고도 기이하며, 흙이 있어서 작물을 심을 수가 있다. 아름다운 수풀과 무성한 나무들이 많고 밤새도록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갑진일(20일)에 물을 건너서 남쪽 골짜기 속으로 갔다. 계곡의 시내는 나무와 바위가 뽕뽕뽕 솟아서 발을 제대로 디딜 수 없다. 조금 올라가자 바위가 모두 흰색이더니, 홀연 보랏빛 붉은빛으로 변하여 수면에 너른하게 그 빛이 서린다. 왼쪽에는 석벽이 감벽의 색으로 서있고 물이 그 가운데로 갈라져 나오며 쏟아져 서는 쿵쿵 소리를 냈다. 앞에 산봉우리가 있는데 아주 험준하다. 견여에 찰싹 엎드려서 올라갔다. 좌측 기슭을 따라서 아래로 백 걸음을 내려가자 앞에 석벽이 수십 심(壽:1심은 8척)의 높이로 우뚝 서서 마주한다. 색은 깨끗한 푸른빛이다.

폭포가 산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나는 듯이 쏟아져 내려, 영롱하기가 흰 무지개와 같았다. 바람이 잠깐 잡아채자 가운데가 끊어져서 아지랑이며 눈이 되어, 가볍게 훌훌 날려 허공에 가득하게 되고 남은 물보라가 때때로 옷으로 날려 들어왔다. 종자에게 피리를 불게 하여 폭포소리와 서로 응답하게 하니, 맑고 명랑한 소리가 온 골짜기에 울렸다. 이것이 바로 한계(寒溪)폭포이다. 내가 흥운에게 “이런 것이 또 있는가?” 물었더니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풍악(금강산)의 구룡폭포보다도 훨씬 장관이다. 동남방은 숲과 골짜기 아주

아름답다. 동쪽은 오색령(五色嶺)인데 영천(靈泉)이 있어서 체중에 좋다고 한다. 수석이 많아서, 바라보니 그윽하고 괴이하였으나, 날이 늦어 끝까지 가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넘어 돌아와 백담사(百潭寺)에 이르러 묵었다.

을사(21일)에 북쪽으로 가서 비선동(飛仙洞) 뒷산을 따라 내려갔다. 산이 허공에 매달린 듯 급하다. 바위가 온통 뒤엎히고 구멍이 많아서, 자칫 발을 헛디디면 곧바로 자빠져서 죽을 것만 같다. 남쪽으로 마척령 등 여러 봉우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바라보노라니, 하나하나 모두 구름 가에 있다. 어떻게 나를 그 꼭대기에 올려두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신흥사(神興寺)에서 묵고, 병오일(22일)에 돌아왔다.

[일정] 정범조의 설악기행문은 1778년 3월 17일 신흥사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21일 다시 신흥사에 돌아온 다음날 22일 마쳤다. 일행은 장현경, 채재하, 그리고 친척 등 5명, 신흥사 승려 홍운, 가마꾼들이 동행하였다. 따라서 10여명 정도가 함께 내설악을 돌아보았다. 그의 일정은 신흥사에서 오세암까지 40리, 오세암에서 사자봉까지 40리, 사자봉에서 영시암까지 40리, 영시암에서 한계령까지 30리, 한계령에서 백담사까지 30리, 백담사에서 신흥사까지 40리의 거리다. 전체 도보로 걸어서 돌아온 거리는 220리였으며 견여(肩輿)로는 단지 40리 정도만 갈 수 있다 하였다. 봉정암은 고승 봉정이 있었다 하고, 영시암은 삼연 김창흡이 지었다고 적었으며 수렴동을 절경으로 꼽았다. 오색령에는 약수인 영천(靈泉)이 있어서 체중에 좋다고 하였으니 지금까지 오색약수의 명성이 이어진다.

정범조는 사자봉을 최고로 쳤는데 그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운 것이 모두 산이다. 고니가 나는 듯하고 칼이 서 있는 듯하고 연꽃이 핀 듯한 것은 모두가 봉우리요, 오지그릇 같고 가마술 같고 동이나 항아리 같은 것은 모두가 골짜기이다. 산은 모두 바위이고 흙이 없으며, 질푸른 색은 마치 쇠를 쌓아놓은 듯한 빛깔이다”라 하였다. 말년에 양양부사를 했던 열하일기의 저자 연암 박지원 선생도 양양에 대한 글 한줄 남기지 못했으나, 정범조 양양부사는 설악기행을 남겨 후대의 귀감이 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은둔하는 처사의 풍모를 지녀서 사람들은 그를 ‘산야인(山野人)’라 불렀다고 전한다. 험난한 벼슬길에 지쳤지만 경치 좋은 설악산을 곁에 둔 양양부사가 되자, 서슴없이 설악을 찾은 것도 그의 타고난 성품이기도 했으며, 시를 좋아하고, 문장을 통해 고적을 소개하고 싶은 심미안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두 편의 설악산 기행문을 살펴보았다. 기행수필의 특성상 개인적 감상이 주류를 이루지만, 비교적 일정이나 명승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여 현재의 길라잡이로도 도움이 되는 글이다. 이정소의 외설악기행과 정범조의 내설악기행문은 내외설악에 대한 선비들의 사랑이 질게 배어나오는 문장이다. 산중의 미인이라는 설악을 오래 깊이 사랑한 인물이 하나 둘이 아니겠으나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 가운데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습과 삼연 김창흡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홍태유, 이정소, 정범조, 김금원 등도 있다.

설악을 기록한 근현대인물로는 육당 최남선을 비롯하여 1930년대부터 설악을 누비고 신문에 소개한 노산 이은상의 업적도 놓칠 수 없다. 그리고 1960년대 초부터 설악산 개발에 앞장섰거나 이를 사진으로 남긴 이달영, 이대성, 최구현, 유만석, 이기섭, 이기찬, 정형민, 이종우 씨 등도 떠오른다. 그리고 뒤를 이어 산악인 유창서, 사진가 성동규, 최낙민, 환경운동가 박그림 씨와 같이 설악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나의 부모는 평안도출신으로 1.4후퇴 때 월남하여 속초에 정착하였다. 당시 중앙시장 내의 평복여관 자리를 이기섭 박사에게 양도하고, 리어카에 우리를 태우고 1960년초 설악산으로 들어왔다.

이런 저런 일이 있었지만 당시에 남겨진 사진을 보면 비선대, 계조암, 비룡폭포 등 흑백사진의 추억이 되살아난다. 영국왕실에서 지었다는 산장에서 뛰어놀았고, 틈만 나면 양쪽산장으로 달려가 유만석 아저씨가 끓여주던 산당귀차도 마시고 구수한 전설도 들었다. 설악을 찾은 관광객에게 “여러분이 왔다해서 와선대요 그런데 비가 와서 비선대다”라고 소개했다는 어떤 안내자의 설명도 대신 들려주었고, 설악산 이곳저곳의 바위이름과 전설도 지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른바 설악산 신스토리텔링의 창시자다. 반달가슴곰, 산양, 멧돼지, 산토끼, 하늘다람쥐, 솜다리꽃, 금강초롱, 열목어(곤돌매기), 어름치 이들은 나의 유년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처럼 항상 주위를 맴돌던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 집 주위로 눈길을 뚫고 산양이 내려왔는데 며칠 대나무 잎을 뜯어다 주어 보살핀 후 서울동물원으로 보내기도 했다.

1978년 6월 설악동 기존지구 강제철거가 마무리되면서 1960년부터 살았던 그곳을 우리는 떠났다. 뿔뿔이 흩어진 친구처럼 설악에 대한 기억도 차츰 흐려져 갔다. 하지만 설악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말려서 보관하고 있는 한국의 에텔바이스 솜다리꽃처럼 지금도 설악은 내 곁을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다. 한반도의 등허리에 우뚝 솟은 설악, 금강산과 제주도 관광 및 해외여행에 밀려나 명맥조차 잇기 힘든 설악 관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독자적이며 창의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설악산만의 독창적 킬러콘텐츠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해야 한다. 심마니이야기, 울산바위와 권금성 이야기, 백담사이야기, 삼연과 매월당이야기, 설악의 비경과 유서 깊은 산악제의, 열목어,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등의 친자연과 친환경적 생태문화적 요소로도 이미 충분한 경쟁력과 세계인의 감동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스위스라고 칭송하던 설악이 지금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내 걸음방식으로 걷지 않고 남을 어설프게 흉내 낸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다. 날로 쇠락해가는 설악관광의 현실을 보면 가슴이 저린다. 그래서 우리는 설악산 얘기를 다시 꺼내야만 하고, 설악눈꽃축제도 부활해야 한다. 설악은 눈의 원조산이며 신성한 정신적 영산이다. 또한 솜다리꽃으로 다시 핀 고 이기섭 박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설악문화제를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선인들 그리고 후대에게 우리들이 설악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설악에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실천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설악산을 둘러싸고 있는 속초·고성·양양·인제의 설악권이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에게 설악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고 정리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설악기행을 다시 읽으면서 진교준의 <설악산 얘기>라는 시를 다시 읊고 있다. “나는 산이 좋더라, 파란 하늘을 통째로 호흡하는, 나는 산이 좋더라, 설 설악 설악산이 좋더라...나는 산이 좋더라, 영원한 휴식처럼 말이 없는, 나는 산이 좋더라, 꿈을 꾸는 듯 멀리 동해가 보이는, 설 설악 설악산이 좋더라.”

[참고문헌]

- 道川面 面勢一覽, 1926
- 金迪東, 全鮮名勝古蹟, 東明社, 1929
-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 李殷相, 祖國江山, 民族文化社, 1954
- 李殷相, 노산文選, 永昌書館, 1958
- 劉昌惇, 古時調新釋, 東國文化社, 1959
-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 이은상, 산찾아 물따라, 박영사, 1966
- 雪嶽山學術調查報告書, 文教部 文化財管理局, 1967
- 鄉土誌, 襄陽郡教育廳, 1968
- 張在憲外, 第一回 海外遠程 登攀訓練隊 雪嶽山遭難調查報告書, 韓國山岳會, 1971
- 秦教俊, 설악산애기, 世紀出版社, 1972
- 黃?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 손경석, 한국의 산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 李泰極·金永琪·李昇勳, 太白의 詩文 上, 江原日報社, 1977
- 崔承洵, 太白의 詩文 下, 江原日報社, 1977
- 崔喆 譯, 東國山水記, 德文出版社, 1977
- 金在榮·金振煊, 雪岳洞開發事業誌, 江原道, 1981
- 雪岳의 뿌리, 속초시, 1982
- 雪嶽山學術調查報告書, 江原道, 1984
- 張正龍, 束草의 民俗, 束草文化院, 1987
- 成東奎, 雪岳의 秘境,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1988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출판부, 1989
-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 유창서 편, 설악산 권금성산장 글모음집, 바람이여 구름이여 설악이여, 송암출판사, 1990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손경석, 설악산, 대원사, 1993
- 崔和秀, 길러紀行 雪嶽山, 國際新聞, 1994
- 함영덕 글 성동규 사진, 설악의 물길따라, 백산출판사, 1995
- 羅州丁氏月軒公派宗會, 海左集, 瑞耿出版社, 1996
- 鄭珉 編,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4, 강원도편Ⅲ, 민창문화사, 1996
- 임양재, 한국의 자연탐험 설악산, 웅진출판주식회사, 1997
- 문순화 외, 설악산의 꽃, 교학사, 1997
- 朝鮮時代 江原女性詩文集, 강원도, 1998

- 함영덕, 청봉기는 길, 백산출판사, 1999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최낙민, 千의 姿態 雪嶽山, 신영, 1999
박명희, 조선후기 시론연구 -농암 김창협과 삼연 김창흡을 중심으로, 전남대박사논문, 1998
박그림, 산양똥을 먹는 사람, 도서출판 명상, 2000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설악산의 역사와 문화, 속초시·속초문화원, 2003
山書 제15호, 한국산서회, 2004
蔡龍生, 雪岳卷觀光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研究, 國家專門行政研修院 高位政策過程, 2004
김풍기, 강원한시의 이해, 강원학총서⑤, 집문당, 2006
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엄경선, 설악에 핀 숨다리꽃 인생, 이기섭, 속초문화원, 2008
장정룡, 설악산 울산바위전설 고찰, 속초문화 24호, 속초문화원, 2008
엄경선, 설악의 근현대인물사, 마음살림, 2009



지명조사의 중요성

- 속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

김 만 중 (속초시청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지명은 말 그대로 땅의 이름이다. 땅의 이름은 이를 적절하게 표시하고 드러나 있어야 그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런 땅의 이름이 통치 차원에서 단순히 ○○동 ○○통 ○○반 ○○번지 등으로 표시되면서 드러나 있지 않다가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새주소를 통해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서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소위 선진국형이라고 하는 도로명 중심으로 주소를 새롭게 개편하는 체제에 맞추어 잊혀졌던 땅 이름들이 이름 뒤에 ‘길’ 이나 한자어 ‘로’ 를 붙이면서 화려하게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문헌이나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오던 지명은 바야흐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놓는 시대를 접하게 된 것이다.

신라 경덕왕 대 우리 문물을 정비하면서 우리 식으로 되어 있던 많은 것들이 한자식으로 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가운데서도 지명은 이 땅 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신라로 통일되기 이전의 자기 본연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 때에 이르러 한자식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때 미처 정리되지 않은 것들은 지역 촌로들의 입을 통해 우리말이든 한자어든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해 오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하여 수많은 변천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져 온 지명은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지역에서 ‘○○시·군지(사)’ 의 한 부분 또는 ‘○○지명유래집’ 등으로 문자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지명조사는 문헌 중심의 지명 변천에 초점을 맞춰 서술되고 있다. 현재 전해오는 지명에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최근 개발사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지명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애로를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으로 개최(2009.11.21)된 “바람직한 지명유래집과 지명집 만들기”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전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명조사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문화재지표조사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명조사의 체계성이 필요하며 문헌기록만 나열하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못한 문화유산의 실례를 통해 지명조사의 필수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까지 지명조사 및 정리는 문헌 중심의 변천사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지명은 지도 위에 표시가 될 때 자신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지명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만들어지는 지명집은 단순히 세월에 따른 문자의 변동, 우리 말로 되어 있던 것을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한자로 잘못 옮겨 적은 사례뿐만 아니라 지도에서 직접 구현될 수 있는 지명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2. 문화재지표조사와 지명조사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상흔을 딛고 각 방면에서 개발의 기치를 올릴 때 문화에 대한 관심도 관련 법령의 정비도 이루어졌고 필요에 의해서 문화재조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온 국토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발로 인해 사라질 문화(자연적 자료를 포함한 모든 인문학적 자료)에 대한 우려로 법령의 강화를 통하여 일부이기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문화재의 조사는 각종 개발사업이 벌어질 경우나 각 지자체, 연구기관, 개별 연구자의 학문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정적 절차¹⁾에 의해서 처리되고, 학문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 및 논문 발표라는 형식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할 때는 고고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지질을 포함한 자연과학적 자료, 문헌자료 조사와 함께 지명 등과 관련하여 현장 탐문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및 제91조,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2008. 6. 10. 개정)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내용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1)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2)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2) 현장조사	○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 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의 좌표값(경위도-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 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 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외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10)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1)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3) 탐문 및 설문조사	○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 표 1 〉 문화재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규정 제7조 관련)

그리고 이를 정리한 지표조사보고서에는 반드시 지명과 관련한 자료를 신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문화재지표조사과정에서 지명조사는 기존에 나와 있는 각 지역의 시·군지(사)나 지명(유래)집 등을 통해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발췌본 정도를 싣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다. 그나마 학술조사의 경우 지명조사는 기존 문헌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개발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반되는 지표조사의 경우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여건상 문헌조사에 투입되는 시간보다 현장의 고고학적 조사에 주력하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지명조사를 통해서 때로는 고고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문헌 점검과 이에 따른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우리 역사의 일부분을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속초·양양 지역에서 행해졌던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서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다. 조사내용	1) 공통사항 (1) 문헌조사 내용 (2)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3)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문화재,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4)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서술 (5)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6)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축척 1/5,000 ~ 1/10,000 내외의 지형도 또는 해도(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 분포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7)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척지도에 표현(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 표 2 〉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규정 제9조 관련)

3. 사례를 통해 본 지명조사의 문제

가. 속초포 만호터

속초 중심부로부터 남서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척산리는 노학동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마을 중의 하나이다. 척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만호터는 조선 초 이래로 청초호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동안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속초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학술조사에서조차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²⁾

그러나 최근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지표조사³⁾를 통해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속초포만호터의 위치가 대강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척산리 지역의 자연마을명과 위치를 서로 추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2)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7,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3,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건설사업 제6·7공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속초시의 문화유적분포지도

3)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속초 노학동 척산온천 관광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위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는 속초포 수군 만호영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속초지역에 위치하였던 만호터에 대하여 전해지고 있는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수군만호가 지키는 곳이 여섯 곳이다. 월송포는 평해 동쪽에 있다.(배 1척, 수군 70) 속초포는 양양 북쪽에 있다.(배 3척, 수군 210), 강포구는 고성 남쪽에 있다.(배 3척, 수군 196), 삼척포는 부의 동쪽에 있다.(배 4척, 수군 245) 수산포는 울진 남쪽에 있다.(배 3척, 수군 191), 연곡포는 현의 동쪽에 있다.(배 3척, 수군 191)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양양도호부 산천조

쌍성호 : 부 북쪽 40리 간성군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동국여지지” 강원도 양양도호부 산천조

쌍성호 : 부 북쪽 40리 간성군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여지도서” 양양부 산천조

쌍성호 :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사십리에 있다. 둘레는 이십리이고, 호수의 경치는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지” 양양부 산천조

쌍성호 :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사십리에 있다. 둘레는 이십리이고, 호수의 경치는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다. 폐하였다.

“관동읍지” 양양부 산천조

쌍성호 :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사십리에 있다. 둘레는 이십리이고, 호수의 경치는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강원도지” 양양

쌍성호 : 군 북쪽 4리에 있다. 둘레가 2리 남짓으로 호수의 아름다움이 영랑포보다 낫다. 옛날에 만호영을 두어 병선이 정박했다. ○ 지금은 폐했다.

“한국지명총람”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 . . . 어귀쪽은 동해 바다에 잇대어 있어서 이조 때 수군만호영을 두고 병선을 정박시킨 일도 있으며, . . .

“속초의 지명” 노학동 척산리

만호첨사유허(萬戶僉使遺墟) : 탄봉 마을에 있는 터. 예전에 수군 만호 첨사(水軍 萬戶 僉使)가 거느린 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속초의 옛땅이름” 노학동 척산리

만호첨사유허 : 탄봉 마을에 있는 터. 예전에 수군만호첨사가 거느린 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현재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속초포’는 ‘속초’라는 지명이 확인되는 문헌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으로 확인⁴⁾되고 있다. 이 때 속초포는 당시 수군만호처 6개소 중 선박과 수군의 수적인 면에서 강원도의 수군사령관 격인 삼척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의 문물이 정비되던 시기였던 “경국대전” 편찬 무렵에 폐지되고 있다. 이 때에 이르러 삼척포는 만호영에서 수군첨절제사가 지휘하는 곳으로 격상되었다. 다른 5개 만호 중 유일하게 속초포만 폐지되었고, 월송포는 현상을 유지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이름 변경 또는 위치를 같은 지역 안에서 옮긴 것으로 추정(강포구 → 고성포, 수산포 → 울진포 / 연곡포 → 안인포)된다.

이렇게 잠깐 조선 초기에 보였던 속초포는 이후 지리지 등에서 청초호(쌍성호)에 만호영이 있었다는 기록으로만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해방 이후 지명집 등에 기록이 되고 있다. ‘속초’라는 지명은 “세종실록”에 잠깐 보였다가 이후 지리지 등에서 찾아볼 수 없다가 “여지도서”가 편찬되는 시기에 양양군의 동리명으로 나타난다.

만호수어처	위치	舡	艘軍
강포구	고성 남	3	196
속초포	양양 북	3	210
연곡포	현 동	3	191
삼척포	부 동	4	245
수산포	울진 남	3	191
월송포	평해 동	1	70

〈 표 3 〉 “세종실록” 지리지의 수군만호처

수군절도사(1)	수군첨절제사(1)	수군만호(4)
관찰사겸임	삼척포진	안인포, 고성포, 울진포, 월송포

〈 표 4 〉 “경국대전” 강원도 수군관직도

4) 주상훈, 1998, ‘속초 역사의 흐름’, “속초문화 제14호”, 51쪽.
속초문화원, 2002, “속초의 옛 땅이름”, 15쪽.

이렇게 현재 속초시의 지명 어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속초포는 잊혀진 존재로 남아 있었다. 문화재지표 조사⁵⁾에서 확인된 조선초기 유물산포지의 위치는 그동안 지리지에서 보였던 청초호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 쉽게 단정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양양 조산리의 대포영 사례를 보듯이 현재의 지형과 당시의 지형을 동일하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 문화유적의 존재는 현재 전하고 있는 지명과 현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에 정리된 기록에는 ‘속초포 만호터’가 ‘만호침사유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전되어 전해져 오던 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일 것이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침절제사는 병영의 병마침절제사와 수영의 수군침절제사로 구분되며 이들은 모두 종3품의 품계를 지녔다. 그리고 원래는 다스리는 민호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호, 천호, 백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호의 수와는 상관없이 장수의 품계를 나타내는 말로 변모되면서 만호로 통일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종4품의 품계를 지닌 관직이었다.

따라서, 만호와 침사는 병립할 수 없는 단어인데 함께 쓰인 것은 만호영이 폐하고 난 후 구전을 통해 전해지는 과정에서 만호는 관직의 위계를 나타내는 품계보다는 주둔부대의 뜻으로 변용되고 그 뒤에 관직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던 침사(침절제사)를 붙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노학동을 이루고 있는 척산리의 자연마을이나 지명 중 만호터를 중심으로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락봉 : 척산리(尺山里) 마을 중의 하나. 남동쪽 마을이다.
- 마차장(馬馳場) : 마을 동쪽 산기슭 벌판. 이전에 말을 기르던 곳으로 추정된다.
- 만호침사유허(萬戶僉使遺墟) : 락봉 마을에 있는 터. 예전에 수군 만호 침사(水軍 萬戶 僉使)가 거느린 부대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 물안골 :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주봉산(朱峰山)으로 이어진다.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사당골 : 마을 동쪽 응골 마을과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 패를 지어 다니며 노래와 춤을 펼던 사당패들이 거처한 데서 이름이 유래된 것 같다.

척산온천장과 과수원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락봉 마을 사이에 있는 나지막한 구릉이 속초포 만호터이며, 이 마을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응골과 경계하여 사당골이 위치하고, 설악산 줄기인 주봉산 쪽의 마을이 물안골일 것이다. 그리고 도로공사연수원 산줄기 뒤편으로 노리쪽으로 연결되는 벌판이 마차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5) 예맥문화재단연구원, 2008, 속초 노학동 척산온천 관광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나. 속초리토성

속초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동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속초리 토성’은 전근대 이전에 쓰여진 자료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속초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학술조사에서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⁶⁾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기록은 이후 지명조사에도 나타나고 있으나, 현장 확인이 되지 않은 기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곳에서 소토 및 기와편 등이 출토되고 있어 기록의 신빙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다. 토성의 외곽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현재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내부에는 가옥 등이 집단으로 들어서 있어 과거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지역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토성에서 사용하였던 우물터가 있었다고 한다. 과거 동해북부선 철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성의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일부 성곽이 훼손되었을 것이며 최근 과거 철길을 따라 4차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토성에 대한 정밀조사의 시급히 진행하여 그 실체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속초 토성이 기록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강원도 양양군

성지 도천면 속초리. 사유. 속초리 부락의 서쪽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

“한국지명총람” 강원도 속초시

장골(장안골): 속초리 서북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옛 성이 있었다 함.

“속초의 지명”(향토사료집 4집) 동명동

장골: 법원·검찰청과 감리교회·천주교회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돌레에 성터 흔적이 있었다. 일제시대에 발행된 《조선 보물·고적 조사 자료(朝鮮寶物·古蹟 調査 資料)》에 수록된 ‘속초리 성지(束草里 城地)’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명 장안골이라고도 했음.

“속초의 옛 땅이름” 동명동

장골(장안골): 법원·검찰청과 감리교회·천주교회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돌레에 성터 흔적이 있었다. 일제 시대에 발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수록된 ‘속초리 성지(束草里城地)’는 바로 이곳을 말한다. 일명 장안골이라고 했다.

조선시대에는 속초가 읍치의 중심지가 아닌 양양과 고성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 토성의 존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전국적인 고적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을 터인

6)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7,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속초시의 문화유적분포지도.

데 해방 이후 지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도읍이나 읍치의 중심에나 사용할 수 있는 '장안골'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역사적 뿌리가 인근 지역에 비해 그리 깊지 않은 속초지역에서 토성내 마을을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 하여 장안골이라 하지 않았을 까 사료된다. 이는 전국에서 지역 상권의 중심이 되는 곳을 명동이라 칭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안골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 지역은 현재도 그 지명으로 불리고 있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우렁골(우옹골): 현재 시외 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골짜기의 옛 이름.
- 응고개: 우렁골에서 용숫골로 가는 고개의 옛 이름. 현재 시외버스정류장에서 공설운동장, 중앙시장입구로 가는 고개.
- 장골: 법원·검찰청과 감리교회·천추교회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돌레에 성터 흔적이 있었다. 일제시대에 발행된 《조선 보물·고적 조사 자료(朝鮮寶物·古蹟 調査 資料)》에 수록된 '속초리 성지(束草里 城地)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명 장안골이라고도 했음.
- 촌말: 우렁골과 용숫골 사이의 마을을 부르던 옛이름. 현재 경찰서 뒷편 마을이다.

장안골을 중심으로 하여 우렁골과 촌말은 지금도 새주소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으며 그 위치도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시외버스가 지나다니는 길에 위치하고 있는 응고개의 경우 '변영로' 라고 하는 큰 도로 이름에 밀려 제이름도 아닌 '응고개' 로 본의아니게 개명이 된 채 중앙초등학교쪽에서 변영로와 연결되는 소도로의 이름이 되어 버렸다. 지명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제 때에 하지 못하면 잘못된 이름이나 정체모를 이름이 정착되는 사례를 만들 것이다.

다. 청대산 정상 건물지

속초 중심부로부터 남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청대리는 조양동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마을 중의 하나이다. 마을 뒤에 있는 청대산 밑이 되므로 청대리라고 하였다. 청대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지는 정확한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고 속초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학술조사에서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나,⁷⁾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실시한 문화재지표조사⁸⁾에서 무문토기편과 함께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어골문평기와가 수많은 기와편들이 수습되어 어느 시기에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청대산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등산하던 시민에 의하여 정상부의 유적이 일부 훼손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앞선 지표조사에서 유적의 위치를 잘못 표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개발사업에 의한 구제발굴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⁹⁾에서 건물지와 성황당과 연관되어 있는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어 건물지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7)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7,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8)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3,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건설사업 제6·7공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속초시의 문화유적분포지도

9)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속초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이 건물지와 관련되어 청대리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지명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속초의 지명” (향토사료집 4집) 조양동 청대리

산지당골 : 현재 속초상고(束草商高)가 들어선 골짜기, 이전에 산 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로 변화됨.

“속초의 옛 땅이름” 조양동 청대리

산지당골 : 현재 속초상고(束草商高)가 들어선 골짜기, 이전에 산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로 변화되었다.

산신당과 관련하여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통해서만 찾아야 하는데, 1967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마을제당 현황조사¹⁰⁾에서 속초지역에서는 17개소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대산 또는 청대리에는 산신당이나 성황당이 조사되지 않아 이미 이 시기에 청대리 제당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폐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에 행해진 동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정상부에서 할석으로 이루어진 교란된 적석유구가 확인되었는데 명문기와를 포함한 기와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으며, 유구 내에서는 철마 등의 철기편과 분청사기편, 6·25전쟁 당시에 사용되었던 쓰레기와 탄피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산 정상부 주위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할석으로 이루어진 석축이 기와편과 함께 확인되었다.

청대산 정상에서 확인된 적석유구와 석축의 용도는 인근 주민의 전언과 적석유구에서 출토된 철마와 빗장 등의 철기로 추정하여 볼 때 성황당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¹¹⁾ 정상에 올라서면 동해와 인근의 덕산봉수, 북쪽의 삼포봉수, 남쪽의 수산봉수와 설악산 및 속초시내가 한눈에 파악되는 이 지역이 단순히 산제당으로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1960년대 강원도의 성황당을 정리한 기록¹²⁾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고려시대 것으로 판단되는 기와 등으로 봤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이 후대에 이르러 성황당의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방공호 설치로 인하여 건물은 훼손되었을 것인데 성황당이 언제까지 존재하였다는 정확한 증언을 좀 더 확보하여 관련 기록과 발굴조사 성과를 연관시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철마로 추정되는 쇠가 나왔으며 일부 전언에 의하여 산제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대산 인근의 자연지명을 산지당골을 중심으로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범바위 : 산지당골에 있는 바위. 예전에 바위 밑 굴에서 범이 새끼를 쳤다고 함.
- 산지당골 : 현재 속초상고(束草商高)가 들어선 골짜기, 이전에 산 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당골로 변화됨.

10)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마을제당 -제2권 강원도편.

1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속초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2)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마을제당 -제2권 강원도편.

- 청대산(靑岱算) : 마을 남쪽 중도문리(中道門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230m, 소나무가 무성하여 푸르름으로 청대산(靑岱山)이라고 한 것 같다. 부근에서는 모두 청두산이라고 발음한다.
- 큰골 : 마을 뒤(남쪽) 청대산(靑岱山)으로 향한 큰 골짜기. 동편은 산지당골이고 서편은 덩박골이다.
- 덩박골 : 마을 뒤(남쪽) 큰골과 할미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현재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음.
- 할미골 : 마을 뒤(남쪽) 덩박골과 가시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가시나무골 : 마을 뒤(남쪽) 할미골과 황새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 가시나무가 많음.
- 매자 : 마을 한가운데를 일컫는 말. 마을과 큰골 사이에 약 300년 정도된 단양(丹陽) 장씨(張氏) 조상묘인 큰 봉분이 있는데, 풍수지리상 반복치형(半伏雉形)이라고 한다. 매가 꿩(雉)을 잡는 새임을 고려하면, 위의 사실과 매자라는 지명이 관련이 있는 듯하다.
- 연화동(蓮花洞) : 마을 서쪽 할미골 입구를 말하는데, 풍수지리상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연화동(蓮花洞)이라고 한다.
- 작은골 : 큰골에서 왼쪽으로 갈라진 작은 골짜기.
- 장사바위 : 큰골에 위치한 바위.

청대리 마을의 뒷산인 청대산으로 이어진 골짜기가 산지당골이며 그 서편에 큰골이 있다. 큰골을 중심으로 하여 서편으로 덩박골, 할미골, 가시나무골, 황새동이 이어지며, 큰골안에는 장사바위가 있고, 골짜기 안쪽 왼편으로 작은골이 위치한다. 산지당골 안에는 범바위가 있으며, 할미골의 입구에는 연화동이 위치하고 있다.

라. 서선사터

양양읍내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44번 국도상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서면이다. 서면소재지인 상평리에서 양양철광산 쪽으로 가다보면 나타나는 마을이 장승리와 서선리(서선리)인데, 서선리의 안쪽에 소재하는 마을이 탑동 마을이며 이곳에 예전에 서선사가 있었다.¹³⁾

서선사는 지리지의 사찰조나 고적조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조에 철의 생산과 관련한 기록이 처음 보이고 있으며, 이후 “동국여지”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지역 내에 있었던 모든 사찰을 정리하였던 “현산지”에서도 서선사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 이미 조선 전기 이전에 이름마저 없어져 양양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학술조사¹⁴⁾와 불교유적 조사¹⁵⁾에서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서선사와 관련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양양부 토산조

철 : 서선사 동쪽 봉우리 밑에서 나온다.

13) 홍영호 · 김만중, 2001, ‘양양지역 폐사지 조사-서선사와 개운사를 중심으로.’ “강원지역문화연구” 창간호.

14)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4,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5) 양양문화원, 1998, 양양의 범등.

“동국여지지” 강원도 양양부 토산조

철 : 서선사 동쪽 봉우리 밑에서 나온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강원도 양양군

사지, 서면 장승리, 탑동부락의 서쪽방향으로 약 250간 정도 되는 밭 가운데에 있다. 탑 1기가 있는데 불완전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일부분이나마 이름이 확인되고 있는 서선사는 조선시대에는 그 존재가 거의 잊혀졌으나 일제강점기 조사에서 절터의 흔적과 함께 탑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웬만한 관련 자료를 방대히 담고 있는 “현산지”에 진전사지탑도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서선리가 워낙 깊은 산골이라 지리지를 편찬할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조선 전기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던 서선사는 문헌상에서는 사라졌다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존재하다가 “조선지리지”에 ‘西仙里(괘목기)’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자료에 보이고 있다.

- 서선리(西仙里) : 본래 양양군 서면의 지역으로서, 성황당고개 밑에 있으므로 서선(西仙)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선리라 함.
- 성황당고개(서낭당고개, 성황현) : 서선리에서 양양면 파일리로 넘어가는 고개, 성황당이 있음
- 장승리 : 본래 양양군 서면의 지역으로서 장승이 있었으므로 장승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흑간이, 도목, 들떨골, 탑골을 병합하여 장승리라 함. 철광이 있어서 매우 번창함.
- 절터골 : 절터가 있는 골짜기
- 탑골(탑동) : 흑간리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탑이 있음.

위 기록에서 보듯이 장승리와 서선리는 실제 마을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길이 여러 갈래이다 보니 현재는 탑동이 서선리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마을이지만 “한국지명총람”이 쓰여지던 시기에는 탑동은 장승리의 한 마을이었다. 지역 주민에 의하여 탑동에 있던 탑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가져갔다고 하나¹⁶⁾ 1960년대까지 탑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선리(西仙里)는 지명유래가 성황당 고개 밑에 있어서 생긴 지명이라고 하나 조선전기까지 존재하였던 서선사(西禪寺)가 폐하고 서선리 마을도 장승리에 속해 있다가 분리를 할 때 마을 지명을 지을 때 기존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서선’이라는 지명을 붙였을 것이며 이것을 한자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록은 이미 잊혀진 상황에서 음만 남아 기록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장조사와 문헌기록의 대조가 없었더라면 서선리의 마을 유래는 그냥 지명집 등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을 것이나, 정확한 유래가 확인되는 자료가 나왔으므로 새로운 지명집을 만들 때에는 이런 점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16) 홍영호·김만중, 2001, ‘양양지역 폐사지 조사-서선사와 개운사를 중심으로.’ “강원지역문화연구” 창간호.

4. 맺음말

이상에서 문화재지표조사과정에서 지명조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명의 뜻과 소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시기를 놓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속초 만호터와 양양 서선리의 경우 해당 지역에 문화유적이 없어진 뒤 명칭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가 지명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부차적인 의미가 붙거나 동음이의어로 새롭게 되어나면서 지명유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으나 문헌기록에 의거한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지명의 정확한 유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속초리 토성과 속초 청대산 건물지는 지명에 문화유적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을 게을리한 탓에 개발의 위협으로부터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지명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이렇듯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지명조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중요한 문화유산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에 우선하여 문헌기록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조사시 문헌으로만 조사한 지명의 서술에 그치는 것이 현지인과의 대면접촉을 통하여 지도상에 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지명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로 인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 지명을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지명집은 단순히 문자의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위에 표시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지리부도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명집을 제작할 때 역사학, 국어학, 지리학 등 연관있는 학문을 전공한 사람을 되도록 많이 참여시켜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형도와 사진 위에 지명을 입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명의 어문학적 변천과정의 서술이나 기록으로 남는 과정에서 잘못 기술된 사례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지명집을 만들어야 향후 그 지명집을 이용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 실버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편집부

1. 실버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배경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버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은 매년 커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속초문화원은 2008년 한 해 동안 2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했다. 2007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통해 배출된 실버예술단의 '악극' 공연을 총 20회 공연하였고, 8월부터 11월까지 속초 아바이마을에서 실버 해설사를 양성·운영하였다.

실버악극단의 운영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나, 공연장 부족 및 관람층 개발의 한계에 부딪쳐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가야금'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연극을 비롯해 가야금, 사물, 서예 등의 장르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의의도 살릴 수 있는 실버예술단으로 만들 예정이다.

반면, 강원도 노인복지기금을 통해 발족한 실버문화해설사는 2009년도에 속초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대중 앞에 지역 문화관광의 다양한 측면을 해설하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지만, 관광 현장의 최일선에서 관광객과 직접 대면하며 활동을 한 실버해설사의 필요성에 대해 시가 인정을 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속초문화원은 전년도 참가자 8명을 비롯해 24명의 어르신을 선발하여 한달 간의 교육과 6개월의 현장배치를 통해 실버 문화관광 해설사 사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2. 실버 문화관광 해설사 사업추진 과정

1) 사업개요

- 사업명: 실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사업기간: 2009. 4. ~ 7중순
- 참여대상: 속초시 관내 60대 이상 실버
- 배정일자리수: 24명

2) 사업타당성 분석

속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를 도시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계절 축제와 다양한 문화이벤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문화관광 도우미의 역할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문화해설사는 속초시립 박물관 내에 정주하여 있기 때문에 관광 현장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의 역할에 제한이 있었다. 속초 8경이나 관내 문화재 등 문화관광 도시 속초의 문화콘텐츠에 내실을 기하고 생생한 문화체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에 정주하여 활동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기존의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노인들이 지역의 문화발전에 직접 기여하게 되는 생산적 일자리로서 일회성을 벗어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중요 문화관광 거점 장소에 정주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해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당 장소의 관광객 유입현황을 파악하는 등 속초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3) 세부사업 내용

가. 근무조건

- 활동내용 : 문화관광 해설
- 활동지역 : 속초 관내 문화관광지 4곳 (아바이마을, 청초호, 동명동 등대, 영랑호)
- 근무시간 : 1일 3시간, 주 3일 근무(월 36시간)
- 배치방법 및 인원 : 2인 1조(1개소당 8명×3개소=24명)
- 보수수준 : 월 20만원

나. 사업관리

- 근무지 선정 : 속초의 대표적 문화관광지 4곳 선정.
- 근무 관리 : 설문조사를 통한 업무일지 대체, 월 1회 간담회
- 휴무일 : 월요일
- 기타사항
 - 실버 문화해설사 교육 기간 1달
 - 기상악화시 휴무(대체교육은 월 1회 이상의 종합교육 실시)
 - 속초시 문화행사 홍보물 배포
 -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지 작성 후 그 분석자료를 속초문화 관광 발전의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함.

다. 교육 일정 및 내용

① 문화해설사 교육 : 속초시립박물관 위탁

일시		강좌명	교육목표
4.14 (화)	13:00~13:20	개강식	· 강사 소개 및 강의 계획 안내
	13:30~14:20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 속초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4:30~15:00	문화재의 의미와 역할	· 문화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15 (수)	13:00~14:00	관광친절 서비스 교육	· 관광서비스마인드를 갖출 수 있다.
	14:00~15:00	속초시의 주요 문화재	· 속초시 문화재 현황을 알 수 있다.
4.16 (목)	13:00~14:00	박물관 문화촌해설 현장견학	· 현장 견학을 통해 문화해설의 기초를 습득한다.
	14:00~15:00		
4.17 (금)	13:00~14:00	숲 해설 체험	· 현장 견학을 통해 문화해설의 기초를 습득한다.
	14:00~16:00		
4.20 (월)	10:00~12:00	속초 8경 관광해설 이론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근무지의 문화해설 자료를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4.21 (화)	13:00~14:00	관광해설의 설명기법	· 관광 설명기법을 습득할 수 있다.
	14:00~15:00	박물관 해설 시연	· 박물관 문화해설사의 해설기법을 배울 수 있다.
4.22 (수)	13:00~15:00	현장 답사 및 해설 시연	· 현장 견학을 통해 문화해설의 기초를 습득한다.
4.23 (목)	13:00~15:00	현장 답사 및 해설 시연	· 현장 견학을 통해 문화해설의 기초를 습득한다.
4.24 (금)	13:00~15:00	교육 총평 및 소감 발표	

3. 운영 결과

1) 설문조사를 통한 문화관광 기초 통계 조사 확보

사업 대상자들이 문화해설을 능숙하게 할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속초 문화관광 관련 기초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지를 관광객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고 속초 문화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 결과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도출하여 차기년도 사업에 적용가능한 분석자료를 발표하여 시의회 및 속초시 관광 담당부서에 전달할 수 있었다.

2) 속초시 대표 관광지의 현장민원 청취

실버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주말마다 고정된 근무지에 배치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을 청취하여 매월 종합 평가시간에 발표를 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지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대 효과

속초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실버 문화관광 해설사 사업은 실버세대와 문화원, 지역사회가 함께 '문화'를 매개로 지역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약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교육의 대상자인 실버세대는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며, 지속적인 자기계발 욕구와 사회적 역할의 참여를 통해 의미있는 삶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속초문화원은 실버예술단을 비롯해 다양한 '실버문화'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단체들과 협력관계 유지로 문화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문화의 맥을 전달하는 종합문화예술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속초시도 실버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해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에서 일대일 홍보를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관광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한 점은 실버문화관광 해설사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분석】

- 본 질문은 관광객들의 속초 관광 목적에 관한 질문으로 가족과의 휴양과 친구·동료와의 휴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0%를 차지한다.
- 축제 및 이벤트의 참가는 조사시기에 관련 축제나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관내 문화시설 탐방 답변이 저조한 결과를 통해 속초의 문화인프라가 시급함을 엿볼 수 있다.

▣ 3번 문항 및 결과

3. 속초의 축제 중 만족도가 높은 축제는 무엇입니까?

- ① 설악문화제 ② 속초불축제 ③ 대한민국음악대향연 ④ 속초젓갈축제
- ⑤ 양미리축제 ⑥ 정월대보름맞이행사 ⑦ 오징어맨손잡기축제 ⑧ 학사평 순두부축제
- ⑨ 설악의 작은콘서트 ⑩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 ⑪ 참여한 적 없다.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빈도(명)	290	43	155	52	67	29
유효퍼센트	22.73%	3.37%	12.15%	4.08%	5.25%	2.27%
문항	⑦	⑧	⑨	⑩	⑪	⑫
빈도(명)	91	23	40	17	469	
유효퍼센트	7.13%	1.8%	3.13%	1.33%	36.76%	

【분석】

- 본 질문은 관광객들이 속초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이다. 가장 많은 답을 얻은 축제는 설악문화제로 응답자의 22.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음악대향연(12.15%), ‘오징어맨손잡기축제’ (7.13%), 양미리축제(5.25%) 순이다.
- 속초불축제(3.37%)와 젓갈축제(4.08%)의 경우 답변자가 적었는데, 축제의 역사가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가장 많은 답변은 축제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36.76%를 차지했다.

▣ 4번 문항 및 결과

4. 위 속초의 축제 중 만족도가 낮은 축제와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축제명 :)

- ① 행사내용(체험 및 이벤트) 불만족 ② 행사장 볼거리 부족 ③ 행사 홍보의 불만족
 ④ 편의시설(주차·휴게시설) 부족 ⑤ 프로그램의 차별성(지역문화) 부족 기타()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빈도(명)	88	285	150	99	232	96
유효퍼센트	9.27%	30%	15.79%	10.42%	24.42%	10.1%

【분석】

- 본 질문은 속초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만족도가 낮은 축제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축제명을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실한 결과를 낳았다. 내년 사업에서는 설문조사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 축제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답변은 '행사장 볼거리가 적음' (30%)과 '프로그램의 차별성(지역문화) 부족' (24.42%)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한 '행사홍보의 불만족' (15.79%)도 상당수 차지하여,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5번 문항 및 결과

5. 속초 관광지 중 만족도가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1개 이상 가능)

- ① 석봉도자기미술관 ② 속초시립박물관및실향민문화촌 ③ 청호동 아바이마을(갯배)
 ④ 대조영세트장 ⑤ 워터피아 ⑥ 중앙시장(수산물시장) ⑦ 대포항 ⑧ 동명항 ⑨ 장사항
 ⑩ 영랑호 ⑪ 화랑도체험장 ⑫ 테디베어팜 ⑬기타()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빈도(명)	48	147	309	111	280	97
유효퍼센트	2.84%	8.7%	18.29%	6.57%	16.58%	5.75%
문항	⑦	⑧	⑨	⑩	⑪	⑫
빈도(명)	246	229	20	106	33	63
유효퍼센트	14.56%	13.56%	1.19%	6.28%	1.95%	3.73%

【분석】

- 본 질문은 속초의 대표적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다.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곳은 '청호동 아바이마을(갯배)'로 18.29%의 답변이 나왔다. 다음으로는 '위티피아' (16.58%), '대포항' (14.56%), '동명항' (13.56%), '속초시립박물관및실향민문화촌' (8.7%) 순으로 드러났다.
- 속초의 문화색깔이 뚜렷이 드러나는 '갯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은 속초의 문화관광 방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즉,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속초만의 자생적 문화가 중요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6번 문항 및 결과

6. 관광지 속초가 고쳐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1개 이상 가능)

- ① 지역 고유문화 체험 ② 관광 서비스 부족 ③ 문화시설(박물관 등) 부족
- ④ 먹을거리 부족 ⑤ 바가지 요금 관광홍보 부족 기타()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빈도(명)	140	279	157	126	341	131	129
유효퍼센트	10.75%	21.41%	12.05%	9.67%	26.17%	10.05%	9.9%

【분석】

- 본 질문은 관광지 속초에 대한 불만족 이유에 대한 조사이다. '바가지요금' (26.17%)과 '관광 서비스 부족' (21.41%)에 대한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질문 자체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7번 문항 및 결과

7. 지금 이곳은 속초 8경의 하나입니다. 속초 8경 중 만족도가 높은 곳을 적어주세요.

문항	외옹치	범바위	청초호	조도	영금정	청대산	해맞이공원	학무정	기타
빈도(명)	3	65	91	10	81	10	12	3	262
유효퍼센트	0.56%	12.1%	16.95%	1.86%	15.08%	1.86%	2.24%	0.56%	48.79%

【분석】

- 본 질문은 속초 8경에 관한 관광객 인지도 조사이다. 그 결과 청초호(16.95%), 영금정(15.08%), 범바위(12.1%)가 인지도가 있었고 나머지 5곳은 급격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설문조사 장소가 속초 8경임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속초8경을 모른다는 답변이 절반에 가까운 48.79%가 나온 점은 속초 8경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속초 관광산업의 또 다른 도약

-척산온천 휴양촌 관광개발 프로젝트

편집부

올해로 척산 온천 휴양촌이 개관한지 24주년이 되었다. 척산 온천 휴양촌은 지난해에 巢鶴레저개발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바꾸고 오랜 숙원이었던 대단위 온천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척산온천이 속초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 기여한 바를 생각한다면 척산온천 휴양촌의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속초 관광산업의 또 다른 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척산온천 휴양촌의 탄생과 향후 비전을 담아 보았다.(편집자)



지난 해부터 시작한 척산온천 휴양촌의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총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4층 38,326㎡ 규모의 일명 월드스파 1동을 비롯하여 온천 빌라 8개동 등 수개의 노천탕과 물놀이 시설 키즈캠프 등을 시설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중탕 및 호텔은 호텔전용으로 리노베이션하게 된다.

2단계 사업으로는 설악예방의학센터,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 체류형 키즈캠프, 기업연수원, 설악갤러리 등을 시설한다. 총사업비는 1,300억 원으로 1단계 사업에 500억 원, 2단계 사업에 800억 원 등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의 규모로 살펴볼 때 척산온천 휴양촌의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소학레저개발주식회사 대표 임정희 회장(여, 78세)의 피나는 노력과 애환이 깃들여 있다.

일찍이 레저산업에 뛰어 들었던 임회장은 43세가 되던 1973년 10월 온 나라가 에너지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온천개발로 에너지 활용에 뜻을 두고 이곳으로 이주 정착하게 되었다.

온천의 효험으로 전국적인 명성 얻어

이곳은 원래 예부터 온천수가 자연히 솟아나 그 못의 주변에는 겨울에도 초목이 과량게 자랐으며, 부락 아낙네들의 빨래터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건설에 의하면 이곳에서 상처 입은 암환이 치료되어 날아가

고, 눈 덮인 겨울에 빨간 뱀 한 쌍이 목욕을 하였다고 한다. 이곳이 온천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인근 주민들이 상처를 비롯한 피부질환이 생기면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큰 효험을 보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국 도처에서 모여들어 인근 소나무 숲에 머물면서 온천 물을 마시고 씻으며 병을 치료했다고 하여 유명해졌다.

이러한 전설과 속설로 인해 일제시대부터 온천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온천맥을 찾지 못해 실패를 거듭하였다. 1960년 후반에는 이곳 지주인 이화백(이화백)씨가 온천수 시추를 하였으나 그 역시 온천맥을 찾는데 실패하고 속초시에 자신의 토지 499평을 온천수 개발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기에 이른다.

그 후 시에서 온천수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온천맥을 찾지 못하고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이화백씨는 기부채납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워 토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곤경에 처한 속초시는 사유지 499평을 이용하여 온천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임정희 회장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온천수 발견에 성공하게 되었다.

임회장은 속초시 사유지를 임대받아 국립지질광물연구소에 척산지구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온천수 부존량 조사를 하고, 900만원을 투자하여 굴진작업을 실시하여 시추작업을 한 지 3개월만에 온도 47℃의 온천수를 일일 200톤 용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피와 땀으로 일군 온천 개발

임정희 회장은 온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1974년 사유지 499평과 동 부지위에 있는 40평형 사유건물 1동을 함께 임대받아 “척산 온천탕”이라는 이름의 온천 대중탕을 운영하기에 이른다. 임회장이 온천개발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온천법이 정립되지 않아 인허가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도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중앙이나 도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 임회장이 국회·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웃지 못할 일도 자주 발생하는 형편이었다. 그 예로 온천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임회장이 직접 미국·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동경 이와나미 서점 발행 『법률학 사전』을 구입하여 우리말로 번역, 관계 당국에 제공하기도 하였을 정도였다. 임회장은 이 자료가 우리나라 온천법 정비에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보람된 일로 회고하곤 한다. 이밖에도 온천개발을 위해 중앙부처와 강원도, 속초시 등을 찾아다니며 지원과 협조를 구하는 노력 끝에 지금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1983년 그간 임대하여 사용해 오던 사유지 499평을 우여곡절 끝에 속초시로부터 매수하고 온천시설에 필요한 인근부지 1,491㎡를 확보하여 현재의 시설인 온천시설과 호텔, 상가 등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4,018㎡를 16억원의 투자규모로,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건축허가를 얻어 1983년 7월 착공하여 1984년 5월 19일 마침내 준공과 함께 개관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축하행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정희 회장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내가 이루었다며 남다른 감회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 시설은 2004년 대대적인 내부정비를 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7개의 온천공을 개발하여 일일, 5,316톤의 적정 양수량과 53도의 알칼리성 온천수로 연간 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아심 찬 척산 온천 월드스파 건립 계획

척산 온천휴양촌은 임정희 회장의 땀과 피가 혼합되어 이루어 낸 평생의 역작이다. 1973년 43세에 레저 산업의 초년병으로 뛰어들어 백발이 성성한 70대 후반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 40여 년간 모든 정열을 쏟아 부은 곳이다. 또한 속초의 관광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대표적 관광 자원이기도 하다.

임회장은 개관 이래 착실히 키워온 척산 온천 휴양촌을 국내 유일의 경쟁력 있는 우수한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국내 온천분야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2006년과 2007년에 세계적인 온천 휴양지인 독일, 일본과 동남아 등 10여 개국을 돌며 벤치마킹을 하였고, 2년여 동안의 작업을 통해 종합적인 온천관광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이다.

청정 설악의 수려한 경관과 최상질의 온천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척산 온천을 국내의 다른 시설과 차별화 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마련된 “척산 온천 월드스파”는 한평생 온천만을 위해 몸바쳐온 임정희 회장의 온천사업 대미를 장식하게 될 역작이다.

이 계획은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온천”으로 개발목표를 정하고, 운영 컨셉을 가족과 함께 즐기는 세계 온천문화체험과 체류형/맞춤형 환대 서비스 그리고 고품격 Medical SPA Tourism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잘 드러내는 공간테마와 국내 최대 규모의 가든형 테마노천 그리고 동서양의 대체 의학이 접목된 기능풀, 유럽형 테라피센터, 어린이 휴양시설 등 가족 휴양온천개념으로 꾸며지게 된다. 또한 제대로 된 온천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교사에 의한 키즈캠프, 스토리텔링의 테마노천탕, 즐거운 워터파크와 맞춤형 전문바데풀, 유럽형 테라피센터, 전문가에 의한 입욕 프로그램 등 세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임정희 회장의 호가 소학(巢鶴)이다. 이곳 「鶴의 傳說」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한 이름으로 “모든 것을 품고 베풀며 산다.”라는 임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한다. 임정희 회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우수한 관광자원을 속초시에 남기고, 평생 동안 이룩한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소학레저 장학재단을 창립하여 매년 관내 중·고등학생 다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한 예이다.



대의(大義)와 공익(公益)이라는 큰 뜻의 기업이념을 두고 “빠르게, 다르게, 새롭게”를 회사경영방침으로 정하여 대단위 개발사업을 시작한 임회장. 그의 또 다른 도전이 속초의 문화관광에 어떤 파급력을 보일 지는 1단계사업이 완성되는 2011년이면 드러난다. 팔순을 앞둔 임회장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을 다듬고, 고민하면서 하루 24시간을 쪼개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깨어나는 고구려의 후예 “해동성국” 발해! 속초에서 부활하다.

한 경 태 (속초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1. 발해의 건국과정과 발해가 갖는 역사적 의미

발해국은 698년 고구려 유민의 부흥의지와 당시의 국제질서를 이용해 새롭게 탄생한 왕조이다. 발해국은 건국이후 228년간 지금의 북한 지역과 중국 길림성·흑룡강성·요령성 일부,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남부지역에 근거하며 남쪽의 신라와 남북국(南北國)을 이룬 국가로 고구려의 1.5~2배, 신라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강역이라 할 수 있다.¹⁾

당나라는 고구려(高句麗) 멸망 후 고구려의 지배층과 세력가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한편 고구려의 옛 땅에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여 고구려유민들을 통제하였다. 이에 수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요서(遼西)·요동(遼東) 및 돌궐(突厥) 등 다른 지역으로 스스로 이동하였거나 강제로 이주되었다. 발해를 세운 고구려의 장수 대조영(大祚榮)도 당나라에 의해 현재의 요령성 조양(朝陽)인 영주(營州)지역으로 강제로 옮겨가 살았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고구려 유민들을 다스렸다. 고구려 옛 땅에서는 당나라에 대한 고구려유민들의 저항이 격렬했다. 이에 당나라는 고구려유민들을 회유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寶藏王)을 요동도독(遼東都督) 겸 조선왕(朝鮮王)으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보장왕은 당나라의 의도와는 달리 말갈인들과 연합하여 고구려의 부흥을 도모하였다.

마침 696년 영주도독(營州都督) 조해(趙徽)가 지나치게 거란인들을 억압하여, 대조영 등이 머물고 있던 영주(營州)에서는 이에 불만을 품은 거란인 이진충(李盡忠)·손만영(孫萬榮)이 난을 일으켰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당은 돌궐(突厥)의 추장인 묵철가한(默啜可汗)의 힘까지 빌렸으나, 거란인들은 순식간에 유주(幽州), 현재의 북경지역까지 점령하였다.

강제로 옮겨와 영주에 살았던 대조영을 포함한 고구려유민들은 당나라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고 집단적으로 영주를 벗어나 요하(遼河)를 건너 꿈에 그리던 고향인 요동으로 돌아왔다. 당나라에 항복한 거란 장수 이해고(李楷固)는 당나라의 대병을 이끌고 대조영을 추격하였으나, 천문령(天門嶺)에서 대패하였다. 이에 대조영은 동모산(東牟山)에 등지를 틀고 진국(振國)을 건국하였다.

1)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21p.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부터 그 유민인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는 698년까지 30년간, 짧게는 696년 거란인들이 영주에서 당나라에 반기를 들었던 때부터 698년 건국까지 3년간 고구려의 유민들은 갖은 고난을 함께하며 나라의 부흥을 도모하여, 마침내 대고구려 부흥국인 발해(渤海)를 건국하였다. 발해 건국에 대해서는 제2대왕 무왕(武王) 대무예(大武藝)가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扶餘)의 유속(遺俗)을 가졌다”라고 써 일본에 보낸 국서에 잘 나타나있다.²⁾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은 영주(營州)에 사민(徙民)되었던 고구려인들을 인도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웠다. 발해가 건국한 길림성(吉林省) 둔화시(敦化市)에는 건국지인 동모산(東牟山) 이외에 발해 3대 문왕(文王)의 둘째딸인 정혜공주묘(貞惠公主墓)가 있고, 이곳에서 출토된 묘지석에서는 “진릉(珍陵)의 서원(西院)에 매장되었다”라고 하여 이곳에 왕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혜공주묘의 무덤양식은 석실 봉토분으로 고구려식의 고분양식을 하고 있다. 대조영은 고구려가 멸망한지 30년만에 고구려유민들을 결집하여 나라를 세웠다. 발해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이미 2대 무왕 대무예가 문화적으로는 부여를 계승하고 영토적으로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에서 발해가 부여-고구려를 계승한 계승국이고, 이들의 역사적, 문화적 연원은 부여-고구려에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고려라는 명칭은 727년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758년에는 양승경(楊承慶)을 통해 보낸 국서에서도 고려국왕(高麗國王)이라고 하였다.³⁾ 따라서 대조영이 건국한 마지막으로 대륙을 호령했던 국가 발해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고구려와 뗄 수 없는 고유한 한국의 역사이다.

2. 발해역사와 속초와의 연관성 및 발해역사관 개관의 의미

발해역사관이 속초에서 문을 열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06. 9. 16 ~ 2007. 12. 23에 걸쳐 방영되었던 KBS 대하드라마 대조영 활영장이 속초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조영 활영장이 만들어진 계기 말고도 발해역사와 속초와의 연관성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신라도(新羅道)를 포함한 무역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⁴⁾

발해는 국제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 신라도는 발해에서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이르는 길로 크게 육상 교통로와 해상 교통로로 나뉘어 지며, 동부 육상교통로는 발해와 신라 사이에 설치된 상설 교통로로서 신라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발해의 동경(현재 중국 훈춘지역)에서부터 신라 정천군(현재 함경남도 덕원군)까지 39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⁵⁾ 함경남도 덕원부터 경주에 이르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주요 교통로는 옛 동해북부선(원산⇔양양) 지역과 함께 동해안지역(현재 7번 국도)이 발해와 신라의 주요 육상교통로라 할 수 있다.

2) 임상선, 『발해의 건국과 국호』,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3) 위의 책.

4)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13쪽

신라도 외에 일본도, 거란도, 압록 조공도, 영주도와 돌궐 등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에서 '담비의 길'을 상징할 정도로 국제적인 무역 중심의 국가였다.

5) 위의 책. 146쪽, 232쪽



그림 1. 발해의 대외교통로

또한 해상 교통로 중 동해를 통하는 길은 남해부의 토호포(吐號浦)에서(지금의 함경북도 북청군) 떠나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경주에 이르는 길로⁶⁾ 항해 도중 동해안 항포구를 거치면서 지역민과 교역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환동해권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속초는 고대 발해와 신라의 육상·해상 교통로에 속해 있었으므로, 발해 역사를 통해 환동해권 문화교류 거점으로서의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민족적인 동질성을 말할 수 있다.

발해는 고왕 대조영 뿐만 아니라 발해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종족적으로 예맥·부여 계

통의 고구려인이었다.⁷⁾ 또한 기층 민족이 강원도의 고대 종족인 예맥족(濊貊族)들이 세웠다는 점에서 민족적인 동질성을 말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강원도 북부에서 발해역사관이 문을 연 것도 타당성이 있다.

셋째로, 생활문화의 연관성을 들 수 있다.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부터 철기문화의 주된 전파경로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반도 동해안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쪽구들과 같은 발해 출토유물과 속초지역 출토유물이 유사한 점, 발해의 5경 중 남경남해부로 추정되는 청해도성(북청읍)과⁸⁾ 위치적으로 가까운 점 등은 러시아 연해주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한 해동성국 발해의 문화가 속초지역까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생활문화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지리적인 합리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발해 무왕(대무예)이 동북쪽으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721년(성덕왕 20)에 하슬라도(何瑟羅道: 지금의 강릉) 지역의 장정 2,000명을 동원하여 북쪽에 장성을 쌓았다고 전하고 있다.⁹⁾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단대사(발해사 3)』에서는 발해의 남쪽 영역을 강릉의 북니하(연곡천)로 기술하고 있는데 “나당 연합군이 발해 남부 국경에 침입하자 발해는 2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나당 연합군을 물리치고 강릉의 니하 경계선까지 밀고나가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라고 하여 “발해와 신라는 니하로써 경계를 삼았은 즉, 양양 이북의 땅은 발해의 땅이 되었다.”라고 비정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두 가지 사례로 볼 때 속초를 중심으로 하는 강원 영동의 양양·속초·고성 등 영북 지역은 발해와 신라의 접경지이자 완충지대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근거 외에 발해와 직접적인 연관성(발해유적: 성곽, 궁궐터, 고분 등)을 갖고 있는 곳은 남한 지역에는 없다. 무엇보다도 잊혀져 가는 우리 고대사의 혼을 일깨우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발해역사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속초시의 발해역사관 개관과

6) 앞의 책. 232쪽

7) 앞의 책. 12~13쪽

8)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67~8쪽.

9) 앞의 책. 2007. 145p.

10) 차태형, 『조선단대사(발해사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136

발해자료 확보노력 및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발해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운영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가장 큰 속초의 발해역사관 개관의 의미일 것이다.

3. 속초 발해역사관 관람하기



그림 2. 발해역사관 전경

발해역사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연면적 720㎡ (218평) 2층 규모로 2009년 7월 10일 개관하였다.

역사관에서 전시되는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1) 지상 1층 해동성국 발해관 관람하기

전시주제는 깨어나는 고구려의 후에 ‘해동성국’ 발해로 도입부는 고구려 멸망이후 발해건국의 과정과 대조영, 무왕, 문왕의 치적, 발해의 영토확장과 수도의 천도과정 그리고 발해의 가장 오랜 동안 수도였던

상경용천부의 상경성 모형이(400/1 축소) 전시되어 있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발해유물을 수장하고 전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일부 유물의 대여와 복제를 통해 전시를 하고 있다. 서울대박물관의 유물 중 특히 발해유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와당류와 토기, 소조불상을 전시하고 있어 발해문화의 우수성과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림 3. 해동성국발해관 투시도

유물진열장을 돌아 다음 코너에는 1,300년 전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며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발해는 우리에게 잊혀졌지만 ‘드라마 대조영’을 통해 우리민족의 역사임을 재인식하고 국민적 관심의 계기를 불러일으키는 전시물이 있다. 그것은 드라마 대조영의 명장면과 스틸사진, 촬영장면 등의 영상과 사진을 전시하고 있어 드라마 제작과정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드라마 주인공의 대형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함께 사진을 찍어볼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

해동성국 발해관을 나와 로비를 지나 건너편에 다르면 ‘드라마 대조영’을 축약한 하이라이트가 상영되고 있어 한자리에서 10분 정도면 드라마 전편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드라마 감상이 끝나면 바로 옆 코너에 체험학습이 있다. 이곳에선 발해시대의 각종 복색을 입어보고 활

영도 할 수 있고 발해유물의 문양을 도장으로 찍어서 가져갈 수 있는 체험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 지하 1층 발해고분 전시관 관람하기

전시주제는 고분의 비문으로 만나는 “정효공주”로 발해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묘지명과 묘제를 통해 나타난 발해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시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적 보수성이 강한 발해의 무덤은 대체로 토광묘, 석축묘, 전축분이 있었으며 대체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분문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고구려의 음악 문화를 전승한 바탕 위에 당악(唐樂)을 수용한 발해국의 음악문화는 한반도의 남쪽을 차지한 통일신라의 음악 문화와 더불어 2세기 반 동안 한국 음악사의 남북국 시대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발해고분전시관 투시도

제일 먼저 유일하게 남아있는 발해의 전답인 영광탑을 축소한 모형이(35/1 축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발해의 묘제 중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것이 묘상건축(墓上建築)인데, 대표적인 정효공주묘 또한 묘상건축의 특징을 가졌다.

묘상건축이란 지하층은 벽돌과 관석으로 묘실이 이루어졌으며, 묘실의 지상에 벽돌탑을 조형하였다. 이러한 묘제는 고구려의 특징적인 묘제인 봉토석실묘의 특징도 엿보이고 있어 발해의 독특한 묘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해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정효공주 묘비의 내용을 통해 베일에 쌓였던 1,300년 전 발해 왕실의 문화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정효공주는 문왕의 넷째딸로 문왕 22년(757)에 태어났고 용모가 빼어났으며, 시사에 능함은 물론 총명하고 품성이 우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로 재현한 정효공주묘실과 함께 사방의 벽화를 실제와 같이 그대로 재현하였으며, 벽화 인물의 의상과 악기, 무기를 하나하나 재현하여 전시하여 실제로 발해시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과 같이 그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림 . 정효공주 묘실

4. 속초 발해역사관 향후 과제와 역할

개관 한 지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발해역사관의 최우선 과제는 우수한 발해사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발해문화를 통해 훌륭한 우리 민족문화를 확인하고 발해역사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발해사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해역사 유물과 연구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해역사관에서는 좀더 다양하고, 우수한 자료를 확보키 위해 해외 공동발굴 추진, 대여·순회 전시, 유물의 복제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 발해유물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발해 연구자료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발해자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전시·체험학습의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 발해역사관과 아울러 속초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과 설악산, 동해바다와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체험시설로써 국민들의 역사교육의 장과 함께 관광지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9문화유적답사 서해안의 아름다운 문화 나들이

이정무 (속초문화원 사업과장)

속초문화원 문화유적 답사가 '인천·충청권 문화유적답사'라는 주제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아침 7시에 속초에서 출발한 참가자 30명과 함께 시작한 대장정의 첫 목적지는 인천.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고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관람하러 갔다. TV광고로만 보던 세계도시축전을 보러 축제 행사장에 도착하니 각 시도의 학생 및 관람객들이 가득했다. 다양한 종류의 국화전시관과 전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전시관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보며 우선 축제의 규모에 놀랐고 불가 두 시간 동안 전 세계여행을 다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인천 세계도시축전 관람을 끝낸 후 인천 팔미도를 가기 위해 연안부두로 이동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팔미도를 가기 위해 유람선을 탔다. '속초에 살며 배는 무슨.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이 뭐...' 하고 필자는 생각했지만 인천연안부두의 색다른 아름다움과 올해 개통한 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8.38km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의 그 웅장한 모습을 배 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자연과 인공 조형물 간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느꼈고, 우리나라의 토목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 위에서 한 시간쯤 있으니 드디어 팔미도에 도착하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서 인천항에서 13.5km 남쪽 해상에 있는 팔미도는 1903년 6월에 설치된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로 유명한 곳으로 그곳에서의 석양은 동해의 일출과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 주었다.

이 일정을 끝으로 드디어 휴식, 피곤한 몸을 달콤하고 깊은 잠으로 푼 후 이틀째 일정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날 첫 일정은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당일 코스 관광지로 정착한 소래포구에 도착. 도착하자 느껴지는 짠 내음, 바로 바다 냄새였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인가? 동해의 짠 내음과는 전혀 달랐다. 좀 더 짜다는 느낌이랄까... 포구에 들어서자마자 짝 깔린 수산물 파는 좌판들이 보였다.



좌관 위에는 새우·꽃게 등의 동해안에서는 보기 힘든 어종들이 엄청난 양으로 깔려있었다. 가격은 어찌나 싸던지 ‘당일 집으로 도착한다면 부모님을 위해 많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데...’라는 생각만 가지고 다음 목적지 제주도로 향했다. 가는 길에서 해의 넓은 갯벌과 시화호 방조제 등을 보며 서해의 풍광에 매료되었다. 특히 제주도로 들어가는 길은 밀물이 되면 길이 바닷물 속으로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갯벌이었구나, 자연은 정말 위대하다! 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중식 후 충청남도 홍성군 삼교천 함상공원에 도착하여 실제 군함을 관람하였다. 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군함의 내부를 보니 이 또한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특히 2002년 연평해전에 대한 해설을 들으니 순국한 군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나라의 분단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다. 함상공원 관람을 끝낸 후 충남 아산시 온양에 도착하여 둘째 날 일정을 마쳤다.



이제 마지막 삼일 쯤 일정, 문화 탐방객 중 가장 어린 필자는 여행 피곤함 때문에 아침에 눈 뜨기 힘들어 조금 늦잠을 잤는데 어르신들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두 뽀뽀한 눈빛으로 마지막 탐방을 시작 준비를 하셨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9시에 버스를 타고 경북 문경으로 이동하였다. 내륙으로 이동하며 보이는 것은 온통 사과밭이었다. 역시 경북지역이 우리나라 사과생산의 60%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모든 사과나무에는 가지가 부러질 듯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달려 있는 것이 장관이었다.



내륙 지방의 작지만 아름답고 푸른 산과 산 주위에 빨갭게 익은 사과를 보다보니 첫 목적지인 문경새재에 도착하였다. 조선시대 때 영남지방과 한양을 잇는 가장 빠른 길로 국방상의 요충지이기도 했던 문경새재를 보니 옛 선인들은 이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문경새재를 잠시 걸었다. 걸으며 주위를 보니 역시 사과생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사과축제가 크게 열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10여 분 더 올라가다 문경새재박물관을 관람하였다. 내부를 들어가니 문경의 역사와 옛

길을 주제로 하는 전시관이 인상에 남았다. 특히 옛 그림 중 과거시험을 보러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과거 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위풍당당한 모습과 낙방해서 돌아오는 초라하고 지저분한 양반의 모습이 같이 전시됐는데 크게 대조되어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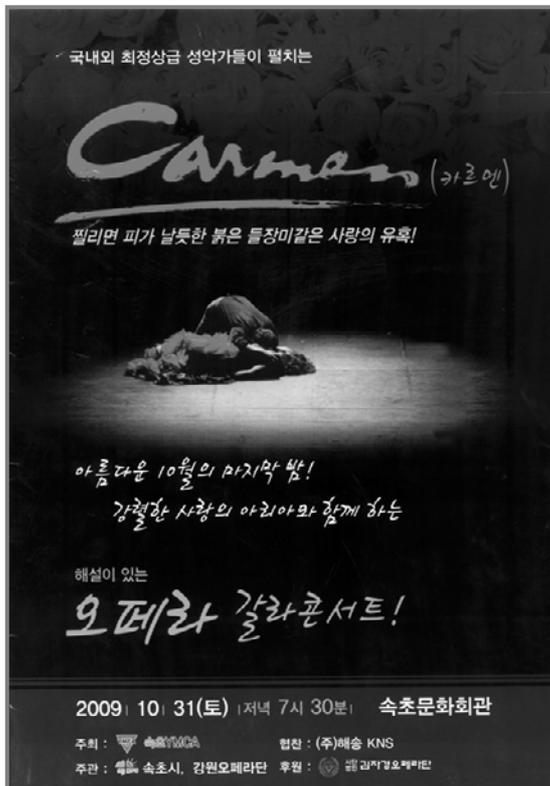
문경새재 답사가 끝나고 우리는 마지막 일정인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출발했다. 문경새재 관광 시간이 적어 아쉬워하는 어르신들은 문경새재를 버스로라도 넘어가자며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바로 충주로 출발하여 약 한 시간 후 충주 탄금대에 도착하였다. 신라 진흥왕 때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 중 하나인 우륵(于勒)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라 하여 탄금대라고 불리어 오는 이곳은 명승제42호로 지정된 곳이다. 규모는 매우 작지만 관광해설사의 친절하고 아주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볼거리가 가득했던 탄금대에서 가장기억에 남는 것은 탄금대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남한강 물결이었다. 서울을 지나 서해로 천천히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물결은 느긋하지만 절개 있는 충청도민의 모습과 많이 흡사한 것 같다.

탄금대 답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속초로 도착하며 2009 속초문화원 문화유적답사 일정이 끝났다. 답사를 끝내며 시간에 비해 많은 답사일정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수박 겉핥기식의 답사가 되었는지 않은가 하는 이 행사를 기획한 기획자로서의 반성과 함께, 필자 자신은 사자성어 坐井觀天(좌정관천) '우물 안의 개구리' 였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간접 경험한 것만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해의 갯벌을 보며, 2002 연평해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이러한 자만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볼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는 유익하고 알찬 탐방이었다.



속초 최초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

편집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좌석은 일찌감치 자리를 찾기 힘들었고, 복도마저 사람들로 북적였다. 속초에서 보기 힘든 오페라 공연이기 때문일까.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10월 31일. 속초시와 강원 오페라단(단장 손문숙)이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오페라 '카르멘' 갈라 콘서트는 국내 최정상급 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정규 오페라의 축약 형태인 카르멘 갈라 콘서트는 그랜드 오페라의 화려한 무대 의상에 성악가와 무용가의 연기가 더해지는 공연. 아리아와 중창은 원어로, 해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해설이 곁들여진 공연'이 특징이다.

강원 오페라단은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설립된 공연단체로, 속초 출신 오페라 전문 연출가 손문숙씨(속초여고 15회)가 이끌고 있다. 손 단장은 영문학을 전공,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연극학을 공

부했으며, 예술의 전당 오페라 페스티벌, 서울시립오페라단, 인디애나 오페라 극장 등에서 다수의 공연을 기획하였다.

손문숙 단장은 "학창시절 오페라 공연에 대한 열망이 컸지만 당시 속초에는 오페라는커녕 독주회 공연조차 볼 기회가 없을 정도였다"며 "앞으로도 고향인 속초에서 모교의 후배들을 위해 더욱 더 좋은 공연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당포함 침몰’

동 문 성 (전 속초시장, 민선 1,2,3기 역임)

해마다 지천으로 잡히던 명태가 거의 구경 할 수 없는 겨울철을 보내면서 노기자의 머릿속에는 이때만 돌아오면 동해 북방 휴전선 근해 어장에서 우리 어선단의 안전조업을 지키다가 격침된 ‘당포함’의 뼈아픈 분노가 되살아나곤 한다.

‘56함’으로 불리는 이 전함은 당시 해군 제1전단 소속으로 동해어로저지선 근해에 출동, 우리 어선단의 보호에 나섰다. ‘56함’은 42년 전인 67년 1월 19일 동해어로저지선 해상에 출어한 속초, 거진, 대진, 아야진 등 동해 북부 연안항에서 출어한 300여척에 이르는 명태어선들의 안전을 위해 물살 틈 없는 경계를 펴왔다.

그러나 이 날 오전 북한군 해안포대의 불의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는 비운을 맞았다. 좌현 기관실에 직격탄을 맞은 ‘당포함’은 순식간에 침몰했다. 당시 ‘당포함’에는 79명의 장병들이 승선하고 있었고 함대의 침몰로 박태만 대위 등 39명의 장병들이 비상 탈출의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애함과 함께 순국했다.

혼자서 제1보 긴급 송고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해양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겨울철이 되도 명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지만 당시만 해도 명태는 동해안의 3대 어종(오징어, 꽁치 등)으로 명태의 연간 어획량이 1만 8350t(66년도 명태 어획고)으로 많은 명태가 잡혔다.

명태는 한류대를 타고 남하하는 겨울철 어종으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잘 잡혀 어로저지선 근해 어장은 이 바람에 먼저 어장을 차지하려는 어장다툼으로 영일이 없었다.

‘당포함’은 이 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어선들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저지하다가 북한 해안포의 기습을 받은 것이다.

나는 전날 거진에 명태생산 현황을 취재하러 갔다가 마지막 버스를 놓쳐 거진에서 1박 하게 되었다. 이튿날 오전 10시쯤 거진수협에 들렀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직원이 “전방 해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귀뜸해 주었다. 이에 바로 어관장에 달려 나가 방금 귀향한 몇 척의 어선에서 내린 어부로부터 “전방에서 대포소리가 몇 번 요란하게 울렸다”는 게 고작이었다.

나는 어부들에게 다그쳐 물었으나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궁금증이 머리 끝까지 치솟은 나는 거진수협 2층에 설치된 당시 동해어로지도본부(본부장 전옥현 해군대령)에 뛰어 올라가 비상상황을 확인했으나 근무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고 탄전을 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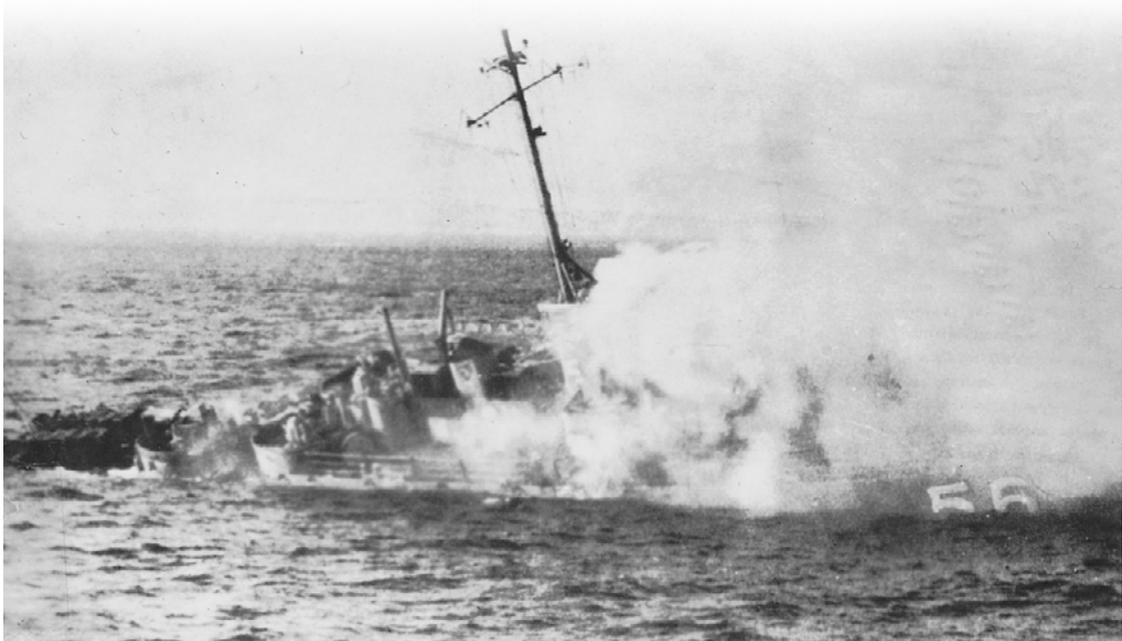
점점 다급해진 나는 다시 부두로 나갔으나 더 이상 입항한 어선이 없었다. 아무런 단서조차 잡을 수 없어 거진등대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갔으나 바다는 뿌옇게 농무가 깔린 것처럼 시야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히 먼 바다에서 어선이 한 두 척씩 항구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부두로 달려 내려와 방금 입항한 '대양호'의 선장을 만났다. 우리 군함이 북한군 공격으로 침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진 우체국으로 뛰어가 신문사에 급히 일보를 띄웠다. 그리고 다시 동해어로지도본부에 이 내용을 문의했으나 역시 묵묵부답일 뿐이다. 부두에 내려가니 입항하는 어선들 마다 온통 난리였다. 보충 취재를 마친 나는 취재내용의 일부는 증계하거나(당시 거진-서울 간은 전화선이 단 1회선이었음) 간신히 본사로 송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월 중순의 뗏다 지는 겨울 해의 땅거미가 짙게 깔리자 거진항은 '당포함'의 비보에 휩싸인 채 적막 그 자체였다.

20일 새벽 서울로부터 각 신문사의 취재차량과 기자들이 거진항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몸담고 있던 신문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어느 조간사는 사회부, 사진부 등 14~15명의 기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특종을 노렸다.

정무에서는 金榮寬 해군참모총장, 姜端龍 국방부 차관이 진해에서 '91함'을 타고 거진 앞바다에 긴급 출동했다. 본사에서는 사회부 金夢述기자, 사진부 金柱業기자를 파견했는데, 그들은 열차편으로 강릉을 거쳐 오는 바람에 오후에야 거진에 도착하였다.



기자는 20일 오전 연안주둔 부대 사단장과 군 관계 기관, 지역의 군수-시장 등이 승선한 배를 타고 진해에서 밤새 달려온 '91함'에 올랐다.

이들을 따라 함내의 일정한 장소에 안내되었는데, 얼굴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기자에게 “조선일보 기자가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내가 바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기자라고 통성명을 했더니 그는 당시 국방부를 출입하던 尹秉海기자였다. 그는 당시 부산~제주 간 화객선(운반선)인 한일호가 남해안에서 침몰한 참사로 진해에 출장갔다가 ‘당포함’ 사고로 ‘91함’이 출동하는 것을 알고 ‘91함’에 승선한 유일한 기자였다.

尹기자는 나에게 “취재는 완벽하게 했고 결정적인 사진까지 입수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91함’에서 머뭇거릴 일이 없었다. 나는 윤병해 기자와 발동선을 타고 거진항에 나와 윤 기자는 가장 빠른 교통편으로 귀사 해야 했다. 인근 보병사단으로부터 L19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날 윤 기자가 탄 비행기는 여의도 비행장에 사정이 있어 의정부에 착륙하는 바람에 강관시간에 간신히 당도했다는 후문을 들었다.

그 날 거진항은 개항 이래 처음으로 기자들이 성시를 이루었고 불꽃 튀는 취재경쟁이 벌어졌다. 강릉을 경유 취재현장에 도착한 김몽술, 김주엽 기자는 윤 기자가 떠난 뒤에야 현지에 합류했다. 기사를 모두 마감한 세 명은 저녁 식사를 위해 당시로는 거진에서 제일 크다는 S식당으로 갔다.

평소 안면이 있는 주인이 일반인 눈에 띄지 않는 뒷방에 우리를 안내했다. 앞방에는 우리 경쟁지인 모조간지 기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떠들썩했다. 그들의 말인즉 “취재현장에는 조선일보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은근히 특종에 들떠 있는 듯한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30분 정도 지났을까 경쟁지의 현지 취재 캡인 듯한 기자가 말하기를 “조선일보가 1판 교환지를 거부했다”면서 무슨 김새를 느낀 듯한 반응이 뒷방으로 전달 되었다.

얼마 후 본사 데스크로부터 온 전화는 “‘56함’의 선수가 하늘을 향하고 침몰하는 사진이 1면 상단에 실린 특종이다”라고 전하면서 마음껏 마시라고 격려해 줬다.

경쟁지는 사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지고, 대전지사장이 조선일보를 들고 상경하여 시내판에는 조선일보에 실렸던 사진을 전재하는 소동을 빚었다 라는 후문이었다.

나는 66년 6월에 입사하여 신군부가 집권한 80년 12월 강제퇴직 되어 신문기자로서의 수명을 마감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펜을 놓게 된 것이 참으로 한스러웠으나 운명의 장난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1·4후퇴 때 나는 부모님과 함께 함남 단천에서 월남하여 속초에서 잔뼈가 굵었다. 당시 상관이었던 부장께서 임지인 속초로 향하는 나에게 “강원도 영동지방은 해난사고와 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니 항상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70을 넘긴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강원도 동해안 지방을 정확히 예견하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5·16 군사혁명 후 제3공화국 시대를 지방에서 취재활동을 하면서 프레스카드(보도증)를 목에 달고 기자생활도 해보았다. ‘기자는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쓰라’는 경구도 있지만, 정열적으로 작성한 기사 전체가 당국의 잣대에 맞지 않다고 쓰레기통에 처 박히는 비참한 꼴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던 시대를 살아보기도 했다.

東海의 대형사건 줄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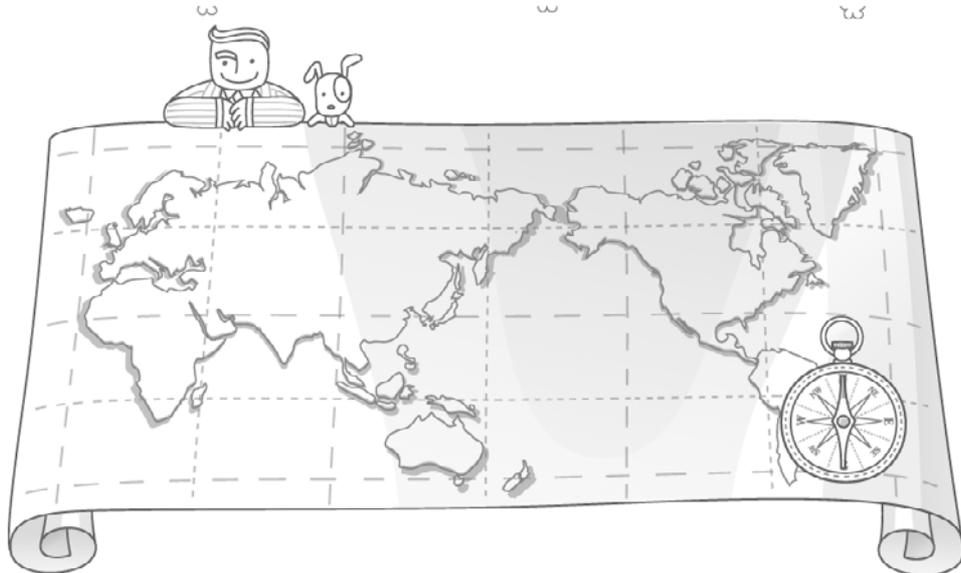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 67년 2월 설악산 '죽음의 계곡' 에서 발생한 한국산악회 히말라야원정 등반대 조난참사사건을 비롯해 동해 북부 해안에선 북한에 의해 수를 헤아릴 수없이 벌어졌던 명태, 오징어잡이 배의 집단 납북 사고,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고, 속초공항을 떠나 서울로 가던 'YS 11' 여객기 납북사고, 속초공항에서 서울로 가던 KAL기 납북미수 초도리 해안 불시착사건, 정낙현 대위 MIG 16기 대포리 비행장 귀순, 박순국 소좌 MIG 16기 거진 송포리 해안 불시착 사고, 해경 '863정' 의 북한 경비정과 충돌한 침몰사고, 어로보호 임무 수행 중 거진 앞바다에서 파도에 휘말려 침몰된 해경 쾌속정 사고 등 터졌다 하면 말 그대로 대형사고 입을 열거할 수 있다.

고성군 거진읍 거진 10리 야트막한 산등성이에 오르면 고성군민들이 건립한 기념비가 질푸른 동해를 내려다보고 있다.

67년 1월 19일 동해어로 저지선 근해에 명태잡이를 나간 어민들을 보호하기위해 작전을 수행하다 산화한 '56함' 장병들의 거룩한 넋을 기리기 위한 군민들의 애뜻한 마음이 비석에 담겨져 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군 출신 노병들이 42년 전 동해에서 어로보호 임무수행 중 북한군의 공격으로 산화한 39명의 '당포함' 순국 전우들의 조국에 대한 거룩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당포함 추모사업 후원회' 를 결성하고 이사장에 민병기(67)를 추대했다는 내용이 전해져 새삼 그 때의 감회를 새롭게 하고 있다.

'당포함' 은 순국장병과 함께 심해에서 영면하고 있지만, 살아남은 노장병들의 변함없는 전우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생각하니 당시 취재전선에서 함께했던 노기자의 마음에도 새로운 감회가 깃들고 있다.



1930년대 속초항 개발과 정어리 호황

엄경선(설악신문 프리랜서 기자)

동해안의 대표 어항인 속초항은 속초의 생명줄이었다. 6.25 전쟁 후 북에서 남하한 실항민과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속초에 모여 들었던 데는 바로 동해안 수산업 전진기지였던 속초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 척박한 그 시절 누구라도 수산업 경기가 좋은 속초에 오면 품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 수 있었기에 속초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착한 삶의 터전이었다. 이로 인해 수복 후 10여년만인 1963년 속초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로 승격할 수 있었다.

- 1932년 39만원 공사비로 속초항 축항 착공

속초항은 언제 어떻게 개발되었을까. 언제 속초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시가 생겨났을까. 처음 속초항이 개발되던 1930년대 신문을 통해 속초항 개발의 역사를 더듬어 본다.

1929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에는 양양 속초리에 축항기성회가 조직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 축항기성회가 바로 속초항 개발의 첫 시작이었다.

양양 속초리 축항기성회(築港期成會) 활동 / 도평의회(道評議會)에서도 가결, 미구(未久)에 실현될 줄기대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는 양양에서 어산지(漁產地)로 제1위에 있고 현재 2백10여호의 대부락으로 미시령도로의 기점이 되어 산업상 교통상 어디로 보든지 전 양양에 있어서는 장래 발전의 희망이 다대(多大)한 곳인데 지난 1월 15일에 이곳 유력자(有力者)들은 회합하여 축항기성회를 조직하고 사업의 계획과 규약 등을 제정하고 5개년 사업으로 지금 맹렬한 활동을 하는데 강원도 당국에서도 이에 상당한 주목을 하여 지난번 평의회에서도 도(道) 공익의견(公益意見)으로 가결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속초의 축항은 실현되리라더라. (양양)

당시의 신문 기사를 종합하면 기성회가 활동한지 3년 반이 지난 1932년 공사가 시작됐다. 제1차 속초항 축항공사는 지역주민의 축진운동에 힘입어 강원도가 직영으로 총공사비 39만원의 거액을 들여 1932년 11월 6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해, 당초예정보다 1년 늦은 1937년 3월 30일 공사를 종료하였다. 당시 공사 규모는 설악권에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전국에서 수천명의 사람이 일을 찾아 몰려들어 속초 경기가 대호황을 이뤘다고 한다. 많을 때는 동시에 인부 6백여명이 공사에 동원될 때도 있었으며,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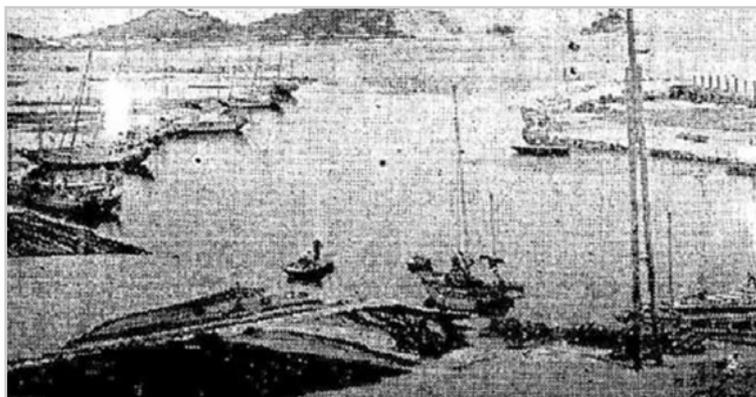
관계로 인부들이 모두 흩어져 떠나기도 했다. 당시 강원도 당국은 청초호를 끼고 있어 천혜의 양항(良港) 조건을 갖춘 속초항을 동해안 제2의 나진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제1차 속초항 축항계획을 보면 내항(內港)과 외항(外港)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내항(51만5,475평 면적의 호수, 수심 4~5m), 외항(11만1,418평 수심 8~9m)으로 개발하는데, 해변에서 호수로 통하는 곳에 내외방과제를 수축하여 외항에 들어오는 선박은 수문을 통하여 내항인 호수로 피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호수 준설공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다. 방사항(防沙港) 총 8백20여m, 매립예정면적 약 8만8,974평이며, 항구 개발 후 발동기선 약 1천여척 정박 가능하며, 주변의 빈해지(바다에 접한 땅)도 수백정보(町步)가 있어 공장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당시 신문에서는 당국에서 공사중인 동해안 철도를 이곳까지 연장하려 한다면 속초항 일대가 무역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기 공사로 지금의 청초호 수로와 항만이 완성되었다.

1933년에는 축항 공사 현장에서 돌을 깨뜨릴 때 쓰는 화약의 폭발로 6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으며, 1938년에는 매축공사를 하는 산이 무너져 사람이 죽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 속초항 개발로 면사무소 이전, 도시형성

당시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속초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33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속초항과 인접한 시장통에 도로 개설을 추진했으며, 1935년 양양군과 경찰에서는 속초 호수 동편(지금의 청호동 지역)을 당시 최고의 소득원이었던 정어리공장 40개가 들어설 공장지대로 지정하였다. 축항을 계기로 속초지역에 전기가 들어왔으며, 1935년에는 숙원사업이었던 우편소도 속초항에 들어섰다. 1936년에는 대포에 있던 어업조합도 속초항으로 이전하였고, 1937년에는 면사무소가 대포에서 속초로 이전하면서 지역 이름도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1937년 12월에는 동해북부선 간성-양양구간이 개통되면서 속초항 인근에 속초역이 들어섰다. 1937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영랑공립심상소학교(지금의 영랑초교)가 들어섰다. 1939년 6월에는 속초 개항 기념 운동회가 당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1937년 10월 1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속초항의 모습. 1기 속초항 축항공사로 현재의 속초항 모습이 갖춰졌으며, 많은 어업인구 증가로 속초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기 축항으로 속초항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 1935년 속초항 방파제가 축조된 이후 파도가 2~3배 높아져 속초항 인접 민가 2백호와 도로가 폭풍우에 침수피해가 발생, 주민들이 속초항 추가 보강 공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구나 축항이 들어서면서 파도에 모래가 밀려들어와 쌓여 선박 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해 1기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준설선이 계속 모래를 퍼내야만 했다. 1937년 봄부터 극심한 흉어로 수천 명의 부두노동자들도 정어리를 쫓아 함남지방으로 가 버려 완공된 속초항은 낡시배 한두 척만 보이는 초미의 사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수산업계 유지 등이 나서서 2기 축항공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1941년 6월 22일 속초항 제2기 축항 기공식이 거행되었다고 하는데, 공사내역과 진행상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기 공사는 속초항이 1939년부터 개발된 양양철광의 반출항으로 이용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937년 제1기 축항공사가 완료된 이후 속초어업조합에서는 새로 개발된 속초항에 청어염장탱크, 발동기선 급유탱크, 속초-대포간 사설전화, 폭풍경보신호소 등 어항관련시설을 확충하였다.

당시로서는 동해안에서 두번째 수준의 양항이라 하는 속초항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한편 동국여지승람에 '비선대'로 소개된 영금정 돌산이 속초항 방파제에 사용할 돌 채취로 사라졌으며, 이후에 영금정 앞 운치있는 노송이 있던 송도도 바다를 매립하면서 육지가 되어 사라졌다. 당시 사진을 보면 속초항 먼 뒤로 노송이 우거진 송도의 모습이 선명하다.

- 속초항에 눈치(정어리)잡이 배들로 활황

1936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 '영동처녀지 6郡 산업의 현장' 특집에는 다음과 같이 속초항의 풍경을 실은 기사 내용이 실렸다.

몇일 동안 날씨가 좋고 바다가 고요하였던 덕분에 눈치잡이배가 들어왔는지 해변모래벌에는 별안간 눈(雪)이 온 것처럼 은(銀)빛 비늘을 번쩍이며 수없는 생선이 잡혔고 혹은 지계를 지고 혹은 동이를 인 남녀 생선장사가 활기있게 왔다갔다 하는 광경은 농부들이 추수하는 흥취와는 매우 달라보입니다.

눈치잡이배? 눈치가 무슨 물고기인지 지금 우리에게서 참 생소한 이름이다. 눈치는 강원도 지방에서 쓰는 정어리의 다른 말이다.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눈치라고 부른 듯 하다. 정어리는 1930년대 당시 신문에서는 보통 온어로 표기하였으나, 멸치를 뜻하는 약어로 쓰기도 했다. 이 당시 속초항과 대포항에서는 청어와 명태 등도 많이 잡혔지만, 동해안의 다른 항과 마찬가지로 온어, 즉 정어리가 최대 어획종이었다. 이 정어리를 빼놓고는 1930년대 속초의 어촌 풍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1923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 동해안 일대는 세계 최고의 정어리 어장이 형성되어 단일 어종으로 세계 1위의 어획고를 기록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어유 제조공장이 들어서면서 조선의 수산업은 유례없는 대호황을 누렸다. 당시 정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정어리 떼에 부딪혀 배가 난파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행기 항공사가 바다를 내려다보니 없던 섬이 새로 생겼는데 그게 알고 보니 정어리 떼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어리 기름을 정제 가공하여 공업용 유지와 선박연료, 화약, 화장품,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며,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는 온박 이라 하여 농업용 비료나 사료로 쓰였다. 온유비 공장은 정어리 기름인 온유를 제조

하고 비료로 쓰인 온박을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특히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와 맞물려 정어리 기름의 수요가 크게 급증, 정어리 어획과 온유비 공장이야말로 당대를 대표하는 대활황 산업이었다.

온유비 공장이 노다지 산업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돈푼깨나 있다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두배의 이윤을 남겼다고도 한다.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2차 세계대전을 벌인 일본은 군수용 기름의 50%를 정어리 기름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신기하게도 1940년 이후부터는 정어리 어획이 급감하면서 해방 전후에는 동해안 일대에서 그 많던 정어리를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어리가 일본을 망하게 했다고 하여 정어리를 '일망(日亡)치' 라고 불렀다고 한다.

- 속초항, 정어리 어획에 따라 희비 엇갈려

1930년대 동해안 바닷가 주민들은 정어리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항구마다 정어리 대풍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었으며,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형성되었다. 함북 청진항, 함남 흥남항, 신평항과 원산항, 강원도 장전항과 속초항, 대포항, 주문진항을 거쳐 남해안까지 정어리 어획이 넘쳐났다. 일본의 식민지 수탈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되는 온유비 공장은 일본을 대표하는 대자본이 주도하여 대규모 공장을 시설하고 유통을 독점했으며, 조선인도 제조공장 운영에 함께 뛰어들었다. 속초에는 당시 일본 최고의 재벌이던 미쓰이(三井)그룹이 설립한 중연조선수산의 직영공장을 비롯해 일본 대자본의 온유비 공장이 다수 있었다. 1937년 9월 8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대포수산조합 관할에만 정어리를 가공하여 기름을 짜는 온유비 공장이 80여개가 들어섰으며, 생산액만 연 60만여원에 달해 속초에 온유비 제품검사 기관을 설치해달라고 업자들이 요구하고 나섰다 한다. 1940년대 속초의 지역 유지라하면 수산업과 온유비 가공업으로 재력을 일군 사람들이 다수였다. 약어비 제조업 조합장 정주벽, 속초변영회장으로 속초항 개발에 앞장섰던 강래병을 비롯해 실업가로 이름이 알려진 강구정, 김준기, 고재동, 정윤화 등도 모두 이런 경우이다. 정어리 어획과 가공공장에 종사한 속초 주민만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했다.

속초항과 대포항은 정어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갑자기 활기가 넘치고, 정어리 어획이 부진하면 어군을 따라 함경도지방으로 배들이 몰려가는 바람에 한순간에 항포구가 개점 휴점 상태로 들어가곤 했다. 이렇듯 정어리 어획과 관련해 희비가 엇갈린 속초항과 대포항의 풍경을 당시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936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속초항 풍경. 어판장이 잡아온 정어리로 가득하다.

양양속초항에 부녀노동군 진출/『정어리』경기 반영

[양양] 양양의 대어촌에는 근자에 정어리가 많이 잡혀서 농어촌의 경기가 점점 좋아져 어촌의 여자일꾼 노동을 보게 되었으며, 그녀들은 아침 5시부터 해수(海水)에서 배가 들어올 때를 기다려서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매일 1원 이상에 품 팔이를 하게 되어 한가족 중에 놓고 먹는 것은 유아(乳兒)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 1935년 12월 12일 조선중앙일보

어획부진으로 속초 부두의 한적상(閑寂狀)

[속초] 강원도 속초는 어항으로 동해안 최양항으로 어획고가 연 50만원에 달하는 바 발동선 기타 어선 등의 출입이 연락부절하여 부두의 어업노동자만도 수천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금춘 이래 전면 흉어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되던 바 더구나 함남북(咸南北)의 정어리 시기를 따라 어선 등은 물론 노동자까지 전부 자기들 직업을 찾아서 북으로 향발(向發)하였으므로 청초호에는 다만 낚시배 한두척이 왕래할 뿐이요 부두에는 해수욕장 찾아 다니는 사람뿐인 듯한 한적한 상태에 이르렀다 한다.

- 1937년 8월 25일 동아일보

속초항 온어획 4년來 초유 대풍

[속초] 강원도 속초 연안의 춘기 정어리잡이는 삼사년 이래로 극히 흉어의 상태에 빠져 당업자들은 그야말로 지난 가을부터 금년 봄 사이에 걸쳐 파산의 비명을 울리고 있던 바 금춘은 초어기부터 대단히 유망하여 요사이 정어리 대부대가 2리(浬, 해리) 내외의 바다에 접근하여 출어선은 매일 만선의 기쁨을 날리고 들어오는데 풍획으로 정어리 공장을 경영하는 업자들은 대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 1939년 6월 1일 조선일보

- 일본 대재벌 정어리기름 독점 가격하락

정어리 어획과 온유비 공장으로 속초항과 대포항은 유례없이 대호황의 경기를 누렸다. 그러나 공업화와 군국화의 핵심 물적 토대인 온유비 유통과 가공을 독점한 일본 대재벌은 조선의 어민과 노동자들이 호황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온유비 가격 결정과 판매 통제 정책을 둘러싸고 영세어민과 제조업자, 일본 대자본 가공업체, 식민지 통치 당국 사이에 팽팽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속초지역에서도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여러 건 발생했다.

세계대공황 시절이었던 1931년 조선총독부 식산국(殖産局)에서는 당시 최고의 신흥 산업이었던 온유비 업과 관련하여 소위 일수판매제(一手販賣制)라는 방식의 통제판매계약을 강제적으로 시행했다. 정어리기름(온유)은 일본의 경화유 가공회사의 연합체인 '합동유지(合同油脂) 글리세린 주식회사'가, 기름을 짜고 난 온박은 일본 굴지의 대재벌인 삼릉(三菱)이 독점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유비의 중간유통을 배제하고 생산과 소비를 근접시켜 온유비 생산업을 보호해 안정시킨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제도였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어민과 온유비 생산업자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각 도(道)의 약유비수산조합 연합대표와 합동유지·삼릉이 해마다 3월경에 가격과 거래량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인 식산국이 개입하여 알선 조정하기로 했다.

경쟁입찰방식에서 독점매매방식으로 전국이 동일한 가격에 지역별 생산량조차 배당된 통제계약을 시행하는 첫해부터 온유비 가격은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물론 당시 대공황으로 수요가 감소했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독점 유통을 보장받은 대재벌이 가격하락을 주도하였다. 협상에서 양측의 요구가 큰 차이가 있었으나 총독부가 개입하여 일본 대재벌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희생을 강요당한 어민과 생산업자에게는 식산국에서 보급금(補給金)을 약속하였다. 처음에는 순수한 보조금 형태의 지원금으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고율의 이자까지 포함한 차입금 형태로 지급되었다.

더구나 이 조치로 만들어진 생산업자들의 판매주식회사는 고율의 수수료로 다수의 생산업자를 착취하게 되었고 합동유지와 삼릉은 계약분을 초과해 어획·생산된 제품을 헐값으로 사들여 생산업자·어민을 더욱더 곤궁하게 만들었다.

소규모 영세시설로 생산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가를 강요받은 전국의 온유비 생산업자들과 어민들은 이 강압적인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항의하였지만 식산국은 이 정책을 5년간 강제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1936년 한시적인 통제계약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생산업자와 어민들은 이미 온유비 유통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합동유지와 삼릉의 그늘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영세 조선인 생산업자가 파산하면 일제 대재벌은 그 지역에 대규모 어유비 제조공장을 세웠으며, 대량어획이 가능한 건착선(巾着船, 건착망어선)을 직영하여 조선어민들이 재래식 어망조업을 하던 동해 어장을 잠식하였다. 일본선박의 진출로 전체 어획량이 늘어나 지역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영세어민들은 초과된 물량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일본대재벌에 헐값에 팔아넘겨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 어민과 노동자 희생 강요로 반발

속초지역에서는 온유비업과 관련해 어민들과 공장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1920년대 말부터 계속 이어졌으며, 특히 1931년 일수판매제 시행 이후에 더욱 심해졌다.

백오십어부, 또 동맹파업 / 임은문제로 인한 파업이다. 양양서 발발(勃發)

지난 달 21일에 양양군 도천면 일대 정어리 공장 어민 사백여명의 파업이 돌발하여 일반의 주목을 끌던 바 쌍방의 원만한 타협으로 일부 해결이 되었다 함은 본분에 이미 보도하였는데 지난 30일부터 양양군 내물치리에서 3개소 공장의 28척 선원 백사십여명이 또 파업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듣건대 다른 공장에서는 통의 용량과 대금을 균등히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장들은 하등의 결정이 없음으로 드디어 파업을 하였는데 그 요구조건은 통의 용량을 다른 공장과 같이 균등해 해 줄 것과 정어리 한통에 대금 일원팔십전씩으로 정해줄 것 등이라는데 주동자 김삼록 외 5명을 경찰이 검거 취조중이라더라. (양양)

- 조선일보 1929년 6월 4일 석간 7면 기사

온어가 문제로 백여 어민 맹파(盟罷)/ 확정가를 결정하라고

지난 십팔일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에서는 온유박 제조공장 이삼개소 어민 120여명이 파업을 단행하였는데 그 이유를 듣건대 예년에는 정어리 대금에 대해 어획시 결정해 주지 않고 이날저날 미루어 오다가 마감 계산때만 되면 모호한 이유로 대금을 적게 주어왔으며, 금년에는 산업합리화라는 미명하에 가격협정으로 ○○와 기름값(온유)은 확정되었다

면서도 생온에 대해서만 가격결정이 못되었다함으로 일반어민들은 제조원료인 생온의 값을 모르고 기름값만 정하였다는 것은 전년과 같은 수단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 수차례 제조업자에게 가격확정을 독촉하였으나 지금까지 결정을 아니해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일반의 주목거리라 하여 사회단체 어민조합 간부들과 임원들의 알선으로 문제는 그리 확대될 것 같지 않다고 하며 경찰은 주모자라고 할 만한 김유석(金有石) 외 삼인을 소환하는 동시에 배후에 조종책동이 없는가하고 엄밀히 조사중이라한다. [양양]

- 1931년 6월 7일 중외일보 기사

보급금(補給金)달라고 팔십 어민이 쇠도 / 제조업자의 이익만 꺾한다고 양양대포어조에

[양양]지난 팔일 오후 3시경에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대포에서는 동면 내에 산재하여 있는 어민 팔십여명이 어업조합에 쇠도하여 대성질시 등 형세 자못 험악하였는데 이제 그 자세한 말을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 봄부터 동해안 수산물만 어민 대중의 맹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어의 생산제한과 유비(油肥)의 강제적 일수판매제는 어민의 생활을 극도로 침해하게 하였으니 그 소위 어민구제책이란 미명하에 온유보급금 문제로써 일시 세인의 이목을 끌어들여다가 최초 협정액 절반인 기름 한관에 십칠전오리로 최근에 결정을 보게되어 강원도 할당액은 칠만원으로 결정되었으니... 중략... 대포어업조합에서는 대포에 있는 어민 두 사람을 불러 보급금은 결정되었으나 전액을 다 어민에게 줄 수 없다는 등 현재 온유비 판매가격으로는 제조업자의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등 일언언어가 제조업자의 이익을 꺾함으로 이것이 동기가 되어 극도의 생활난에 쫓달리는 어민들은 ...중략... 수산조합과 어업조합이 합하여 제조업자의 이익을 꺾함이라하여 극도로 분개한 어민들은 그와 같이 어업조합에 쇠도하여 보급금은 현금으로 전액을 어민에게 지불하라고 대성질시하였다. ... 생략...

- 조선일보 1931년 9월 13일 기사

어민들의 파업에 일본경찰은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파업주동자를 구금하여 취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며, 파업어민들은 어민석방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벌이기도 했고, 경찰을 찾아가 탄압의 이유를 묻는 등 탄압에 항의한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1931년 9월 2일 조선일보에는 양양군 토성면 아야진리 리구봉온유박제공장에서 품팔이를 하는 노동자 8~9명이 노임문제 등으로 공장주와 싸우다 못해 부당한 착취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전했다.

1938년 12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속초항에서는 정어리 흥어와 건착선 등살에 자망업이 자멸할 위기에 처했으며, 물가는 오르는데 제품값이 떨어져 속초의 약유비공장들도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한다. 특히 자망선업 경영을 폐지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만약 사실이라면 종래 수천종업원들의 전업 알선과 이후 생계가 문제되어 어도(漁都) 속초에 큰 이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이 글은 2009년 5월 25일자 설악신문 908호부터 3회 연재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여 게재하였습니다.

80년전 빛바랜 “속초항” 엽서가 다시 돌아온 사연

- 고향 방문한 사할린 전상주씨 시립박물관에 기증
- 항만 개발 전의 모습, 가장 오래된 속초항 사진



사진 1. 속초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80년 전 우편엽서.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6일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사할린에서 고향을 찾아온 해외동포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만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자신을 사할린주 노인회장 전상주(全相周)라고 소개하였다. 1933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77세. 1940년 부친을 따라 사할린으로 이주했는데, 이번에 ‘세계 한인의 날’ 행사 참석차 보름간의 일정으로 귀국하여 고향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를 찾아왔다.

돌아가신 부친 전창렬(全昌烈)이 양양농민조합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는데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수소문하던 차에 인터넷을 통해 기자가 설악신문에 썼던 양양농민조합사건 기사를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전상주씨는 낡은 사진엽서 한 장을 꺼내어 보여 주었다. “襄陽名所 理想的築港を急 東草港.(양양의 명소인 속초항에 이상적인 축항 건설이 시급하다.)” 하단에 문구가 선명한 속초항의 옛 전경사진이 담긴 사진엽서였다. 속초항 축항 건설이 1932년에 시작된 걸 감안하면 축항 건설을 촉구하는 이 사진엽서는 그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1929년 속초리에 축항기성회가 조직되어 활동할 즈음에 홍보용으로 제작된 사진엽서로 추정된다. 엽서의 사진에는 속초항 축항에 쓰인 돌을 캐내기 전의 영금정 돌산, 수로가 뚫려 없어지기 전의 청초호 사주(砂洲)가 그대로이다. 청초호 호안을 따라 비포장길이 나 있고 호안으로 배 몇 척만 한가로이 정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속초항이 개발되기 전의 사진은 공개된 바가 없다.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속초항 사진일 듯하다. 전상주씨는 낡은 사진엽서를 고향에 대한 기억으로 수십년간 소중하게 간직해 온 것이다.

전상주씨는 부친 이야기를 꺼냈다. 부친 전창렬(全昌烈)은 1895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생으로 1932년 양양농민조합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1939년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해방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할린에서는 선탄장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1946년 설립된 사할린 조선인학교 학부형위원장을 지냈으며, 1972년에 사망했다. 전창렬씨는 양양농민조합 집행위원장 김병환(金炳煥, 속초리 출신)을 존경하여 그의 이름 중 병(炳)자를 따서 차남의 이름을 기병(箕炳)이라 지었다. 전상주씨가 1989년 처음 고향을 방문했을 때 부친 전창렬씨가 소를 팔아 야학을 개설했다는 이야기를 고향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 국사편찬위원회에 들러 양양농민조합 활동을 했던 부친 전창렬씨에 대한 기록을 찾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일제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36명의 명단에 부친의 이름이 없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전창렬(全昌烈)은 없고 대신 김창렬(金昌烈)만 있다는 것이다.



사진 2. 고향 양양군 강선리를 방문한 전상주 사할린주 노인회장

전상주씨는 양양농민조합 사건으로 부친이 구속된 다음해인 1933년 정월 초하루에 태어났다. 1939년 아버지가 먼저 사할린으로 이주하고 다음해인 1940년 가족들 모두 부친을 따라 사할린으로 이주했다. 1961년 탄광노동자로 근무하고 1962-1967년까지 한글신문사 편집인으로 있다가 1967-1976년 러시아육군사단본부 소령, 1976년-현재까지 일본회사의 대륙봉탐사 석유 가스공사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러시아극동대학신문학과(통신), 러시아육군사관학교(단기)를 졸업했다. 전상주씨는 사할린에서 세 번이나 시의원을 지냈으며, 구소련 시절에는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과 묘향산, 원산 등을 둘러본 적이 있다. 그리고 한·러 수교 이후 고국을 방문해 남한에서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금은 10년째 사할린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국제한민족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일본 패망 후 사할린이 소련에 편입되면서 일본인들만 귀국하고 한인들은 그냥 방치된데 대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할린 잔류자 귀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금은 일본 인권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할린 동포의 전시우편저금, 보험금, 미지급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전상주씨는 예전 고향 방문 때 할아버지 전영두씨의 묘를 찾아 비석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는 예전에 부친 땅이었던 묘지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아버지 묘만큼은 그대로 남겨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만남이 있던 날 저녁, 기지는 인터넷을 통해 양양농민조합사건에 대한 1934년 6월 22일 함흥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전상렬씨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판결문과는 달리 당시 신문에는 강선리 출신 전창렬(全昌烈)이 김창렬(金昌烈)로 잘못 표기되어 보도되었다. 전창렬은 당시 나이 40세로 양양농민조합 강선리 지부를 설립하고 지부 회관에서 겨울에 틈틈이 사회주의 교양 교육을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930년 전후로 양양농민조합은 야학을 설립 운영하고 기근과 소작문제, 농잠학교 설치 문제 등에서 지역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1932년 일본경찰이 3백여명의 조합원을 모두 검거하고 2년 동안의 취조 끝에 지도부 36명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하면서 조직이 와해되었다. 농민조합 활동 관련자 중 몇 명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기도 했다.

출국을 이틀 앞둔 10월 7일, 서울에 머물고 있는 전상주씨는 속초항 사진이 실린 우편엽서를 속초시립박물관을 통해 고향에 기증하기로 기자에게 약속하였다. 멀리 사할린에서 전해 온 한 장의 사진엽서를 통해 80년 전 아름답던 속초항의 모습이 다시 살아났다.

雪嶽碧溪九曲歌 설악벽계구곡가

석정(石井) 황재권(黃在權) / (한국한시협회 정회원)

雪嶽奇峰 落此停
설악기봉 낙차정

金剛髣髴有仙靈
금강방불 유선령

名山屹立 中天貫
명산홀립 중천관

携杖登攀 可摘星
휴장등반 가적성

一曲清泉 深谷流
일곡청천 심곡류

流溪碧水 浪花浮
유계벽수 낭화부

飛仙臺上 飛仙臥
비선대상 비선와

雲海青峰 似棹樓
운해청봉 사도루

설악의 기이한 봉우리들
여기에 머물렀으니

금강을 방불케 하는 선령이
바로 여기로다

명산은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를듯

힘겹게 오르니 가히
별을 딸문도 하다

첫째 굽이 맑은 샘 깊은 물
골짜기에 흐르니

유계 푸른 물에 꽃송이
떠서 물결치내

비선대는 신선이 내려와
누워있는 것 같고

운해 낀 봉우리에는
도루와도 같구나

二曲溪心 雲霧生
이곡계심 운무생
繞山樹背 夕陽橫
요산수배 석양횡

巖花垂露 斑斕翠
암화수로 반함취
騷客疲勞 暫舉觥
소객피로 잠거굉

三曲幽深 過碧潭
삼곡유심 과벽담
遠斜石徑 翠烟含
원사석경 취연합

蔚山巖壁 削磨立
울산암벽 삭마립
洞窟天然 繼祖庵
동굴천연 계조암

둘째 굽이 시냇가에는
구름안개가 생기고
산 둘러 숲속에는 석양이
벗기네

바위에 떨어지는 이슬
푸르름 머금어 아롱거리고
선비들 피로하여 쉬면서
술잔을 기울이네

셋째 굽이 유심한 푸른
못을 지나니
멀리 돌길 빗겨 푸른연기
머금었네

울산 암벽은 깎아
세운 것 같고
천연동굴인 계조암이
바로 여기구나

四曲長松 鶴舞亭
사곡장송 학무정

傾樽農父 擊歌聽
경준농부 격가청

西山落照 歸家忘
서산낙조 귀가망

滾滾雙川 魚子寧
곤곤쌍천 어자녕

五曲溪邊 茂草盈
오곡계변 무초영

洞深秀麗 引松聲
동심수려 인송성

佳人遊賞 聯翩路
가인유상 연편로

花鳥相憐 摠有情
화조상련 총유정

넷째 굽이 장송속에
학무정 자리하니

농부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격양가 소리 듣는다

서산은 어둑어둑
돌아갈 줄 모르는데

쌍천은 꿈틀꿈틀
고디떼들 편히 놓고있네

다섯째 굽이 시냇가는
무초가 차 있는데

골은 깊어 아름다우니
소나무 소리에 끌리노라

가인들의 노닐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화조는 서로 사랑하면서
정을 나누노라

六曲權金 險峻程
육곡권금 험준정

抗蒙戰跡 幾年經
항몽전적 기년경

變遷歲月 快飛舸
변천세월 쾌비가

回顧當時 慷慨生
회고당시 강개생

七曲葛藤 狹路縈
칠곡갈등 협로영

龍湫落水 落雷聲
용추낙수 낙뢰성

憑欄細線 登山樂
빙난세선 등산락

無限空間 不勝情
무한공간 불승정

여섯째 굽이 험한 길이니
권금성이라

몽고와의 전쟁의 흔적
몇 년이나 지났는가

변천하는 세월속에
케이블카라

당시를 생각하면
감회가 깊도다

일곱째 굽이는 칙녕쿨
좁은길에 엉켜있고

용추의 떨어지는 물
우뢰소리와도 같구나

가는 줄 난간에 의지해
오르는 즐거움에

무한한 자연에 그 정을
이기지 못 하였네

八曲逶迤洞壑深
팔곡위이 동학심

清潭錄水可魚臨
청담녹수 가어임

斷崖數仞返斜照
단애수인 반사조

泡沫石灘琴鼓音
포말석탄 금고음

九曲險難石徑斜
구곡험난 석경사

靑峰頂上雪葬花
청봉정상 설장화

渺茫東海似圖景
묘망동해 사도경

日暮歸帆滿載嘉
일모귀범 만재가

여덟째 굽이는 구불구불
동학은 깊은데

맑은 못 푸른 물에
가히 고기가 어른데네

낭떠러지 수길에는
햇빛이 반사하고

물거품은 돌에 부딪쳐
거문고 소리 내네

아홉 굽이 험난하니
돌길에 빗겨 있는데

대청봉 정상에는
눈꽃피어 장식했네

아득한 동해바다
그림같은 경치요

해 저물어 돌아오는 배
만선의 기쁨이라

내가 누구냐 하면요

손문숙 (오페라 연출가)

내가 누구냐구?

깊고 짙푸른 동해바다 셋바람에
초매자락 날리며
세상을 하나 가득 가슴에 품었던
춘뜨기 간나요.

내가 누구냐구요?

바닷길 밝히는 등대불따라
항구로 들어오는
통발어선의 시퍼런 치열함을
너무 빨리 배워 버린
고향땅 삶의 여전사란 말이요.

내가 누구냐 하면요.

할퀴고 지나가는
술한 세월 속에서도
거만하고 오묘한 자태로 솟아있는
설악의 땅을 지키다가
그 영혼을 닦아버린
시인의 여자란 말이요.

그래도 내가 누구냐 하면요,

낙산사 해수관음상 입구 숲길 가득
개구리 울음소리에
남몰래 바닥에 고인 슬픔
치맛자락 뒤집어쓰고 삼키던
자존심 강한 속초어버이의 딸이었지요.

그리고 이젠
내가 누구냐하면요,

눈 덮인 겨울 덕장,
밤새 부는 눈보라 속에서
살 부대끼며 엉켜있는 북어처럼,

누구하나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한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북어처럼

속 내장 전부 비우고
텅빈 가슴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 북어처럼,

도란도란 뭉쳐서 고향의 파도소리,
바람소리 지키는
속초여인이란 말이요.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최 평 규 속초 상공회의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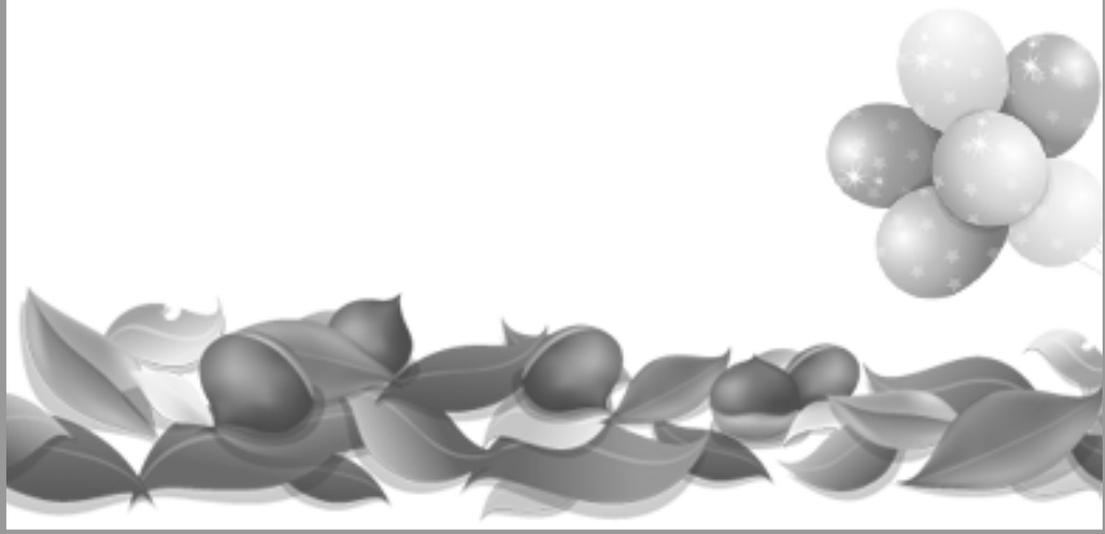


최평규 (주)대명 대표이사가 주택산업 발전과 국민주거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2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9 주택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보증(주)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한 '주택건설의 날' 기념식은 주택건설 경기 장기 침체의 여건 속에서도 국민주거생활 안정과 주택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6천여 주택건설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평규 대표이사를 비롯해 산업훈장 6명(금탑·은탑·동탑 각 2명), 산업포장 4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국토해양부장관표창 30명 등 57명의 기업인 및 업체에 상을 수여했다.

1986년 속초에서 창업한 (주)대명은 건고한 중견 주택건설업체로, 주택산업 발전과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등의 공로로 3차례에 걸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03년에는 (사)한국기업경영학회로부터 기업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극단 '굴렁쇠' 단원 연속 수상 쾌거

- 황헌중씨 강원예술상 청년예술인상

- 석경환씨 제27회 강원연극 예술상 수상

극단 굴렁쇠의 주축배우들이 강원도 연극인에게 주는 상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황헌중씨는 강원예술상 청년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석경환씨는 제27회 강원연극 예술상을 수상한 것. 황헌중씨는 속초고를 졸업한 후 극단 굴렁쇠와 극단 오름 등지에서 '늙은 도둑 이야기', '붉은 훈장', '인류 최초의 키스' 등 30여 작품에 출연하며, 해당

극단이 전국연극제와 강원연극제 등 각종 대회에서 금상과 대상을 11차례나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석경환씨는 설악고를 졸업 후 1987년 속초연극협회(당시)에 가입, '귀족수업' (1988년)으로 공식 데뷔했다. 이후 '한씨연대기', '붉은 훈장', '늙은 부부 이야기', '전설의 달밤 화진이 화진이'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면서도 늘 이미지 변신에 성공, 팔색조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연극제에서는 세 차례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황 헌 중



석 경 환



제21회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

2개부문

체육 부문 / 안창호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 최효선

수상자 공적사항

【체육 부문】

수상 후보자	안창호	
본 적	강원도	
주 소	속초시 조양동 1484-10	
추 천 사 유(공적내용)		
년 월 일	연구 활동 및 공적사항	
1960년	- 한·일 친선 배구 고교대회 참가	
1956년~1965년	- 제37회~제46회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출전(다수메달 획득)	
1960년	- 제2회 아시아청소년배구대회 대표선수 선발	
1964년	- 제18회 동경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1972년~1984년	- 강원도배구협회 이사 및 부회장 역임	
	- 도 교육위원회 체육지도자 역임(속초, 고성 후배 양성)	
1973년	- 학생체육관 개관식 실업팀 초청 배구대회 개최 주도적 역할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수상 후보자	최효선	
본 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 108	
주 소	속초시 조양동 1524-12	
소 속	속초 밥사랑공동체	
직 위	대표	
추 천 사 유(공적내용)		
년 월 일	연구 활동 및 공적사항	
2004. 5. 1 ~ 2009. 9월 현재	<p>상기인은 2004. 5. 1일 속초 밥사랑 공동체를 설립하여 소외계층(장애우, 독거노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급식, 물리치료, 미용, 무료진료를 지원하여 드리므로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끊임없이 복지서비스 아이템을 개발하여 폭넓은 지원으로 소외된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복지활동을 통하여 살기 좋은 속초와 생활환경개발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p> <p>2009년 9월 현재 무료급식 150,000명을 육박하였고 도시락 7,600명, 미용 4,200명, 물리치료 6,600명, 일자리마련 56명, 목욕 600명, 의류 1,400점을 제공하였습니다.</p>	

2009 속초문화원 임·직원 명단

직위	성명	주소	비고
원장	노광복	중앙동 468-142	
부원장	오윤근	교동 656-5 13/2	전) 교사
	최현식	중앙동 코아루APT 102동 606호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이사	고재양	교동 780-60 15/3	전) 교사
	곽철신	교동 럭키2차APT 103-1205	영북지구 충청향우회 대표
	권순완	노학동 972-1	주)척산온천 휴양촌 상무이사
	권영석	중앙동 부영아파트 603-1205	순오텐트 대표
	김계남	교동 780-130 15/4	아시아항공여행사 대표
	김계양	대포동 470-3	속초대포하우스 대표
	김동익	중앙동 476-12	si 속초대리점 대표
	김병학	중앙동 503-44	속초요리학원 원장
	김상복	중앙동 삼성쉐르빌 104동 901호	속초연탄은행 대표
	문광철	중앙동 1292-1 동명아파트 나동 205호	속초시조등학교 총동창회연합회장
	박명기	금호동 600-7 영랑호리조트 관리사무소	영랑호리조트 본부장
	박무용	도문동 200	돌감자 장학회장
	박상열	영랑동 동진오피스텔 1329호	풍원기업(주) 대표
	박정기	중앙동 230 연회동 / 자택636-7025	설청로타리클럽 대표
	박정은	금호동 484-7 동제약국	동제약국
	양재호	교동 627-32	전)교육행정공무원
	엄시용	교동 780-156	성우산업 대표
	윤광훈	중앙동 1292-15	이정종합광고 대표
	윤숙자	교동 627-42 설악유치원	전) 설악유치원 원장
	이춘실	노학동 설악럭키1차APT 2-606	전)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임동환	대포동932-8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대표
	장 옥	장사동 518-7 우림연립 마-101	속초시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주영래	장사동 600번지 12/4	속초시재향군인회 회장
	최원근	교동 767-224 럭키1차 3-808	전)천일주유소 대표
	탁동식	교동 로얄골든APT 303호	고성고등학교 교감
	한남호	영랑동 대양연립 나-103	설악고등학교총동창회 사무총장
	함봉식	교동 럭키설악타운 1-1108	주)세림 대표
감사	어재석	중앙동 468-67	전) 속초시의회 과장
	허우린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속초간호학원 원장
사무국	김인섭	중앙동 부영아파트 311동 506호	사무국장
	이정무	교동 동부아파트 102-401	사업과장
	김은중	동명동 44번지 2/2	사무주임

2009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번호	성명	우편번호	주 소
1	강금옥	217-060	속초시 교동 속초대명2차 1006호
2	고무순	217-030	속초시 중앙동 1통 5반 476-12 (속초시대리점)
3	권종식	219-833	고성군 토성면 아아진리 195-8
4	권춘산	217-060	속초시 교동 628-1 서울대명아파트 1차 1409호
5	권 혁	217-060	속초시 교동 737-7 아남빌딩 1414호
6	김경선	217-080	속초시 조양동 1398-6
7	김경숙	217-060	속초시 교동 주공3차 105동 701호
8	김귀선	217-080	속초시 조양동 코아루APT 104동 805호
9	김규인	217-060	속초시 교동 럭키2차아파트 103-1406
10	김기순	219-832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66-5
11	김남범	217-010	속초시 영랑동 570-5
12	김동연	217-070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13	김동하	217-080	속초시 조양동 대명4차APT 804호
14	김령자	217-020	속초시 동명동 타워맨션 905호
15	김선자	217-030	속초시 중앙동 468-20
16	김성하	217-090	속초시 청호동 1352-7
17	김영환	217-060	속초시 교동 1/4
18	김은경	217-080	속초시 조양동 1516번지
19	김재환	217-080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502-1105
20	김정환	217-020	속초시 동명동 우렁3길 5호
21	김철한	217-080	속초시 조양동 부영APT 301-1002
22	김춘형	217-020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앞길 59
23	김태희	217-070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24	남정이	217-110	속초시 도문동 200
25	노조자	217-070	속초시 노학동 799-109번지 43동2반
26	박명선	217-010	속초시 영랑동 양우APT A동 504호
27	박봉근	217-040	속초시 금호동 17동1반 400-11
28	박인숙	217-060	속초시 984 석미아파트 103-1403
29	박정숙	217-010	속초시 영랑동 570-5 속초민속예술인총연합회
30	박찬용	217-070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31	박치영	217-070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32	서정희	217-120	속초시 설악동 348-2
33	손병섭	217-060	속초시 교동 명지 미래힐APT 106동 1004호
34	신우근	217-070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35	양언석	217-060	속초시 교동 동부APT 107-202

2009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번호	성명	우편번호	주 소
36	엄경선	217-060	속초시 교동 등부APT 106호 305호
37	오영자	217-010	속초시 영랑동 328-16
38	오정선	217-020	속초시 동명동 567-26 14/2(문화로 27)
39	유인혜	217-080	속초시 조양동 부영APT 904동 406호
40	이경우	217-010	속초시 영랑동 200번지 동현APT 102동 904호
41	이계남	217-010	속초시 영랑동 동현아파트 102동 102호
42	이복례	217-070	속초시 노학동 980-33
43	이수영	217-070	속초시 노학동 현대1차 104-405
44	이영자	217-070	속초시 노학동 306-1
45	이옥복	217-060	속초시 교동 서울대명 1차 301호
47	이정옥	217-060	속초시 교동 럭키2차 설악타운 103동 905호
46	이정옥	217-080	속초시 조양동 주공4차 110-803
48	이태숙	217-080	속초시 조양동 부영APT 101-404
49	임희영	217-010	속초시 영랑동 570-2 갯마당
50	장계석	425-0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번지 호수마을APT 115-603
51	장성구	217-080	속초시 조양동 1034-4 제일프라자3층삼성화재속초지점
52	장용근	217-020	속초시 동명동 577-36
53	장재환	217-080	속초시 조양동 산수빌APT 1405
54	장종길	217-060	속초시 교동 904-5 나하나 2차 301호
55	전성호	217-070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56	전유선	217-010	속초시 영랑동 무궁화 APT 203호
57	정병옥	217-060	속초시 교동 대우APT 101동 401호
58	정승무	215-814	양양군 오색 1리 116-1
59	정재승	219-833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23번지
60	정정자	217-070	속초시 노학동 134번지 31통4반
61	정중천	217-080	속초시 조양동 규아루 104-1303
62	정효남	217-080	속초시 조양동 1540-2 청봉초등학교
63	조광여	217-040	속초시 금호동 23/5
64	조동대	217-080	속초시 조양동 1034-49 청초프라자 117호
65	주동진	217-070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66	지용준	217-060	속초시 교동 럭키APT 6동 506호
67	최상규	217-080	속초시 조양동 주공4차 105-901
68	최영수	217-060	속초시 교동 654-133 한일칼라 3층
69	최중현	217-080	속초시 조양동 주공4차 111-1002
70	한경태	217-070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71	허용자	217-010	속초시 영랑동 209-6

문화의 온기가 전해지는 **속초문화원**

문화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2010년 속초문화원 주요사업

☉ 향토문화 연구 및 활동기능 강화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
- 향토사연구소의 활발한 활동 및 기능 확대

☉ 사회 교육사업

- 실질적인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육 기회 마련
-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속초의 뿌리 교육정착

☉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문화DB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지털화 변환
-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DB 연계 구축

☉ 속초시의 종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정립

- 속초시 각종 행사에 속초 전통문화 공연 계획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통한 실버문화종합기관 구축

☉ 속초의 문화 재조명

- 속초시사 홈페이지 체계적 관리
- 속초사자놀이 전승 및 보존
- 속초 도문농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체계적 전승
- 실향민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존 및 전승

2010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속초시민에게 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문화 저변 층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설강좌: 고전무용, 장구교실, 사물놀이 중급반, 사물놀이 고급반, 한지공예, 서예교실, 민요, 노래교실
- 모집시기: 2월
- 입교식: 3월 5일
- 신청방법: 속초문화원 방문접수
- 등록비: 연 3만원(재료비 별도) - 문화원 회원은 1만원 할인혜택 및 1강좌 무료 수강 가능(정원 미달시)
- 문의: TEL 632-1231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 회원혜택

1. 매년 발간되는 향토사인내서와 『속초문화』, 소식지 등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받습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도서, 음반, DVD,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원회비: 연 4만원

- 문의: TEL 632-1231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



2009년 7월 개관한 발해역사관은 연면적 7198㎡에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져, 1층에는 드라마대조영 전시·영상관이 지하 1층에는 발해정효 공주 고분 전시관이 들어섰다.

드라마대조영 전시·영상관은 발해의 건국, 발해 228년, 꿈꾸는 발해, 드라마대조영으로 부활하다, 발해체험실, 영상실 등 6개 존으로 구성,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재현한 그래픽과 축소모형, 장신구류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발해 정효공주 고분 전시관은 '고분으로 만나는 발해문화, 정효공주를 만나다, 되살아나는 발해인, 정효공주 고분, 우리민족의 역사발해' 등 5개 존이 마련되고, 그래픽과 인물모형, 묘실모형 등이 전시되고 있다.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전화 033)632-1231, 639-2439 전송 632-1241
 홈페이지 : 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에서는 여러분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속초문화원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에 뜻을 같이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문화원 사무국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